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Immigrant Youths'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the Art-Narrative Convergence
Therapy (ANCT) Program

2019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다문화교육전공)

오 영 섭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Immigrant Youths'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the Art-Narrative Convergence
Therapy(ANCT) Program

2019년 2월

지도교수 김영순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다문화교육전공)

오 영 섭

이 논문을 오영섭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19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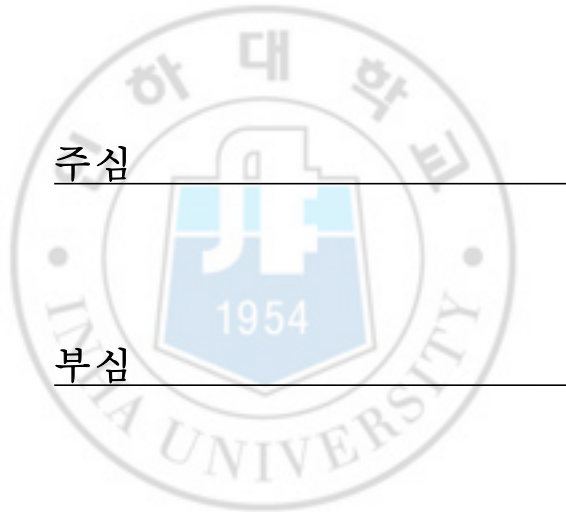
주심

부심

위원

위원

위원



국문초록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에서 주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함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미술-이야기융합치료(Art-Narrative Convergence Therapy: ANCT)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되는 참여경험을 분석하고, 이들의 참여경험에 나타난 의미와 치료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국내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면서, 중도입국청소년에 관한 정책적인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들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적인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개인, 가정, 학교, 사회라는 통합적인 맥락에서 접근하고 이해해야함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심리치료가 미술치료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치료를 주요 이론으로 사용하고 미술치료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두 치료가 융합될 때 보다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다문화예비학교로 지정된 I 시의 G 고등학교에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12회기의 ANCT프로그램을 7명의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7명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의 ANCT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을 초기, 중기, 후기의 단계별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초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생활, 진로, 일상생활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중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야기의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고 연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을 가족과의 헤어짐과 재결합 등과 같은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정적인 맥락에서 찾을 수 있었다. 후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전 단계에서 사용한 상징을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그 의미를 심화시키면서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참여경험은 이야기치료의 관점에서 문제적 이야기의 발견, 독특한 결과의 조명, 대안적 이야기의 재저작으로 유형별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문제적 이야기는 이주를 겪으면서 발생한 심리적 피로감, 정체성의 흔들림,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등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문제적인 이야기를 표현할 때, 상징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독특한 결과는 가족 안팎의 인물 혹은 자기 자신의 강점과 관련하여 경험한 이야기로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극복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대안적인 이야기는 문제적인 이야기에서 사용한 상징에 부여한 의미를 새롭게 변화시켰으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참여경험을 통해서 볼 때 본 연구는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잠재적 치료효과와 활용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효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를 외부자인 다문화담당교사를 통해서 관찰하였다. 담당교사들은 미술-이야기 융합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첫째,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외적으로는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바뀌었으며, 내적으로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개별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개인마다 변화의 정도와 내용은 다르며, 별다른 변화가 없는 연구참여자도 일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거나, 심리치료에 대한 부담이 흥미와 재미로 바뀌었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자기표현이 어려웠던 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졌으며, 적성 및 진로발견에 도움이 되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치료기법으로서 이야기치료이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에 이야기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이고 임상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의 장점을 활용한 융합치료모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중도입국청소년 심리치료의 잠재적인 가치를 확인한 이야기치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치료기법들과 융합치료를 시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임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는 일종의 내담자중심적인, 자기주도적인 심리치료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치료 경험은 중도입국청소년으로 하여금 한국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교와 관련정책기관을 위한 제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국문초록	i
목 차	iv
표 목차	vii
그림목차	ix
부록목차	x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동기	4
3. 연구 문제 및 내용	7
4. 연구 동향	10
II. 이론적 논의	15
1.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15
1.1.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과 정책	15
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21
2. 미술-이야기융합치료	26
2.1. 이야기치료	26
2.1.1. 개념 및 배경	26
2.1.2. 치료의 원리와 단계	31
2.1.3. 선행연구 분석	37
2.2. 미술-이야기융합치료	41
2.2.1. 융합치료	41
2.2.2. 이야기치료에서 미술치료활용	43

3.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49
3.1.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	49
3.2.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52
Ⅲ. 연구방법	54
1. 질적 사례연구	54
2. 연구절차	61
3. 연구참여자	70
4. 자료수집 및 분석	75
4.1. 자료수집	75
4.2. 자료분석	78
5.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적 고려	80
Ⅳ. 중도입국 청소년의 치료프로그램 회기별 참여경험	85
1. 연구참여자 A: 휴식이 필요한 내담자	85
2. 연구참여자 B: 정체성이 흔들리는 내담자	94
3. 연구참여자 C: 엄마의 빈자리가 있는 내담자	107
4. 연구참여자 D: 갈 길을 모르는 내담자	115
5. 연구참여자 E: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내담자	124
6. 연구참여자 F: 자유를 갈망하는 내담자	133
7. 연구참여자 G: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내담자	142
8. 소결	152
Ⅴ. 미술-이야기융합치료 참여경험의 의미와 효과	158
1. 미술-이야기융합치료 참여경험의 의미	158
1.1. 문체적 이야기의 발견	159
1.1.1. 이주를 겪으며 생긴 심리적 문제	159
1.1.2. 새로운 가족관계의 어려움	163

1.1.3. 한국어와 학교생활의 어려움	166
1.2. 독특한 결과의 조명	167
1.2.1. 가족 안팎 사람들의 지지	168
1.2.2.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	171
1.3. 대안적 이야기의 재저작	175
1.3.1. 상징의 의미변화	175
1.3.2. 심리적 어려움의 해소	177
2.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효과	179
2.1. 전반적 효과	180
2.2. 개별적 효과	184
3. 소결	191
Ⅵ. 결론	196
1. 요약	196
2. 논의 및 제언	201
3. 나가면서	208
참 고 문 헌	210
ABSTRACT	222
부록	225

표 목차

〈표 I-1〉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연구동향	10
〈표 I-2〉 중도입국 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연구동향	11
〈표 II-1〉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책 개요	19
〈표 II-2〉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22
〈표 II-3〉 내러티브 정체성이론의 치료적 함의	27
〈표 III-1〉 미술-이야기융합치료(ANCT)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63
〈표 III-2〉 연구참여자의 특성	70
〈표 III-3〉 연구자료의 형태와 내용	75
〈표 IV-1〉 연구참여자 A의 초기단계 사례	86
〈표 IV-2〉 연구참여자 A의 중기단계 사례	88
〈표 IV-3〉 연구참여자 A의 후기단계 사례	90
〈표 IV-4〉 연구참여자 A의 이야기의 전개	91
〈표 IV-5〉 연구참여자 B의 초기단계 사례	96
〈표 IV-6〉 연구참여자 B의 중기단계 사례	99
〈표 IV-7〉 연구참여자 B의 후기단계 사례	102
〈표 IV-8〉 연구참여자 B의 이야기의 전개	103
〈표 IV-9〉 연구참여자 C의 초기단계 사례	108
〈표 IV-10〉 연구참여자 C의 중기단계 사례	110
〈표 IV-11〉 연구참여자 C의 후기단계 사례	112
〈표 IV-12〉 연구참여자 C의 이야기의 전개	113
〈표 IV-13〉 연구참여자 D의 초기단계 사례	117
〈표 IV-14〉 연구참여자 D의 중기단계 사례	119
〈표 IV-15〉 연구참여자 D의 후기단계 사례	121
〈표 IV-16〉 연구참여자 D의 이야기의 전개	122
〈표 IV-17〉 연구참여자 E의 초기단계 사례	125
〈표 IV-18〉 연구참여자 E의 중기단계 사례	128

<표 IV-19> 연구참여자 E의 후기단계 사례	130
<표 IV-20> 연구참여자 E의 이야기의 전개	131
<표 IV-21> 연구참여자 F의 초기단계 사례	135
<표 IV-22> 연구참여자 F의 중기단계 사례	137
<표 IV-23> 연구참여자 F의 후기단계 사례	139
<표 IV-24> 연구참여자 F의 이야기의 전개	140
<표 IV-25> 연구참여자 G의 초기단계 사례	144
<표 IV-26> 연구참여자 G의 중기단계 사례	146
<표 IV-27> 연구참여자 G의 후기단계 사례	148
<표 IV-28> 연구참여자 G의 이야기의 전개	149
<표 IV-29>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의 단계별 특징	152
<표 V-1> 미술-이야기융합치료 참여경험의 의미	158
<표 V-2>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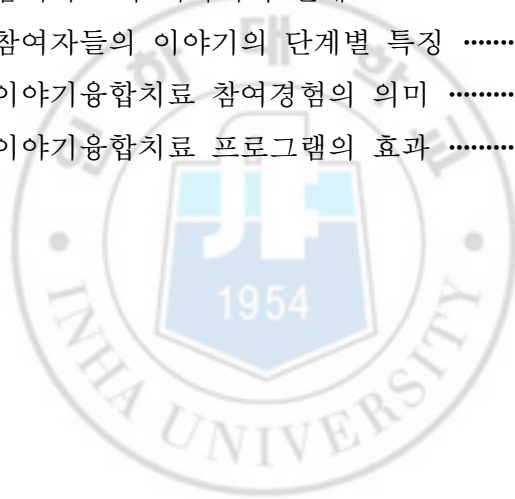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II-1> 이야기를 활용한 심리치료의 단계	34
<그림 II-2>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52
<그림 III-1> 본 연구의 사례연구설계	59
<그림 III-2> 본 연구의 연구절차 개요	61
<그림 III-3> 자료분석의 개념적 틀	79



부록 목차

<부록 1> 연구설명문 및 연구참여동의서	225
<부록 2> 소감문 양식	233
<부록 3> 참여관찰 및 성찰일지 양식	234
<부록 4> 교사인터뷰 질문지	235
<부록 5>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교수안	237
<부록 6> 연구참여자의 회기별 미술작품	24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프로그램 참여경험을 분석하고, 참여경험에 나타난 치료의 의미와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이하 중도입국 청소년)은 국내 이주민 2세 대로서 해외에서 주로 성장하다가 다양한 이주경로를 거쳐서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9~24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전형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을 하면서 데려온 본국의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에서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자녀는 중도입국 청소년이다(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신조어이다. 이 용어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술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은 현재 한국 다문화사회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적실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보다도 언어, 문화적응, 학업, 심리, 진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배상률, 2016; 양계민, 조혜영, 2011). 이런 점에서 언론과 학계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다문화의 또 다른 그림자’, ‘이방인(異邦人)과 방인(邦人) 사이의 경계인’ 등으로 부르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실상을 조명하고 있다(민나리, 2018; 유비 외, 2017; 정원식, 2016). 하지만 정부의 주무부처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다보니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통계가 7천여

명에서 3만여 명을 오갈 정도로 아직까지 그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정책도 주무부처마다 중복되고 혼선을 빚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접하는 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정확한 실태조사, 정신건강 및 상담지원, 전반적인 지원시스템을 관할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신설 등을 꼽았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하면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주었다(배상률 외,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책은 국내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기초위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포함한 국내 이주민들을 참여와 공존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한국사회에 동화되어야 대상 혹은 도움과 시혜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정책이 집행된다(정용인, 2018b). 더 나아가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25세가 넘은 성인이 된 이후의 상황, 즉 국내 이주민 3세대까지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정용인, 2018b). 그러므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다문화가족정책을 검증하는 시험대의 하나이면서, 향후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도약대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들이 생계를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져서 부정적인 감정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에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 기관이 중도입국 청소년 전담기관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다. 서울에만 4천여 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담기관의 수용규모는 하루에 35명 정도이다. 이 센터는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필요만을 채워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민나리, 2018). 그리고 국내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이런 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하여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과 지원을 확장해가는 것 이외에도,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들과 연계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된 심리치료이론개발 및 임상적용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심리치료가 요구되는 열등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한국과 세계에 기여하기에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인적자원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기이해와 자기표현 등의 정서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심리치료를 접근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전담하는 기관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교나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로 쉽게 활용하고 변용할 수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부담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참여경험과 치료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연구와 나아가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

2. 연구동기

연구자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이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연구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인해서, 연구자는 정신 질환이 한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아픔과 슬픔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는 아직도 정신 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정신 질환에 대한 약물치료나 상담치료에 대하여 터부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당사자와 가족의 아픔을 표현하지 못한 심적인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지려고 하는데 본능적인 감각이 있었다. 상담 및 심리치료는 연구자의 인생에서 항상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주제였다.

연구자가 외국에서 이주민으로서 11년 동안 거주한 경험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연구자는 20대 후반에 미국에 유학생으로서 이주하여 30대의 전부를 보냈다. 연구자는 이주민으로서 언어적, 학문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다.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영어는 항상 스트레스였다.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부족하여 의견을 만족스럽게 전달하기가 어려웠다. 연구자의 경력이나 지식이 현지인들에 비하여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닌데, 연구자 자신은 마치 언어장애를 가진 것처럼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목사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을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을 목회자로 선발하지 않는 미국 남부지역 교회의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은 목사로서의 자격을 얻는 과정에서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주 생활의 절반 정도는 아내를 한국에 두고 홀로 이국생활을 했다. 그래서 외로움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았다. 이주 초기의 연구자의 기대와 달리, 이주 경험은 결코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주 생활에서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다. 연구자는 나름 오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회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자의 경험은 역지사지의 눈으로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주제, 즉 심리치료와 다문화사회라는 주제는 연구자의 가족사와 생애사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연구자는 국내에 입국한 이주민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연구자 가족의 어려움, 연구자가 겪은 어려움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았다.

연구자가 중도입국 청소년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17년도 여름이었다. 연구자가 10여 년의 이민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지 불과 1년이 된 시점이었다. I 시의 다문화예비학교들 중의 하나인 G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찰하는 기회가 있었다. 4개 국가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이주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었다. 한국의 춤과 노래를 즐기고,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한국의 청소년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불안과 어려움을 볼 수 있었다.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사귀기보다는 이주배경의 친구들과 더 어울려 다니고,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하여 불안해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들과 이야기 하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상당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상담 및 심리치료,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고, 이들 역시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얻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는 2017년 하반기에 다시 중도입국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은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서툴고 중·고교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양질의 기본교육을 받아서 상당한 잠재력과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남긴 미술작품과 이야기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가족관계의 어려움, 청소년 발달시기의 사춘기적인 반항심 등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인 새 아빠와 한국인 가족구성원들과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상징과 은유로써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치유하는 기존의 미술치료적인 접근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문학에 내재된 치유의 요소를 활용한 융합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러므로 인문학의 기본 바탕인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이야기치료를 미술치료와 융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에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탐색하였다.



3. 연구문제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예비학교인 G 고등학교에서 수행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경험 사례를 분석하고, 참여경험에서 나타난 치료의 의미와 효과를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나타난 치료의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가?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사례로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미술작품과 소감문과 발표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기별로 기술하고 질적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한다.

연구문제 2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치료프로그램 참여경험의 치료적 의미와 효과로서, 연구문제 1에서 나타난 참여경험을 이야기치료이론을 참고하여 문제적 이야기, 독특한 결과, 대안적 이야기의 세 가지 범주로 유형화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부관찰자인 담당교사들의 관찰을 통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이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나타난 결과를 분

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자의 연구동기, 연구문제 및 내용, 그리고 연구동향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연구동향은 구체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기존의 프로그램이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에 다양한 치료기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의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장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과 정책, 심리적 특성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이론적 배경을 언급하였다. 먼저 주된 이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야기치료의 개념과 철학적 배경, 치료의 원리와 단계,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에, 융합치료의 관점에서 이야기치료와 미술치료가 통합되었을 때의 장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프로그램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치료기법을 가지고 융합치료설계를 시도하고,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임상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내담자들의 생활세계에 가까운 환경에서 임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III 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서 연구의 전체흐름을 정리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치료프로그램 참여경험과 그 치료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질적 사례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연구설계, 연구절차, 연구참여자, 자료수집 및 분석, 그리고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적 고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IV 장은 연구문제 1과 관련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을 연구참여자별로 회기에 따라서 미술작품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V 장 연구문제 2와 관련한 결과로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경험을 문체적 이야기, 독특한 결과, 대안적 이야기의 상위범주로 정리하고 치료

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또한 외부관찰자인 담당교사들의 관찰을 통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Ⅶ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의 의의, 학교와 관련기관을 위한 제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4. 연구동향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술연구데이터베이스인 RISS에서 중도입국을 제목으로 사용한 연구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발표된 학위논문 116편, 학술지논문 130편을 찾을 수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연구동향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0
학위논문	1	4	14	9	18	28	24	18
학술지	7	17	11	14	9	28	29	14
합계	8	21	25	23	27	56	53	32

<표 1-1>과 같이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2011년에 실시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양계민, 조혜영, 2011)를 출발점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2016년과 2017년에는 50여 편의 연구가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심리 혹은 정서, 상담, 심리치료에 관련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연구주제는 크게 심리관련 변인들 사이의 관계,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상담 및 치료경험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 주제에 따른 연구동향 살펴보면 다음 <표 1-2>과 같다.

〈표 1-2〉 중도입국 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연구동향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변인관계	0	1	0	2	3	2	5	5	18
프로그램	0	0	2	1	3	7	7	2	22
상담경험	0	0	0	0	1	1	1	0	3
기타	0	3	0	1	0	0	0	0	4
합계	0	4	2	4	7	10	13	7	47

〈표 1-2〉와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상담 및 심리치료관련 연구 중에서 심리관련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38%,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가 47%, 상담 및 심리치료의 경험에 관한 연구 6%를 차지한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관련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변수 및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양계민·조혜영(2012), 좌동훈(2013, 2014), 유비 외(2017) 등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양계민·조혜영(2012)은 전국의 중도입국 청소년 403명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응 현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 연령, 가정경제수준, 입국 자발성·준비·년도, 지지체계, 학교재학, 한국어 능력 등과 같은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라 심리사회적응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가족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좌동훈(2013, 2014)는 2012년에 중도입국 청소년 18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출신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응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중국 한족, 조선족, 몽골 등의 국적에 따라 우울·불안이 차이가 난 반면에,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서는 우울·불안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출신지역과 같은 개인적·

내재적 요인에 주목하여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도움을 제공해야한다고 제안한다.

유비 외(2017)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이주 이전과 이주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이주경험과 정신건강문제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이주 이전의 주 양육자와의 유수(留守)기간, 유수기간 동안에 주 양육자 이외의 친척과의 동거여부는 이주이후의 지지체계나 한국문화적응수준 만큼이나 정신건강과 연관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주 이전의 경험까지 고려해야하며, 주 양육자와의 유수기간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가족지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미술치료를 핵심으로 한 예술치료기법을 통해서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자신의 심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정서 순화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금미(2017), 김지인(2017), 황현정·이윤정(2016), 김연진(2013) 등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왕금미(2017)은 학교 안팎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10회기의 콜라주 집단미술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콜라주미술치료경험이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효과적이었으며, 언어적 한계를 가진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였다.

김지인(2017)은 음악, 미술, 놀이 등을 통합한 24회기의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중국계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황현정·이윤정(2016)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음식재료를 활용한 7회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의 자아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김연진(2013)은 중도입국 아동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순화예술놀이를 실시하였다. 정서순화예술놀이는 유드리믹스 음악놀이와 푸트아트놀이, 스토리텔링을 통합한 10회기의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의 정서표현과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순화와 사회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상담경험에 관한 연구는 관련 연구들 중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치료사의 경험 혹은 내담자의 경험을 통해서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다문화 상담, 중도입국 청소년 상담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김혜진(2015), 김현주(2016a, b) 등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김혜진(2015)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상담한 경험을 가진 초심상담자들의 경험과 그 의미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초심상담자들의 상담경험의 5가지 구성요소는 ‘생소함에 도우려는 열정이 넘침’, ‘연민어린 울타리로’, ‘상담표면에 나타난 진퇴양난’, ‘마침내 참 만남이 애뜻하고 특별함’, ‘문화적 민감성의 길로 들어섬’ 이었다. 이를 통해서 문화적 유능성을 가진 상담자로서의 훈련, 중도입국 청소년에 특화된 상담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김현주(2016a, b)은 중도입국 청소년 상담의 치료적 요인을 내담자요인과 상담자요인으로 나누어서 탐색적인 연구를 하였다. 내담자 요인으로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상담 및 심리치료라는 개념이 생소하므로 자연스러운 상담전환이 이루어지고, 현실적 대처를 위한 정보가 제공되며, 상담이 유연하게 구조화되고, 대안적인 상담개입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현주, 2016a). 상담자 요인으로서 상담자의 역량은 진정성, 문화적 민감성, 관계형성능력, 대안적 개입전략 등이다(김현주, 2016b). 그러므로 언어장벽과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소년 상담과 다른 패러다임의 상담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의 연구동향이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맥락을 고려해야한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과 다르게, 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경험, 가족관계, 언어적 어려움, 문화 적응의 측면에서 이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를 다양한 층위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적인 틀을 제시한다.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국내에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심리발달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지원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불과 5년이 되지 않았으며,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야기치료를 주요 이론으로 사용하면서 미술치료를 융합한 융합치료모델을 제시한다.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를 경험한 치료사와 내담자의 참여경험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심리관련 변인들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 임상치료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경험을 통해서 치료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1.1.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 및 정책

중도입국 청소년은 현행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용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 청소년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8조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의 제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그 외에 국내로 이주하여 학업수행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가진 9-24세의 청소년으로 정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a). 둘째, 다문화가족의 자녀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의 제 1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를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b). 그러므로 이주배경 청소년은 크게 두 집단, 다문화가족의 자녀, 즉 국내에서 출생한 이민 2세대와 그 외의 다양한 이민자집단의 청소년을 아우르는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법제는 다문화가족을 특수한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주배경 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의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있다(김이선 외, 2106: 5).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의 이주배경 청소년은 다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8). 첫 번째 유형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유형은 외국 국적자와 대한민국 국적자 사이의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의 청소년 자녀를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b, 2018). 일반적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출생한 이민 2세를 말하지만, 이들을 다문화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8).

두 번째 유형은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청소년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c). 그러므로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청소년은 외국인근로자로 구성된 가족의 청소년 자녀를 말한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한국은 외국인근로자의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청소년은 사실상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유형은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2000년 이후의 국제결혼 중에서 재혼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형성된 가정의 청소년으로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와 재혼하면서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자녀를 입양의 형식으로 데려오거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에서 외국인 부 혹은 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재입국을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양계민, 조혜영, 2012).

넷째 유형은 탈북 청소년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호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이탈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d). 그러므로 탈북 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동법의 제24조의 2에서 탈북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한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8).

다섯째 유형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이후에 중국 등의 제 3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현지인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이들은 탈북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보호청소년’ 이라고 부른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8).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의 세 번째의 개념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면서 데려온 본국의 자녀, 외국인부모와 함께 동반입국한 자녀와 같은 전형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한국출생여부와 상관없이 본

국에서 성장한 후에 다양한 이주의 형태를 거쳐서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이는 현장에서 위의 분류체계에 의해서 분류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말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을 의미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각 부처별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간주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통계현황에 다소간에 차이가 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외국에서의 체류경험을 분류기준으로 본다. 여성가족부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에서 외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거나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9-24세의 자녀로 정의한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정해숙 외, 2016: 377-381)에 따르면, 2015년에 9세에서 24세 이하의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총 82,476명이며, 이 중에서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험이 있는 자녀는 12,782명(15.5%)이며,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자녀는 19,529명(23.7%)이다. 다시 말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주에 해당하는 통계는 외국에서 주로 성장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32,311명이다. 외국거주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은 연령대가 14세 이하가 66.1%를 차지하는 데 반하여,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청소년들은 연령대가 18세 이상이 68.7%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중도입국 청소년 안에서도 연령대에 따라서 성장경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8).

둘째,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재혼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전혼(前婚) 관계에서 출생하고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귀화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중도입국 자녀로 명명하고 분류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2017년 11월 기준으로 9,726명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1043).

셋째, 교육부는 공교육기관의 재학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교육부는 중

도입국 자녀를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와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제외한 경우이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정의한다(교육부, 2018). 2018년 다문화지원 계획에 따르면, 2017년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109,387명이며, 이 가운데에서 7.1%에 해당하는 7,792명이 중도입국 청소년이다(교육부, 2018).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중도입국 학생이 4,865명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상당수가 조만간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육에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2012년의 4,288명으로부터 지난 5년 동안 80%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학교 안에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통계이며, 학교 밖에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포함하지 않은 통계이다.

그러므로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 청소년 중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부모의 외국 출신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족자녀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외국 거주경험까지 포함하면 38%를 상회하는 상당수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관심은 타당한 것이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정부 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파악하다보니, 중도입국 청소년의 통계가 7천여 명에서 3만여 명까지 다르며,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상이한 기준은 정책적인 혼선과 재정적인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공교육에 진입을 준비하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중도입국 청소년 등은 교육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실태조사에 잡히지 않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장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언급하였으며(배상률, 2016: 90-93), 이러

한 현황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민나리, 2018).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도 각 주무부처별로 그 내용과 초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016년도를 기준으로 시행된 각 부처별 지원정책은 다음 <표 II-1>와 같다(김이선 외, 2016: 101-106).

<표 II-1>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책 개요

주무부처	사업	내용	현황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입국초기 사회적응 및 진로정보제공	33개 기관
여성 가족부	레인보우스쿨	한국어 및 초기적응지원 프로그램	23개소
	무지개Job잡아라	단계별 진로지원프로그램	6개소
	내-일을 잡아라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규 6개소
교육부	다문화예비학교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110개교

<표 II-1>과 같이, 첫째, 법무부의 정책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2014년 시범적으로 4개의 학교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전국 다문화예비학교에 확대하고 있다. 이 교육의 대상에는 취업을 위해서 한시적인 체류비자(H-2)를 가진 중국동포의 자녀들까지 확대하였다. 한국어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어와 중국어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이 입국과정에서 한국 학교의 입학정보를 제공하면서 공교육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법무부, 2017).

둘째,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정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산하의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레인보우스쿨(rainbow school)을 운영한다. 레인보우스쿨은 본래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적응프로그램으로 시행되었으나, 중도입국 청소년과

지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목적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공교육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인보우스쿨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총 400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생활상의 기본정보, 기초한국어교육, 사회적 관계향상 프로그램, 한국 편입학 지원, 취업연계 등의 내용을 제공하여 한국에서 원활한 초기정착을 돕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총 23개의 기관에서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교육부의 정책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진입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2012년에 ‘다문화학생교육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예비학교 및 다문화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79개의 다문화 예비학교를 지정 및 운영 중에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공교육에 진입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입국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입학정보를 안내받으며, 전담코디네이터의 도움을 통해서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② 학력인정을 받은 청소년은 6개월의 예비학교를 거친 후에 정규학교로 배정을 받는다. ③ 학생별 사례관리를 통해서 공교육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주요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책기조는 사회통합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사회통합의 대상으로서,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과 각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다. 정부의 정책은 이들이 원활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심리적인 지원서비스가 미흡하다. 청소년전문가들과 학교교사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해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 중의 하나가 심리지원 및 상담이러는데 이견이 없다(양계민 외, 2014: 405-407; 김이선 외, 2016: 119; 배상률, 2016: 84-86).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서 학교와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심리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김이선 외, 2016).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8).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카페를 201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은 2018년 2월 기준으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전국 4개소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지원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과제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특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의 여러 층위의 맥락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Beiser 외(2015)는 Bronfenbrenner(2005)의 인간 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과 Siddiqi 외(2011)의 초기아동발달의 총체적 환경평가 모델(Team-ECD)을 기반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예측변인 모델을 설계하였는데, 이 모델은 개인적 수준, 미시적 수준, 중간적 수준, 거시적 수준의 요소들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Ngo와 Schleifer(2005)도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이 부딪히는 언어적, 문화적, 심리적,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건강, 교육, 정의라는 4가지 영역에서 이들의 요구를 이들이 위치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라는 3가지 맥락에서 이해하는 상호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영역	심리적 특성	관련된 요인	선행연구
개인	자아정체성 형성의 발달과제	개인역량, 문화적응과 관련된 탄력성	Beiser 외(2015)
		자아존중감	양계민, 조혜영(2012)
		자아정체성, 국가·민족정체성	전경숙(2012), Sujoldzic 외(2003)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 정체감	배상률(2016)
가정	지지집단의 약화로 인한 소외감	가족기능, 부모양육행태, 부모정신건강	Beiser 외(2015)
		한국인 계부의 양육태도	윤향희(2016)
		가족관계, 부모의 사회연결망	정희정, 김소연(2014)
		가족갈등, 부모학대·방임, 가족지지	양계민, 조혜영(2012)
		부모-자녀관계	김이선 외(2016)
		부모-자녀갈등	Smokowski 외(2007)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방임	전경숙(2012)
학교	언어 및 학교생활적응 의 어려움	친구지지	양계민, 조혜영(2012)
		또래관계, 학교폭력경험	김이선 외(2016)
		언어적 어려움	김홍기(2015), 배상률(2016)
		집단따돌림	조원탁 외(2012)
		학업포기율	최영권(2012)
		학교문화적응	배상률(2016)
사회	문화적응, 체류신분의 스트레스	가난, 차별경험, 문화적 거리	Beiser 외(2015)
		편견, 차별	전경숙(2012)
		체류자격, 취업기회	배상률(2016)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계민, 조혜영(2012), Birman와 Chan(2008)

〈표 II-2〉와 같이, 첫째, 개인적 차원의 특성은 심리·발달적 어려움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청소년으로서 정체성 형성이라는 심리·발달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적이 다른 부모 사이에서 입양과

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한다(전경숙, 2012). 성별, 연령, 입국 후 거주기간, 학교재학여부, 한국어 수준, 가족의 지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조혜영, 2012). 배상률(2016)은 전국의 학교 안팎의 577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내적 자산, 즉, 심리적 자산을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으로 보고, 이러한 심리적 자산은 입국자발성, 한국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사회적지지(교사, 부모, 또래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둘째, 가정적 차원의 문제점은 가정의 지지기반의 약화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재혼가정의 자녀로서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을 경험한다. 이들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친모에 대한 낯설음과 새롭게 만나게 된 계부 혹은 계부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낯설음에 적응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지지기반이 약하게 되면,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가중된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 가정의 상당수는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낮아서, 부모가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임으로 이어지면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성장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전경숙, 2012). 이러한 상황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소외감을 증폭시키며 재사회화를 경험하기 어렵게 만든다(김영순 외, 2012).

셋째, 학교 차원의 문제점은 언어와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생으로서 겪는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언어적 장벽이다(김흥기, 2105). 이들이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어 실력 때문이다(배상률, 2016). 학교 안에 있다하더라도, 학업내용을 이해하거나 따라가기 힘들며, 학교의 규범과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배상률, 2016). 또한 이들은 학교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학생들도 20%에 가깝다(조원탁 외, 2012; 김흥기, 2015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업 포기율은 27%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은 점점 높아진다(최영권, 2012; 김홍기, 2015에서 재인용).

넷째,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은 문화적응, 체류신분과 취업훈련의 어려움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이주민으로서 삶의 터전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되면서,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체류자격 획득이라는 과제를 안게 된다. 그들은 두 개의 문화와 두 개의 언어에서 오는 갈등과 긴장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다(전경숙, 2012). 체류자격의 문제는 그들이 법과 제도의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만든다. 교육적 혜택과 직업훈련 및 취업의 기회에서 제외된 중도입국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로 추락할 수 있다(배상률, 2016).

위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의 주제에 유의미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는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라는 다양한 층위에서 바라볼 때 적실하게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중도입국 자녀의 심리적인 특성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심리적인 특성과 다소간에 차이가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경험과 문화적응이 이들의 독특한 심리적인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중도입국 청소년에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위의 특성에서 보다시피, 중도입국 청소년들이야말로 한국에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러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으며, 중도입국 청소년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효과가 있는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중도입국 청소년을 둘러싼 맥락을 고려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를 다룬다. 둘째, 본 연구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임상적으로 적용할 때,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준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수월하게 활용하고 보급될 수 있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지향한다.



2. 미술-이야기융합치료

2.1. 이야기치료

2.1.1. 개념 및 배경

1) 개념

본 연구에서 말하는 ‘치료(therapy)’는 의학에서 말하는 치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의학적인 치료(treatment)는 전통적으로 수술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화학치료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치료는 의학적인 치료와 경쟁적인 관계이다(이영의, 2010). 본 연구의 치료는 인문학에서 사용하는 치료의 개념을 사용한다(엄찬호 외, 2017: 17-21). 첫째, 치료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문학치료 등의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요법이다. 둘째, 치료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과 같은 상담이다. 셋째, 치료는 건강한 마음을 육성하고 건전한 인성발달을 위한 교육이다. 넷째, 발달적,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코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치료는 인문학적 기법과 자료를 활용한 요법, 상담, 교육, 코칭 등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고 더 나아가서 예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야기치료는 좁은 의미에서 1980년대 호주의 마이클 화이트와 뉴질랜드의 데이빗 엡스틴이 개발하고 가족 상담을 중심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기법으로서, 개인의 문제적 이야기를 대안적인 이야기로 바꿈으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기법이다(고미영, 2004: 99; 최현미, 2013: 35-36).

하지만 역사적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치료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발전한 치료기법으로서 인문치료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이야기 혹은 서사라고 불리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한다. 문학·역사·철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언

어적 표현으로 인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인문학은 스토리텔링 연구라고 할 수 있다(한혜원, 2010: 43). 인문학을 치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러티브를 치료의 주요 내용으로, 이야기하기를 치료의 주요 행위로 삼는다(엄찬호 외, 2017: 90-91). 그러므로 이야기치료는 넓은 의미에서 인문치료라고 할 수 있으며, 인문학자들은 이러한 치료를 내러티브 활용 인문치료라고 말한다(엄찬호 외, 2017: 90).

2) 철학적 배경

(1) 폴 리콥르

폴 리콥르(Paul Ricoeur)는 내러티브를 치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최현미, 2013: 35). 리콥르는 에드문드 후설의 현상학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소개한 현상학적 해석학자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철학자이다. 그는 해석학의 지평을 텍스트를 넘어서 현실까지 넓혀왔다. 그의 저서 “시간과 이야기(Temps et Récit)”는 내러티브의 치유적 활용에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는데, 다음 <표 II-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폴 리콥르, 1999; 이민용, 2010; 변경원·최승은, 2015).

<표 II-3> 내러티브 정체성이론의 치료적 함의

개념	치료적 함의
내러티브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러티브 정체성은 자기 해석의 틀을 제공함. • 이야기를 통해 자기인식과 역동적 변화가 가능함.
뮌토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줄거리의 구성은 치료의 시작임.
미메시스	치유의 3 단계로서 아래의 단계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상화: 문제적 이야기의 인식 • 형상화: 대안적 이야기의 발견 • 재형상화: 해석학적 수용
역사와 허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적 이야기와 대안적 이야기가 혼재됨. •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서사적 능력이 필요함.

<표 II-3>과 같이, 리콥르는 4개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소개한다. 첫째, 리콥르는 내러티브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¹⁾. 이 개념은 인간은 내러티브를 통해서 현실을 해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시간적 존재이며 시간 속에서 경험한 세계는 불협화음의 세계이지만, 이야기는 그러한 세계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힘을 가진다. 그러므로 내러티브 정체성은 이야기를 통하여 변화할 가능성을 가진 역동적인 정체성이다. 내러티브 정체성의 치유적 함의는 내러티브가 자기 해석의 틀을 제공하므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러티브 정체성은 역동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며, 치료는 자기 해석의 틀인 이야기가 변화할 때 일어난다.

둘째, 사건의 체계를 의미하는 뮈토스(mythos)이다. 리콥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나오는 이 단어를 차용하였는데, 이야기의 줄거리, 플롯, 줄거리 구성이라는 뜻이다. 뮈토스는 이야기에 질서와 인과관계를 부여하면서 파편적인 사건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이야기로 엮어 낸다. 뮈토스의 치유적 함의는 이야기는 사건들의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사건들의 인과적 관계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야 정상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이민용, 2010: 260-261). 치유의 시작은 뮈토스를 통해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셋째, 재현을 의미하는 미메시스(mimesis)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등장하는 단어로서 행동의 모방 혹은 재현을 의미한다. 미메시스는 이야기 구성 혹은 서사 행위를 통해서 자아가 형성되거나 이해가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배영의, 김성범, 2017: 67, 변경원·최승은, 2015: 50). 미메시스는 3단계로 발전한다. 첫 번째 단계인 미메시스 I은 전형상

1) 내러티브 정체성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동일성으로서의 정체성(idem)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ipse)이다. 내러티브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이다.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한편으로는 자기 항구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한 변화는 이야기를 매개로 하는 서사적 과정에서 형성된다(변경원·최승은, 2015: 49)

화로써, 텍스트에 가져오는 전(前)이해, 이야기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의미한다(이민용, 2010: 261). 어떤 사람의 행동 속에 이미 제시된 의미를 밝힘으로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단계이다(변경원·최승은, 2015: 51). 두 번째 단계인 미메시스 II은 형상화로서, 뫼토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야기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에 들어 있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단계이다(변경원·최승은, 2015: 52). 세 번째 단계인 미메시스 III은 재형상화로서,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해석하며 적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주체적으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단계이다(변경원·최승은, 2015: 53; 이민용, 2010: 262). 미메시스의 치유적인 함의는 이야기를 활용한 치유의 세 단계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변경원과 최승은(2015: 52-53)은 이 단계를 이해-설명-적용의 세 단계이자, 미메시스(재현)-뫼토스(구성)-카타르시스(해소)의 세 단계로 소개한다. 이민용(2010: 265-267)은 첫 단계에서 문제적 내러티브 정체성을 인식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대안적인 내러티브 정체성을 제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현실 세계를 보는 해석적인 틀로 수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넷째, 이야기의 두 가지 유형으로서 역사적 이야기와 허구적 이야기이다. 역사와 허구는 뫼토스를 통해서 의미를 재구성한다. 두 이야기는 씨줄과 날줄이 상호 직조되면서 직물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현실을 만들어 간다. 역사와 허구가 이해되려면 서사적 능력이 필요하다. 역사와 허구의 치유적 함의는 인간의 삶 속에 문제적·부정적 이야기와 대안적인·긍정적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 둘의 구분을 위해서 서사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

이야기 치료를 창안한 마이클 화이트와 데이빗 엡스턴은 그들의 이야기치료의 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상들을 언급하는데, 주요 이론가들은 미셸 푸코(Michael Foucault), 제롬 부르너(Jerome Bruner),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 바버라 마이어호프(Barbara Myerhoff) 등이다(White & Epston, 1990; White, 2007). 이들은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속한 사상가들이다(고미영, 2004; Wachong, 2009).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치료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고미영, 2004). 첫째, 인간은 현실을 사회적 구성으로 인식한다. 현실은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지며, 이야기를 통해 확장된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견해는 언어 행위의 결과이며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삭제하기도 한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은 사람들은 의사소통의 행위를 통하여 현실을 함께 조성할 수 있으며 진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적인 현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현실이다. 베이트슨(1980)에 따르면, 인간의 오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현실은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경험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경험은 해석이 필요한데, 해석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베이트슨은 이것을 인식의 지도이라고 불렀다. 화이트(1989)는 경험의 해석은 이러한 인식의 지도 안에 있는 일반화, 개념화, 처방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으로 부터 치료적인 함의는 한 개인의 이야기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 현실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실재 그대로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이다. 그러므로 치료를 위해서 이야기의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절대적인 진리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 거대한 담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종류의 담론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주장의 치료적인 함의는 이야기 치료에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대신할 만한 절대적인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치료사 혹은 상담사의 이야기가 내담자의 이야기 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치료사는 알고자 하는 자세 혹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자세를 고수해야 한다(Anderson, 2005: 497-504). 치료사-내담자의 관계가 권력관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치료사의 이론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치료사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으며, 내담자의 자유와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야기는 인생의 각본과 같다. 이 각본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대인관계를 규정한다. 이 각본은 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문화적 맥락, 즉, 언어, 사회, 관습, 신념들과 연관이 되어있으며,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과 같이 쓰는 각본이다. 이러한 주장의 치료적인 함의는 내담자의 문제는 그들이 가진 문제적 이야기의 각본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각본의 저자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담자가 공동저자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교체하거나 다시 쓰는 것이 이야기 치료의 핵심이다. 내담자는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자이다.

2.1.2. 치료의 원리와 단계

먼저 내러티브가 가진 치료적인 속성을 전반적으로 개괄한 후에, 화이트와 엡스틴의 이야기치료의 치료 원리를 살펴보려고 한다.

1) 내러티브의 치료적 속성

내러티브를 활용한 인문치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내러티브의 치료적인 속성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엄찬호 외, 2017: 99-105). 첫 번째 속성은 동일화이다. 내담자는 치료사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와 유사함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동일시 혹은 동일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속의 인물, 사건, 시간적·공간적 배경과 동일시 될 수 있다. 내담자는 치료사와 자신을 동일화 할 수 있으며, 치료집단에서 다른 집단원들과 동일시 할 수 있다. 동일화를 통해서 내담자는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고 위로와 위안을 느끼게 된다. 동일화는 다른 치료원리의 선행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다.

두 번째 속성은 카타르시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처음

으로 언급하였으며, 치료 원리이면서 치료 효과 그 자체이다. 비극적 이야기나 희극적인 이야기를 접하고 공감하면서 내담자가 울고 웃으면, 내면의 감정이 해소되고 정화된다. 동일화와 연계되어 감정이 표출되고 정화된다. 카타르시스는 독자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인지적인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다.

세 번째 속성은 일반화 혹은 상대화이다. 일반화는 내담자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라는 것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일반화는 내담자가 겪는 문제를 내담자 자신과 떨어뜨려서 상대적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이야기 치료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문제의 외재화라고 부른다. 일반화와 상대화는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를 내담자 자신에게서 분리시키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치료의 자원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네 번째 속성은 객관화이다. 이는 동일화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이며, 일반화와 상대화에도 관련이 있다. 객관화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면서, 통찰을 얻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도움을 준다. 객관화의 대표적인 방법은 인칭의 변화이다. 내담자 자신의 이야기 속의 1인칭 시점을 2인칭 혹은 3인칭 시점으로 변화를 주면, 내담자는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보는 것이 가능해 지고 문제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해 진다.

다섯째 속성은 대리학습 혹은 간접경험이다. 시간적·공간적으로 경험의 한계를 지닌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과 같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은 이야기를 통해서 대리학습을 하고 결정에 이를 수 있다.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있는 내담자들은 간접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 혹은 완화할 수 있다. 간접경험은 동일화와 일반화와 관련이 있다.

여섯 번째 속성은 대안제시 혹은 모델링이다. 이야기 서술자로서 치료사나 내담자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야기치료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독특한 결과를 조명한다 혹은 대안적 이야기를 다시 쓴다라고 말한다. 대안적인 이야기가 내담자 자신의 이야기에서 발견되지 못할 경우에, 치료사는 다른 이야기들을 창의적으로 변형하여 대안적인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다.

2) 이야기치료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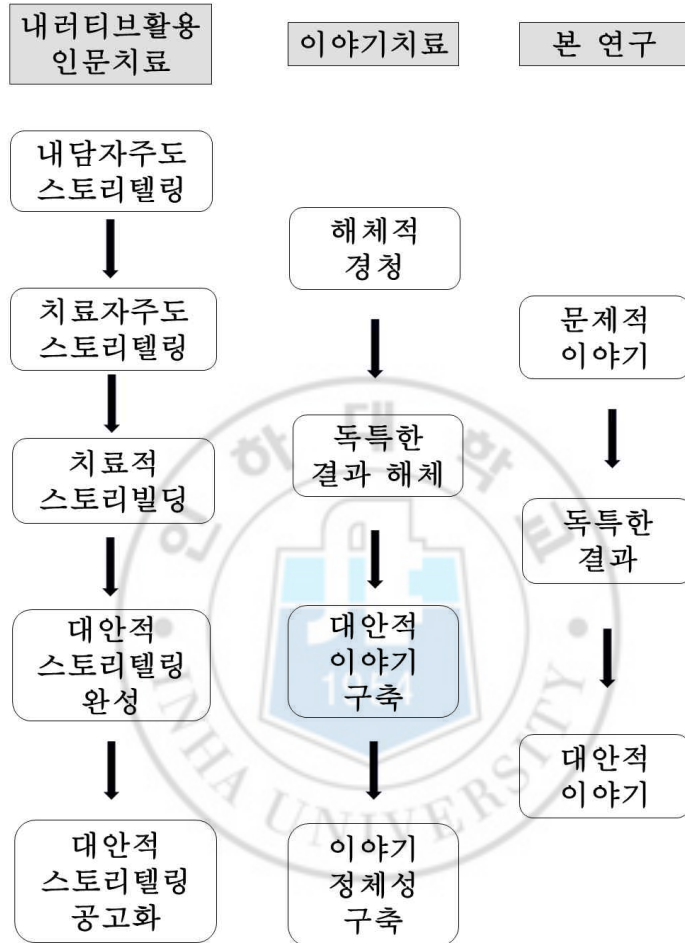
화이트와 엡스톤이 제시하는 이야기치료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 치료의 기본적인 전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이다” 라는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White & Epston, 1990: 7; 최현미, 2103: 40). 그러므로 이야기치료의 기본 원리는 내담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에게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바꾸는 것이다.

둘째, 내담자의 문제적 이야기를 찾는다. 문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문제적 이야기 혹은 문제에 흠뻑 젖은 이야기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내담자를 지배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 간다. 이야기 치료는 먼저 문제가 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내담자를 구분한다. 이야기치료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야기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다.

셋째, 문제적 이야기를 대안적 이야기로 바꾼다. 이야기치료의 최종적인 관심은 문제적 이야기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이야기에 있다. 이야기치료는 대안적인 이야기를 내담자의 경험 속에서 발견하고 끄집어내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야기치료의 최종적인 목표는 문제적 이야기를 대안적인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치료적 원리가 구현되는 단계별 과정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 치료의 단계

이야기치료(White & Epston, 1990)와 내러티브 활용 인문치료(엄찬호 외, 2017: 90-127)에서 사용하는 각 치료기법의 단계를 비교하고 본 연구를 위한 개념적인 치료단계를 도출하면, 다음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이야기를 활용한 심리치료의 단계

(1) 내러티브 활용 인문치료

내러티브 활용 인문치료의 과정은 다음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엄찬호 외, 2017: 113-115). 첫째 단계는 내담자의 자기스토리텔링이다.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처한 문제적인 상황과 그 상황에 있는 자신의 문제적 이야기를 말하는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치료자 주도의 상호적 스토리텔링이다. 이 단계를 리-스토리텔링(re-storytelling)이라고 말한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스토리텔링을 들으면서 문제적인 이야기를 대체할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하고, 내담자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 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치료적 속성은 동일화, 카타르시스, 일반화, 객관화이다.

셋째 단계는 치료적 스토리의 구성이다. 내러티브의 서사요소인 내담자의 스토리를 치유적으로 변용하거나, 내담자 안에서 문제에 물들지 않은 대안적인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내러티브의 담화요소인 플롯, 인칭·관점, 어조 등을 변용시켜서 치유의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적용되는 치료적 속성은 일반화, 객관화, 간접경험, 모델링 등이다.

넷째 단계는 대안적 스토리텔링의 완성이다. 이 단계에서 대안적인 이야기가 완성된다. 이러한 대안적인 이야기는 자기 최면, 긍정적인 독백, 증인 의식, 체계적 둔감법 등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심어진다. 이 단계에서 동일화, 간접학습 등의 치료적 속성을 적용한다.

다섯째 단계는 대안적인 스토리텔링의 공고화이다. 대안적인 스토리텔링이 지속가능하도록 내담자의 내면에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단계이다. 내담자의 가족과 지인을 증인으로 활용하여 선언하기 및 편지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이상의 다섯 단계는 각 단계가 뚜렷한 구분이 없을 수 있고 중첩되어 진행될 수 있다.

(2) 이야기치료

화이트와 엡스톤의 이야기 치료의 기법은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White & Epston, 1990; 최현미, 2013: 41). 첫째 단계는 해체적 경청이다. 화이트와 엡스톤(1990)은 이 단계를 내담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실과 관습을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내담자의 이야기 안에 있는 모순, 문제를 둘러싼 맥락, 내담자가 사용하는 상징적이고

모호하고 비약적인 표현, 표현되지 않았지만 짐작가능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한다. 이 단계에서 문제와 내담자를 구분하는 문제의 외재화가 일어난다. 문제를 기존의 사고에서 해체시키고 내담자 안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만든다. 외재화를 통해서 내담자는 문제와 거리를 가지게 되고 문제를 다른 실체로 만나면서 문제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단계는 독특한 결과를 해체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이야기 중에서 독특한 결과에 주목을 하는 것이다. 독특한 결과란 지배적인 이야기 밖에 존재하고 잊혀진 삶의 경험 중에서 내담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험들이다. 이것은 내담자가 했던 행동, 내담자가 지향하는 가치나 의도, 내담자가 원하는 긍정적인 모습일 수 있다(정문자 외, 2007). 독특한 결과에서 문제적인 이야기를 해체시키는 대안적인 이야기의 재료들을 찾을 수 있다.

셋째 단계는 대안적인 이야기 구축이다. 이 과정에서 재저작 대화와 회원재구성 대화가 있다. 재저작 대화는 이야기 치료의 기법으로서, 독특한 결과로부터 대안적인 이야기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재저작 대화는 행위와 정체성의 두 가지 관점을 오고 가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넘나들며 이루어진다. 회원 재구성 대화는 내담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본 내담자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그렇게 발견된 사람은 새로운 이야기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단계는 대안적 이야기 정체성 구축이다. 이 단계에서 인정의식 혹은 정의예식은 내담자의 정체성이 회복되거나 새롭게 정의된 것을 외부의 증인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내담자나 내담자의 가족들 혹은 치료사 외의 외부 증인들이다. 이들은 대안적인 이야기의 목격자이며, 그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해주거나 인증하는 증인으로 기여한다. 인정의식은 이야기 진술과 재진술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

가 진술한 이야기를 증인들이 다시 말해 줌으로써 그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그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는데 도움을 준다.

이상과 같이, 내러티브 활용 인문치료와 이야기치료의 각 단계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내러티브와 관련한 심리치료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원리와 절차를 기반으로 세 단계로 구성된 개념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적이야기이다. 이 단계에서 내담자의 정체성을 지배하는 문제적인 이야기를 외재화한다.

두 번째 단계는 독특한 결과이다. 이 단계에서 내담자의 인생에서 문제적인 이야기를 대항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인물 등을 탐색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세 번째 단계는 대안적 이야기이다. 이 단계에서 독특한 결과로부터 얻은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적 이야기를 대안적인 이야기로 다시 쓴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의 인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회원들을 재구성하고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새로운 이야기 정체성을 선언한다. 증인들은 본 연구에서 치료사와 집단원들이 될 것이다. 증인들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맞장구쳐준다.

본 연구는 이상의 3단계에 따라서 순서대로 치료가 진행되도록 계획하지만, 실제 현장과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변동되거나 각 단계의 내용이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

2.1.3. 선행연구 분석

내러티브는 20세기 후반부터 사회과학의 전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학자들은 이를 ‘이야기적 전환’ (narrative turn)이라고 부른다. 특별히 심리치료분야에서 이야기의 활용은 ‘제 3의 물결’이라 불릴 만큼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Angus & McLeod, 2003: ix; O’ Hanlon, 1994: 22; 오영섭 · 김영순 · 왕금미, 2018: 42에서 재인용). 이야기치료는

1980년대에 화이트와 엡스톤에 의해서 가족상담기법으로 체계화된 이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야기치료는 국내에 1990년대 후반부터 소개되었으며, 관련연구는 200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이미련, 2014: 168). 본 연구는 국내와 해외에서 발표된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이야기치료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과 연구방향을 얻고자 한다.

1) 국내연구 동향

이미련(2014)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 42편을 대상으로 국내의 이야기치료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야기치료는 주로 아동 및 청소년(62.9%)에게 적용되었으며,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 학교생활적응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돕는데 활용되었다. 이야기치료 프로그램을 임상적으로 적용한 23편의 연구 중에서 이야기치료는 대부분 단독으로 적용되었으며(65%), 이야기치료에 예술치료를 비롯한 다른 치료기법과 결합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35%). 이야기치료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론은 관련 변수 간의 관계와 사전·사후 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유사실험연구(45%), 조사연구(29%), 프로그램개발연구(12%)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청소년의 이야기치료와 관련된 국내 주요 박사학위 논문들이다. 이순옥(2006)은 부부갈등 가정의 아동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이야기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 행동,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사전-사후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독서치료가 이야기치료에 비하여 효과가 높았다. 이야기치료는 은유나 추상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반면에, 독서치료는 책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독서치료가 아동에게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2008)은 화이트와 엡스톤의 이야기치료이론을 바탕으로 학교부적응학생들을 위한 이야기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을 대상으로 임상적용하였다. 그 결과로서 이야기치료가 이들의 학교생활적응, 희망,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최현미(2013)은 화이트와 엠스틴의 이야기치료를 기반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이야기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적용하였다. 그 결과 이야기치료가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향상, 우울수준의 감소, 자살생각의 감소에 기여하였다.

최지원(2013)은 이야기치료적인 개입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서 아동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체성 이야기를 풍성하게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야기 치료에 놀이, 이야기 만들기, 은유 및 상징 등을 통합하였을 때 치료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다미(2014)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이야기치료와 해결중심치료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내담자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서 이야기치료와 해결중심치료를 내담자들의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의 향상, 또래관계개선, 학교생활적응, 학습동기부여, 진로목표 설정,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의 감소, 부모관계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2) 해외연구 동향

오영섭·김영순·왕금미(2018)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에서 발표된 박사학위논문 83편을 대상으로 해외의 이야기치료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해외에서 박사학위논문은 1995년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이야기치료는 주로 성인초기(18-40세)와 중기(40-65세)에 해당하는 성인들(59%)과 청소년들(17%)에게 적용되었으며, 우울, 트라우마를 비롯한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돕는데 활용되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이야기치료는 예술치료를 비롯한 이십 여개의 다양한 치료기법과 통합하여 사용되었다(65%). 이야기치료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론은 국내

와 달리 질적연구(33%), 문헌연구(21%), 양적연구(20%)로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이야기치료가 내담자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맥락에서 적용하였을 때 임상효과가 입증된 기법으로서, 향후 국내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융합적인 치료로서 다문화상담 및 심리치료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청소년의 이야기치료와 관련된 해외 주요 박사학위 논문들이다. Wysocki(2014)는 외상예술이야기치료(TANT)를 다양한 인종적 배경과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적용하였으며, 그 효과를 외상-초점 인지행동치료(TF-CBT)를 적용한 아동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서 이야기치료적인 기법은 아동의 우울과 분노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Alford(2014)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외모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체계이론과 이야기치료를 통합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Steinbrink(2013)는 트라우마에 노출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도시의 아동을 위하여 이야기치료와 다양한 치료기법을 융합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리치료워크북을 개발하였다.

Kaptain(2004)은 약물남용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이야기치료를 적용하였으며, 양적 연구와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치료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Hannen(2009)은 칼로 자신을 자해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야기치료를 적용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치료가 이러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녕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치료기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이야기치료의 국내·외 선행연구가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치료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적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치료기법과의 융합을 시도할 수 있다. 앞서 말한 해외의 연구는 이십 여개의 다른 치료기법과 융합을 시도한 반면에, 국내의 연구는 예닐곱의 치료기법과 융합이 시도하였다. 또한 해외의 연구에서 다

루는 심리적 문제의 유형은 훨씬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심리치료를 넘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근거로 이야기치료이론이 활용된다(오영섭·김영순·왕금미, 2018: 56, 61-63). 이런 점에서 국내의 이야기치료 연구는 임상대상과 치료주제가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융합치료 차원에서 이야기치료를 다른 기법과 융합하여 지속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외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야기치료를 적용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주제는 최근에서야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야기치료에 대한 이론연구, 치료프로그램개발, 임상적용을 통해서 연구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통해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용된 적이 없는 이야기치료를 주요 이론으로 활용하여 융합치료적인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2. 미술-이야기융합치료

2.2.1. 융합치료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합한 심리치료가 어느 한 가지의 심리치료기법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본 연구가 고려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의 기본 조건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독특한 맥락으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특성과 언어적 한계를 전제하면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학교, 이주민센터, 상담소 등의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치료사가 변용하기에 용이하며,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기존의 심리치료기법들을 연결하거나 다양한 학문과 기법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고 소통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가 해소되고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통합적인 혹은 융합적인 맥락에서 이야기치료와 미술치료를 접근하고자 한다.

심리치료기법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기술적 절충, 공통요인 통합, 이론적 통합, 흡수 통합의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Stricker & Jerry, 2008: 390-423).

첫째, 기술적 절충(technical eclectic)은 네 가지 융합의 형태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접근이다. 이는 특정한 개념과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내담자의 임상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기법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통합한다.

둘째, 공통요인 접근(common factors approaches to integration)은 어떤 심리치료기법이 다른 치료기법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한다. 이 접근은 먼저 내담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통요인들을 도출한다.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증진시키는 기법들을 확인하고 통합한다.

셋째, 이론적 통합(theoretical integration)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치료기법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통합이다. 이는 각 전통의 심리치료학과들로부터 온 개념들을 통합하고 정신병리와 심리치료적 효과를 통합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확장된 개념들은 내담자의 문제를 이전에는 양립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설명한다.

넷째, 흡수 통합(assimilative integration)은 어느 치료기법이 주요치료기법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치료사는 어느 한 가지의 중심적인 이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다른 치료기법을 중심이론에 흡수시킨다. 그러면 흡수된 치료기법들의 의미, 효과, 활용이 강력한 방식으로 개선된다.

본 연구는 이야기치료를 주된 이론적인 근거로 사용하면서, 미술치료 활동을 매개체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시 말해서, 흡수통합으로서

미술치료가 이야기치료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두 치료기법을 융합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는 이론적 통합의 방식으로 두 치료를 융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의 이론적 통합은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으로부터 오는 각 치료의 장점을 살리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융합치료는 형식적으로는 흡수통합의 방식을 취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론적 통합의 효과를 목표로 한다.

2.2.2. 이야기치료에서 미술치료활용

1)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한 자기이해, 자기표현, 자기수용, 승화, 통찰을 통해서 내담자의 갈등을 조절하고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 및 완화함으로써 내면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이다(왕금미, 2017). 미술치료(art therapy)라는 용어는 1961년에 Ulman이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교육, 재활, 여가 등의 현대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미술치료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미술이 치료를 위한 매개체로 사용된다는 입장(art in therapy)이고, 둘째는 미술활동 그 자체가 치료적 효과가 내재되어 있다는 입장(art as therapy)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입장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관점(art in and as therapy)으로 미술치료를 활용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미술치료 중심의 심리치료로 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를 융합한다는 점에서 미술치료를 매개체로 활용하는 관점에 가깝다.

미술치료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집단에서 활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왕금미, 2017). 첫째, 모든 사람이 각자의 수준에서 어려움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집단에 풍부한 이야기 소재를 제공한다. 둘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셋째, 창조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다양하고 무한하게 표현할 수 있다. 넷째, 무의식과 환상을 다루는데 유용하다. 다섯째, 미술활동을 통해 얻은 작품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영속적인 유형물로서 시간을 두고 탐색할 수 있다. 여섯째, 흥미가 유발되며 집단원간의 관심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는 서로에게 없는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의 치료기법이 융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유숙 외(2013)은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를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첫째, 미술치료는 구조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인간 내면의 심층구조에 초점을 둔다. 내담자의 현실세계와 다른 이야기, 즉 은유를 치료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 자체를 새롭게 쓰기 보다는 그림에서 표출된 이야기의 상징과 의미를 중요하게 본다.

둘째, 이야기치료는 미술치료와 대조적으로 탈구조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면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실재에 관심을 둔다. 이야기치료에서 미술의 역할은 문제를 외재화하는 것이다. 미술치료에서 내담자의 그림은 내담자의 무의식적 세계를 드러내지만, 이야기치료에서 활용되는 내담자의 그림은 무의식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치료에서 미술은 직유를 통해서 문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이야기치료에서 활용되는 미술활동은 내담자와 치료사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며, 그림의 상징성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데 비중이 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언어적인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인간은 은유와 환유라는 두 가지 기능의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학자인 로만 야콥슨은 인간의 언어활동을 은유적 표현과 환유적 표현으로 구분한다(박혜영, 1987; 구자황, 2015). 은유는 유사성에 근거한 비유법이라면, 환유는 인접성에 근거한 비유법이다. 전자가 선택과 대치를 통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후자는 결합과 문맥을 통해서 담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전자는 시(詩)라고 하면, 후자는 산문(散文)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프로이

드의 동일화와 상징화라면, 후자는 프로이드의 이동과 압축에 해당한다. 이러한 은유와 환유는 서로 다른 인지적 과정이긴 하지만,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면서 표현된다(이성재, 2008; 정희자, 2003).

이런 점에서 인간의 심리는 크게 은유, 직유, 환유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은유, 직유, 환유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경계 짓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또한 환유는 직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비유법이다(박혜영, 1987: 109). 그러므로 본 연구는 편의상 연구의 개념적인 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심리가 두 가지 기능, 즉 은유와 환유로 표현된다고 본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은유는 주로 미술치료를 통해서, 환유는 주로 이야기치료를 통해서 다루어 질 수 있다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인간에게 언어는 중요하지만 마음을 모두 표현하기에는 불완전하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상징과 은유이다(Smith & Nylund, 1997). 이런 점에서 특히 언어적 능력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 혹은 이주민에게 미술치료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야기치료는 상징과 은유에 머무르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환유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자신의 경험을 가져오고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까지 가야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를 융합한 치료는 미술치료 혹은 이야기치료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보다 더 큰 치료적인 효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치료기법의 장점을 활용한 이야기치료를 이야기치료의 진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김유숙 외, 2013).

미술치료를 융합한 이야기치료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기대할 수 있다(김유숙 외, 2013). 첫째, 이야기치료의 장점이 극대화된다. 그림을 통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외재화하거나 문제적 이야기를 해체할 경우에, 문제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대상의 하나로 바라보게 된다.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여 그 사이에 공간을 제공하므로 긴장이 완화되고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편해진다. 미술치료를 융합한 이야기치료는 치료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치료를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 준다(Cattanach, 2006).

둘째, 미술치료활동을 통한 은유적 전달은 빈약한 이야기에서 풍부한 이야기로 변화시킨다. 이야기치료의 최종목표는 내담자가 가진 문제적 이야기가 대안적 이야기로 바뀌는 것이다. 미술치료활동은 내담자의 과거의 경험 중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자원을 발굴하도록 돕는다. 이야기치료는 이러한 긍정적인 자원을 빛나는 순간 혹은 독특한 결과라고 부르며, 미술치료활동은 이러한 독특한 결과를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이야기치료에서 미술치료를 활용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선행연구는 2가지의 방식, 즉 이야기법 미술치료와 난화 상호이야기법 미술치료로 진행되었다(곽승주, 2013, 26-27). 먼저 이야기법 미술치료는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치료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결합하였다. 이지연(2002), 황선영(2011)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지연(2002)은 집단미술치료에 이야기를 활용한 기법을 기반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였으며, 정신분열증 혹은 척수장애를 가진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로서 미술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심상을 표출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인지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 효과적이었다. 이와 같은 정서표출과 인지적 재구성을 분리하고 연합하는 기법은 향후에 다양한 내담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황선영(2011)은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향상을 위해서 이야기만들기 중심 미술치료를 연구하였다. 중학생 내담자 1인을 대상으로 2년 동안 62 회기에 걸친 장기간의 심리치료를 통해서 얻은 연구결과로서, 치료적인 요인들을 내담자, 치료사, 프로그램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다. 이러

한 치료적인 요인들로 인하여서 내담자의 사회적 기술, 즉 부모-자녀관계, 자아인식, 자기조절능력, 주장성이 향상되었다.

다음으로 난화상호이야기법 미술치료는 난화(낙서)라는 매우 단순한 미술작업에서 이야기를 도출하는 기법으로서, 국내에서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가진 전 연령대의 내담자에게 적용되었다.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은 1995년 이후부터 19편이 발표되었다.²⁾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적용된 대표적인 연구로서 장선경(2009)은 난화상호이야기법을 활용한 60회기의 미술치료프로그램을 단순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 적용하였을 때 표현언어능력과 수용언어능력 등의 언어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야기치료에 미술치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이야기치료의 창시자인 화이트와 엡스톤은 이야기치료에서 그림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Epston, White, Murray, 1992: 111-112). 특히 Carlson(1997)은 이야기치료에서 미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기초를 놓았다. 그는 이야기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인 문제의 외재화와 대안적인 이야기의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미술치료가 유사한 기법을 제공한다고 보았으며, 치료사와 내담자의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치료와 미술치료는 모두 내담자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사와 함께 치료를 할 수 있는 공동의 참여자로 보았다. 이와 같이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의 이론적인 유사성을 근거로 이야기치료에서 미술을 활용할 때, 치료적인 가능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보았다(Carlson, 1997: 275). Carlson 이후의 연구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인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치료에 미술치료를 접목하였다³⁾.

2) 국내 학위논문들은 박사 1편, 석사 18편으로서 다음과 같다: ①공마리아, 1995. ②김영아, 2001. ③이준우, 2001. ④이은경, 2002. ⑤김미정, 2002. ⑥두영란, 2003. ⑦이묘주, 2004. ⑧권은영, 2004. ⑨김지연, 2004. ⑩김위향, 2004. ⑪정미영, 2005. ⑫임선아, 2006. ⑬장선경, 2009(박사학위논문). ⑭임세영, 2011. ⑮전소은, 2011. ⑯박은주, 2012. ⑰곽승주, 2013. ⑱정소연, 2016. ⑲정진우, 2018

3) 해외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①Hanney & Kozłowska, 2002. ②Keeling & Nielson, 2005. ③Keeling & Bermudez, 2006. ④Lev-Wiesel & Liraz, 2007. ⑤Cobb & Negash, 2010. ⑥Li, 2012.

특히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Hanney와 Kozłowska(2002)는 트라우마를 가진 아동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북(storybook)의 제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토리북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그림의 형태로 구성하며, 스토리북의 제작은 아동의 발달자산과 즐거움의 장점을 취하면서, 불안을 감소시키고, 역량과 숙달능력, 희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ev-Wiesel과 Liraz(2007)은 약물중독자인 아버지를 둔 아동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미술을 그려보도록 하였을 때, 이야기만을 하도록 한 아동들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가 도출되었으며, 치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더 적은 저항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야기치료와 미술치료를 융합한 치료 기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융합의 방식에 있어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야기치료를 핵심적인 치료기법으로 사용하면서 미술활동을 접목시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미술치료를 중심적인 기법으로 사용하며 이야기치료를 부수적으로 접목한 형식으로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를 융합함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치료를 사용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치료 연구가 미흡하고 융합치료연구가 미진한 국내의 상황에서 융합치료기법을 개척하는 의의가 있다.

⑦Stock et. al., 2012. ⑧Epp, 2013. ⑨Ricks et al., 2014. ⑩Schweitzer et. al., 2014. ⑪Hutyrová, 2016. ⑫Conner, 2017. ⑬Cole et al., 2018.

3.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3.1.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에 대한 선행연구를 탐색할 때, 국내와 해외의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2013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학위논문 및 소논문을 포함하여 2017년까지 20편이 발표되었다. 국내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연구는 모두 비언어적인 예술치료중심이다. 곽승주(2013)가 이야기만들기 미술치료를 중도입국 청소년에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이야기구조와 이야기구성능력을 증진하는 일종의 언어치료라고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이야기치료를 적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국내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① 가장 많은 연구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집중되었다(박하나, 손현동, 2017; 민향식, 2017; 김지인, 2017; 황현정, 2016). ②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성 개발에 관심을 가졌다. 왕금미(2017)와 김연진(2013)은 모두 심리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 타인과의 교류,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이 있었다. ③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다루었다(황현정, 2016). ④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김정옥, 2015). ⑤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표현능력 개발에 주목하였다(왕금미, 2017; 곽승주, 2013).

국내의 연구와 달리 해외의 선행연구의 특징은 보다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야기치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연구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인 문제

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주의력결핍, 불안장애, 우울, 자살행동, 트라우마 등의 구체적인 행동장애 및 심리적인 문제를 30여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치료기법으로 접근하였다. 해외에서 활용된 치료기법은 대부분 인지행동치료(CBT), 증거기반치료(EBT)에 근거한 것이다(Huey & Jones, 2013: 427-442).

둘째, 국내의 연구와 달리 이야기치료를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에 활용하였다. Stock 외(2012)와 Epp(2013)는 각각 호주 원주민의 부모-자녀, 캐나다 이민자 부모-자녀에게 이야기와 미술을 적용하였을 때, 부모-자녀의 관계증진에 도움을 주었다.

Schweitzer(2014)는 리베리아 출신 난민 청소년들에게 이야기치료기반 표현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며, 다섯 가지의 치료적인 요인으로서 대안적 이야기의 탐색, 집단 응집성의 강화, 교정적인 심리적 경험의 제공, 외부증인의 경험, 희망의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종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Huey와 Jones에 따르면, 위에서 기술된 심리치료기법들이 소수인종의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인종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치료가 모든 인종에서 동일하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Huey & Jones, 2013: 434-436).

뿐만 아니라 Huey와 Jones는 문화적으로 다듬어진 치료 혹은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치료는 소수인종의 청소년에게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일반적인 심리치료와 비교할 때, 현재까지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지, 혹은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치료 자체가 실제로 치료효과를 강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Huey & Jones, 2013: 434-441).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가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 연구는 다양한 융합치료설계 및 임상결과를 통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Huey와 Jones는 다음과 같이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Huey & Jones, 2013: 441-442).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① 임상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② 인종을 포함한 문화적 차이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하며, ③ 문화적으로 다듬어진 치료를 지속적으로 묘사하고 ④ 문화적으로 다듬어진 치료의 효과를 엄격히 평가하고 ⑤ 연구문제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확보하고, ⑥ 결과측정검사가 문화적으로 적절한지 확인하고 ⑦ 치료 매뉴얼에 다양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소개하고 ⑧ 치료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사례 내 집단차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술치료 중심으로 진행된 국내의 연구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술활동과 이야기치료를 융합한 치료를 임상적으로 시도한다.

둘째,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되 현장성을 가진 연구가 되어야 한다. Huey와 Jones는 선행연구들이 대학기관과 병원의 환경에서 수행된 임상이므로 현실세계의 임상환경과 다를 수 있으며, 그 결과도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이런 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생활세계에서 더 많은 임상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Huey & Jones, 2013: 442).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도입국 고등학생이 실제로 생활하는 교실에서 임상을 진행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실제로는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개인적인 필요 때문이라기보다는 방과 후 수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필요이상으로 인위적인 임상환경과 치료사의 작위적인 개입을 지양한다. 이러한 현장성을 고려한 본 연구는 실제에 가까운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임상환경에 맞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후에 적절히 변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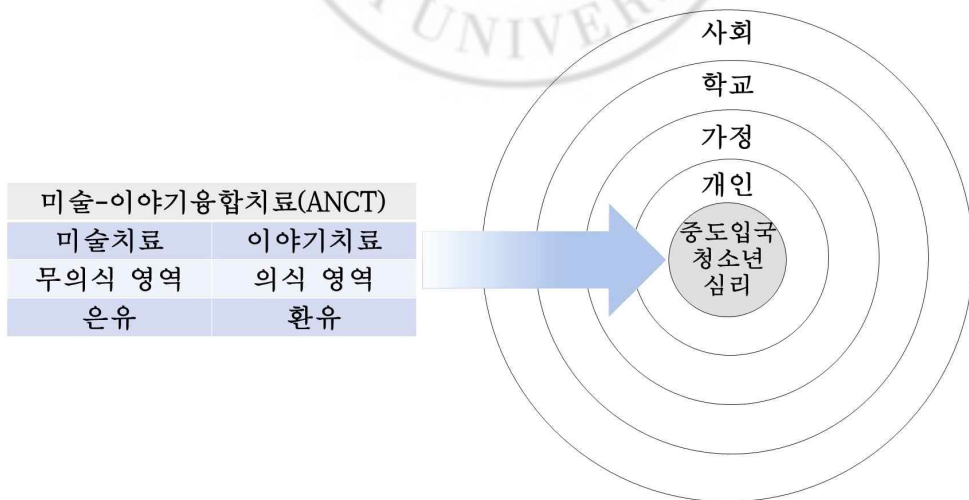
3.2.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이와 같이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는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라는 다양한 층위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들의 중도입국경험에 관련된 맥락을 고려하여 특화된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둘째, 이야기치료는 내러티브의 치료적 속성을 기반으로 내담자의 문제적 이야기를 대안적 이야기로 바꾸는 포스트모던적인 심리치료기법이며, 이야기치료에 미술활동을 사용할 때 치료적인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치료는 미술치료가 주류였으나, 이야기치료 중심의 융합치료를 통해서 새로운 치료적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이론적인 개념틀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술치료가 은유적 표현을 통하여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며, 이야기치료는 환유적 표현을 통하여 의식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세계를 다루는 치료가 융합될 때 단독치료기법보다 더 치료적인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있어서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를 융합한 심리치료를 미술-이야기융합치료(Art-Narrative Convergence Therapy: ANCT)라고 정의한다.

미술-이야기융합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세계를 은유로 나타내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의식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환유로 나타내면서 인지·정서·행동의 전인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치료모형이다.

미술-이야기융합치료는 미술활동을 매개로 하여 얻은 내담자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문제적 이야기와 대안적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내담자를 치료한다.

미술-이야기융합치료는 내담자를 둘러싼 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 맥락에서 형성된 삶의 경험을 내담자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Ⅲ. 연구 방법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가 채택한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이다. 질적 연구방법과 함께 사회과학연구방법론을 양분하고 있는 양적 연구방법은 정량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지향한다. 반면에 질적 연구는 맥락과 내재된 의미 속에서 도출된 정성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현상 그 자체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을 지향한다(유기웅 외, 2012: 1, 8-10; 고미영, 2012: 28-29).

질적 연구는 다음 아홉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김영순 외, 2018).

첫째,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통제되고 인위적인 실험실의 상황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이 이슈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주요도구로서 연구자의 역할이다. 연구자가 스스로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더 나아가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행위 전반을 성찰하고 반성한다.

셋째, 다양한 자료원천을 가진다. 연구자가 수집하는 자료는 내용과 형태의 측면에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연구를 관통하는 범주와 주제를 도출하도록 하고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귀납적인 분석이다. 기초자료를 분석하면서 포괄적인 주제로 범주화하기까지 아래에서 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한다.

다섯째, 참여자의 의미이다. 연구대상이 아니라 연구참여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은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함께 이끌고 가는 동반자이며, 연구주제에 대한 실증적인 경험을 이미 가진 안내자이다.

여섯째, 유연한 설계이다. 현장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

에, 자료수집, 연구참여자, 현장 등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을 수정할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일곱째, 이론적 렌즈이다. 이론은 주요 연구도구인 연구자가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덟째, 해석적인 연구이다. 연구자가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 해석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배경, 선형적 이해,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그 해석에 연구참여자와 독자가 참여한다.

아홉째, 총체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엄격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 있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규명하면서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준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질적 연구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섯 가지에서 십여 가지의 접근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Creswell은 질적 연구를 현상학, 내러티브연구,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등의 다섯 가지 방법으로 구분한다(Creswell, 2013). 김영순 외(2018)은 위의 분류에 민속방법론과 생애사 연구를 포함시켰으며, 더 나아가서 응용적 질적 연구방법인 실행연구, 핵심집단면담과 델파이조사, 합의적 질적 연구, 혼합연구까지 확장하여 질적 연구방법으로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질적 연구방법은 사례연구(case study research)이다. 사례연구는 동시대의 현상 즉, 사례를 깊이 있게 그리고 실제 세계의 맥락에서 탐구하는 연구방법이며, 특히 현상과 맥락이 명확히 구분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방법이다(Yin, 2014: 16).

하지만 사례연구는 광범위한 개념을 포함하는 연구방법론으로서, 다른 질적 연구방법론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강조점과 해석을 바탕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사례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연구자만의 언어로 사례연구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유기웅 외, 2012: 96-98).

연구대상으로서의 사례는 다음 다섯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유기웅 외,

2012: 98-100).

첫째, 제한성이다. 연구대상으로서의 사례는 주변의 사례들과 구분이 가능한 경계성이라는 제한성을 가진다.

둘째, 맥락성이다. 연구대상으로서의 사례, 즉 현상은 맥락과 떨어져서 이해가 불가능하다.

셋째, 구체성이다. 연구대상으로서의 사례는 구체적인 현상, 문제, 정보를 내포한다.

넷째, 복잡성이다. 연구대상으로서의 사례는 양적연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의 복잡하고 미묘한 요인들, 이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특성으로 가진다.

다섯째, 현재성이다. 연구대상으로서의 사례는 과거의 사건보다는 진행형의 과정에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특정 사건이나 프로그램의 전개과정과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내포하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는 다음 세 가지의 연구에 적합하다(Yin, 2014: 238; 유기용 외, 2012: 101-102에서 재인용).

첫째, 설명적인 연구이다. 사례연구는 설문지나 실험을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실제적인 상황과 맥락에서 어떤 결과의 발생의 과정과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기술적인 연구이다. 사례연구는 실제 세계의 맥락에서 무슨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할 수 있다.

셋째, 탐색적인 연구이다. 사례연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적용된 상황을 탐색할 수 있다.

사회과학방법론으로서 일반적인 사례와 사례연구의 특성은 위와 같다면, 상담 및 심리치료적인 관점에서 임상적 사례와 임상적 사례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Higgins, 2003: 18-20).

사례는 내담자와 상담사·치료사 사이의 전문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즉, 사례는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발생한다. 사례(case)라는 단어에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라틴어 casus에서 유래한 의미로서, ‘떨어진다,’ ‘사건이 일어났다,’ 예기치 못한 우연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례라는 단어에는 예측하지 못한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담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둘째, 라틴어 capsa에서 유래한 의미로서, ‘저장하다,’ ‘손으로 취하다,’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례라는 단어에는 사건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저장하고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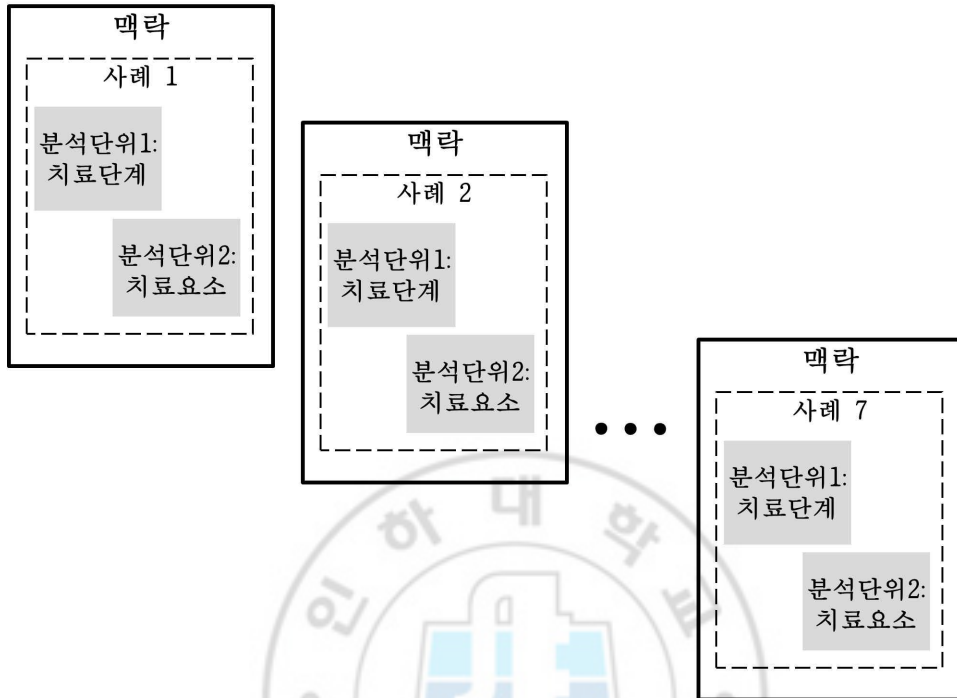
그러므로 상담 및 심리치료적인 관점에서 사례연구는 내담자가 처한 어려움을 묘사하고,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론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사례연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그와 관련된 사회적·역사적인 맥락,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동시에 펼쳐낸다. 사례연구는 이러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내담자, 치료사, 치유에 대한 심오한 함의들을 도출할 수 있다. 특별히 예술치료에서 사례연구법은 치료사로 하여금 임상사례의 핵심적인 측면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탐색하는데 유용하다(Edwards, 1999: 2).

본 연구는 중도입국이라는 공통적인 맥락을 가진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집단에서 적용한 상황을 탐색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기술하며, 그리고 왜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특별히 임상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진 내담자로서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치료사인 연구자와 함께 자신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사례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례연구를 설계할 때, 고려하는 변수에 따라서 연구설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Yin은 사례연구를 설계할 때 사례의 수와 분석의 단위라는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다(Yin, 2014: 49-50). 사례의 수를 단일 사례와 다중사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석의 단위를 전체분석과 내재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두 가지 변수의 조합에 따라서, 다음 네 가지의 연구설계가 가능하다. 첫째, 단일-전체 설계, 둘째, 단일-내재설계, 셋째, 다중-전체 설계, 그리고 넷째, 다중-내재설계이다.

Gerring(2007)은 사례연구를 설계할 때 사례의 수, 공간적 혹은 시간적 변수(공시 혹은 통시), 변수의 위치(사례-내 혹은 사례-간)라는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세 가지 변수의 조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연구설계가 가능하다. 첫째, 단일-통시 설계, 둘째, 단일-공시 설계, 셋째, 단일-공시·통시 설계, 넷째, 비교 설계, 그리고 다섯째, 비교-역사 설계이다.

본 연구는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7명의 사례자인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개의 내재분석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다중-내재 사례연구설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연구설계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Ⅲ-1〉 본 연구의 사례연구설계

〈그림 Ⅲ-1〉과 같이,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공통점, 즉 중도입국이라는 공통의 맥락을 가졌지만, 출신국, 이주과정 등에서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진 7명의 청소년을 7개의 개별사례로 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각각의 사례를 치료 단계와 치료 요소 등의 2개의 내재분석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중사례 연구설계는 단일사례 연구설계에 비하여 설득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례와 하위분석단위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사례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흐려지고 하위분석단위들이 그리는 전체적인 결과를 조망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질 수 있다(Yin, 2014: 56-63; 유기웅 외, 2012: 108-110). 그러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서 본 연구는 비교-역사 사례연구분석, 다시 말해서 사례 간 분석을 사용하였다(Gerring,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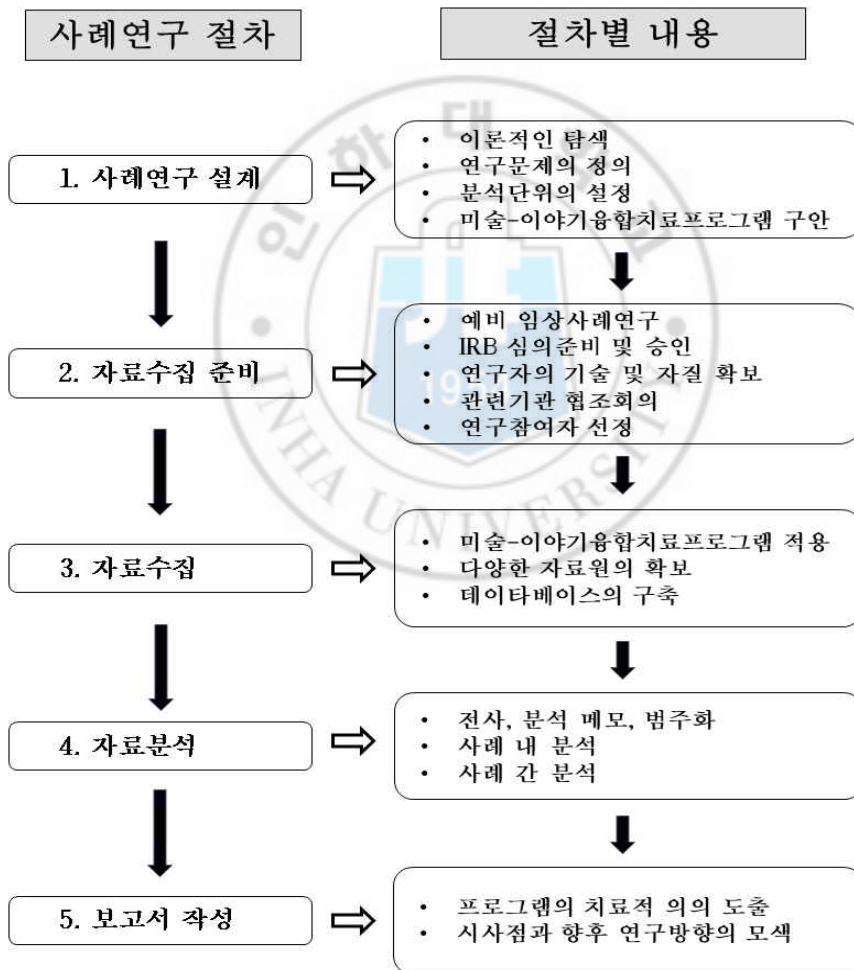
본 연구는 사례 내 분석으로서 각 사례를 치료단계 및 치료요소의 내재분석단위로 분석한 후에, 사례 간 분석으로서 내재분석단위를 비교하였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사례마다 치료과정의 각 단계 및 각 치료요소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전체사례의 단계별 과정을 통시적으로 비교하고, 치료요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비교-역사 사례연구설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설계를 바탕으로, IV장은 각 사례별로 첫 번째 내재분석단위인 치료단계를 사례 내 분석으로 분석한 후에, 결론적으로 전체 사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사례 간 분석으로 시행한다.

V장은 두 번째 내재분석단위인 치료요소를 기반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치료프로그램 참여경험의 치료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서 치료요소를 3가지 상위범주와 7가지 하위범주로 범주화하여 제시한 후에, 각 범주에 따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2. 연구절차

Yin(2014)은 사례연구의 절차가 사례연구의 설계, 자료수집 준비, 자료 수집,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선형적이지만 반복적인 과정이라고 말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절차대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본 연구의 연구절차 개요

<그림 III-2>와 같이, 사례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사례연구 설계이다. 연구목적에 따라서 관련 선행연구를 진행할 때, 국내 이주민의 상담 및 심리치료, 국내 이주민의 정신보건관련 법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자살,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치료, 이야기치료의 국제적 연구동향 등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탐색적 연구의 과정에서 여러 편의 소논문을 주저자 및 공동저자로서 국내의 등재학술지와 해외의 Scopus급 학술지 등에 발표하였다.⁴⁾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으로서 구체화하였으며, 이야기 치료를 주요 심리치료이론으로 사용하여 분석단위를 설정하였다. 분석단위는 문제적 이야기의 외재화, 독특한 결과의 조명, 대안적 이야기의 다시 쓰기 등 3가지의 치료요소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은 왕금미(2017)가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콜라주미술집단치료의 연구에서 제시한 미술치료활동을 기반으로, 이야기치료활동을 재구성하였다(왕금미, 2017: 54-57). 본 연구에서 구안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4)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관련된 탐색적 연구의 과정에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Youngsoon Kim, Youngsub Oh(2017). A Discourse Map on Counseli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Education and Research*. 11(2). 10-16. ② Youngsub Oh, Youngsoon Kim(2017). Vietnamese Indigenous Healing's Implication for Vietnamese Women Counseling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Behavioral, Educational, Economic, Business and Industrial Engineering*. 11(5). 1124-1128. ③ Youngsub Oh(2018) Research Trend on Suicide of Multicultural Youths in Korea. *AJMAHS* 8(5). 269-278 ④오영섭, 김영순, 왕금미(2018). 이야기치료의 국제적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학치료연구* 48. 41-74 ⑤ Geummi Wang, Youngsoon Kim, Youngsub Oh(2018). A Case Study on Emotional Change of Immigrant Youths in Korea after the Collage Art Therapy.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⑥ 이발래, 오영섭(2018). 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증진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AJMAHS* 8(12). 753-760.

〈표 III-1〉 미술-이야기융합치료(ANCT)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단계	회기	주제	미술치료	이야기치료	융합치료 효과·요인
초기	1	집, 나무, 사람	자신의 집, 나무, 가족을 그리기	자신의 가족, 고향집, 한국집 등에 대한 이야기하기	투사된 자신의 정서 외재화
	2	나와 나무	나무와 사람을 그리기	나무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기	자신의 그림자 이야기 찾기
	3	필름 그림	과거, 현재, 미래의 자신을 그리기	과거, 현재, 미래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하기	독특한 결과 찾기
	4	두 얼굴	행복한 얼굴과 불행한 얼굴 그리기	행복한 감정이 나오는 상황과 불행한 감정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하기	독특한 결과 찾기
중기	5	탄생	계란에서 태어난 자신의 소원을 그리기	가지고 싶은 물건, 하고 싶은 일 등에 대한 이야기하기	대안 이야기 찾기
	6	상장	받고 싶은 상장, 합격증 그리기	구체적으로 전공, 대학교 이름을 정하여 이야기하기	대안 이야기 찾기
	7	집, 나무, 사람	자신의 집, 나무, 가족을 그리기	자신의 가족, 고향집, 한국집 등에 대한 이야기하기	투사된 자신의 정서 외재화
	8	나의 이름	자신의 한국어 이름을 그림으로 그리기	자신의 한국어 이름의 작명배경, 만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독특한 결과 찾기
후기	9	나와 나무	나무와 사람을 그리기	나무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기	자신의 그림자 이야기 찾기
	10	손가락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그리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대안 이야기 찾기
	11	두 얼굴	행복한 얼굴과 불행한 얼굴 그리기	행복한 감정이 나오는 상황과 불행한 감정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하기	독특한 결과 찾기
	12	선물	받고 싶은 선물,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리기	선물을 주고 싶고 받고 싶은 사람과 선물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대안 이야기 찾기

〈표 III-1〉과 같이, 프로그램이 초기, 중기, 후기로 단계별로 각 4회기씩 진행이 되며, 각 회기 마다 60~80분 정도가 소요된다. 프로그램은 미술활동과 이야기활동의 2개의 활동이 융합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융합치료의 요인이면서 동시에 효과는 문제적 이야기의 외재화, 독특한 결과

의 조명, 대안적 이야기의 다시 쓰기의 3가지이다.

초기단계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에 라포를 형성하고, 긴장감을 완화하고 정서를 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요인과 효과의 측면에서 미술에 투사된 자신의 정서를 외재화하고, 표출되는 정서의 이면에 있는 문제적 정서를 자신과 분리하고, 더 나아가서 독특한 경험까지 탐색하는 단계이다. 1회기 ‘집, 나무, 사람’이라는 주제에서 가족, 고향집, 한국집에 관한 정서를 표현하면서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를 확인한다. 2회기 ‘나와 나무’라는 주제에서 나무와 사람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의 그림자를 객관화한다. 3회기 ‘필름 그림’이라는 주제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자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주 전-중-후의 과정에서 나타난 정서를 탐색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구상해 본다. 4회기 ‘두 얼굴’이라는 주제에서 행복한 감정과 불행한 감정이 나오는 상황 및 요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함으로써 문제적 경험과 독특한 경험을 확인한다.

중기단계는 융합치료 요인과 효과 측면에서 초기 단계의 문제적 이야기와 독특한 결과를 반복하고 심화시키면서, 더 나아가서 대안적 이야기까지 구성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5회기 ‘탄생’이라는 주제로 계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이 품고 있으며 현실로 나타나게 하고 싶은 소원을 이야기함으로써 대안적인 경험을 탐색한다. 6회기 ‘상장’이라는 주제에서 대학합격증 혹은 받고 싶은 상장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야기로 표현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적성, 전공, 대학교 이름, 직업명을 구체화·객관화함으로써, 현실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적인 이야기를 풍성하게 한다. 7회기 ‘집, 나무, 사람’라는 주제는 1회기와 동일하다. 이는 6회기, 즉 2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된 정서를 보고자 한다. 8회기 ‘나의 이름’이라는 주제에서 자신의 한국어 이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작명배경,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 정체성 등을 확인하고 독특한 경험을 탐색한다.

후기단계는 융합치료 요인과 효과 측면에서 초-중기 단계의 문제적 이야기, 독특한 결과, 대안적 이야기를 심화시키면서, 더 나아가서 대안적 이야기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9회기 ‘나와 나무’ 라는 주제는 2회기와 동일하다. 이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본 프로그램으로 통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10회기 ‘손가락’ 이라는 주제에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자신의 강점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대안적인 이야기를 강화한다. 11회기 ‘두 얼굴’ 이라는 주제는 4회기와 동일하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와 그러한 정서를 일으키는 원인을 어떻게 분리시키고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12회기 ‘선물’ 이라는 주제에서 주거나 받고 싶은 선물의 내용과 대상을 표현함으로써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간관계나 가족관계에서 형성된 감정을 순화하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회원을 재구성한다.

사례연구의 두 번째 단계는 자료수집 준비이다. 사례연구 설계단계에서 구안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예비임상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인천광역시 소재한 I 이주민 센터에서 학교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의 연구윤리 및 안전문제에 대하여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최종승인을 얻었다(승인번호: 171120-8A).

Yin은 사례연구를 하는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자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을 제시한다(Yin, 2014: 72-77). 첫째, 좋은 질문을 던지기, 둘째, 경청하기, 셋째, 연구의 변동에 적응하기, 넷째, 연구이슈를 이해하기, 그리고 다섯째, 편견을 배제하고 연구윤리를 수행하기이다. 사례연구에 필요한 연구자의 기술과 자질은 앞서 말한 질적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히 연구자는 본 연구의 핵심과제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및 자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다. ① 연구자는 기독교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원 과정에 수학하면서 상담학 및 심리학에 관한 필수과목들을 이수하였으며, 목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유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상담을 진행하였다. ② 연구자는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상담 및 심리치료자격증을 준비하였으며, 2018년에 교류분석상담사(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민간자격등록번호 2013-2404) 및 TA성격프로파일분석사(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민간자격등록번호 2017-004706), 미술심리상담사 2급(한국아동청소년예술치료협회 민간자격등록번호 2011-0958)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해당 기관에서 이론시험 및 임상실습 등의 소정의 수련과정을 통과하였다. ③ 연구자는 2017년 2학기에 다문화예비학교로 지정된 I시에 소재한 G 고등학교에서 개설된 미술치료프로그램의 6회기를 관찰자로서 참여관찰을 하였다.

연구자는 G 고등학교에서 2018년 1학기와 여름방학의 방과 후 과목으로 개설된 심리치료프로그램에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임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허락을 받았다. 이후 연구자는 다문화학생들을 담당하는 부장교사로부터 본 프로그램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7명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소개받았다.

사례연구의 세 번째 단계는 자료수집이다. 사례연구의 자료는 대체적으로 문서자료, 기록물자료, 인터뷰, 직접관찰, 참여관찰, 물리적 인공물 등의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Yin, 2014: 106, 김영순 외, 2018: 275-278). 이와 같은 임상사례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2018년 5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12회기에 걸쳐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7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용하였다. 1회에서부터 12회기까지 모든 회기를 음성 녹음 혹은 동영상 녹화하면서 회기마다 발생한 모든 수업진행과 대화들의 구술자료 혹은 영상자료를 확보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각 회기마다 개인별로 미술작품, 자필로 작성된 소감문, 이야기 발표자

료를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참여관찰 및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미술-이야기융합치료를 진행하는 치료사로서 내부자의 관점(emic)과 본 프로그램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연구자로서 외부자의 관점(etic)을 병행하면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의 내용은 각 회기의 전반적인 흐름, 연구참여자와 치료사 사이 혹은 연구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각 연구참여자의 행동적·심리적인 반응, 치료사의 성찰 등이었다. 추가적으로 연구자는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이후에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을 외부에서 관찰한 담당교사를 인터뷰하고 구술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연구참여자 7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이며 두 가지의 치료기법을 융합한 융합치료 프로그램이므로 매 회기마다 주제에 따른 상당한 분량의 연구자료가 생산되었다. 그러므로 매 회기를 마치고 난 후에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자는 모든 미술작품과 자필 소감문은 스캐너로 컬러 스캔하여 고품질의 이미지 파일로 재생산하였다. 또한 모든 구술자료, 발표동영상, 인터뷰는 음성 및 동영상 파일로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사록으로 문서화하였다. 연구자가 자필로 기록한 관찰일지도 한글프로세서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이미지, 음성, 동영상, 문서 등으로 전산화하였으며, 일련의 파일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일종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하여, 향후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용이하게 하였다.

사례연구의 네 번째 단계는 자료분석이다. 자료분석 기법은 패턴매칭,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시계열 분석, 논리모델, 사례통합 등의 다섯 가지 기법으로 분류되며, 여기에서 인과적인 설명과 논리모델은 패턴매칭의 특수한 경우이다(Yin, 2014: 142-168). 그러므로 자료분석 기법은 크게 패턴 매칭, 시계열 분석, 사례통합의 세 가지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는 3차에 걸쳐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분석에서 연구자는 자료수집 단계에서 정리된 자료를 연구참여자마다 회기의 순서대로

미술작품, 자필 소감문 및 이야기 구술자료를 배열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반응에 대하여 분석메모를 작성하였다. 분석메모는 자료에서 발견한 주제, 떠오르는 아이디어 등의 모든 것이 해당되며, 후속으로 진행하는 코딩을 용이하게 하며, 연구방향을 재설정 하는데 도움을 준다(김영순 외, 2018: 279).

2차 분석에서 연구자는 1차 분석에서 작성된 분석메모를 바탕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12회기의 치료과정을 4회기씩 나누어서 초기, 중기, 후기로 3개의 시기를 설정하였으며, 개별 연구참여자의 각 시기별 주요 이야기를 범주화하였다.

3차 분석에서 연구자는 1차 분석에서 작성된 분석메모를 바탕으로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이미 사례연구설계에서 설정한 3개의 분석단위, 즉 치료요소에 기반한 분석틀을 가지고 연구자는 개별 연구참여자의 각 치료요소별 주요 이야기를 범주화하였다.

이와 같은 2차 및 3차 분석은 분석단위별 분석이기 때문에 내재단위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사례, 즉 개별연구참여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사례 내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7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다중사례연구이므로, 모든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식별하여 사례들 사이의 주제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례 간 분석이다. 다시 말해서, 연구자는 각 시기별로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고, 각 치료요소별로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례 간 분석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왜 그렇게 경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사례연구의 다섯 번째 단계는 보고서 작성이다. 사례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례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보고서의 구성체계가 달라진다(Yin, 2014: 187-190). 사례연구의 목적은 탐색, 기술, 설명의 3가지이며, 3가지 목적에 따라서 선형분석구조, 비교구조, 연대기구조, 이론구축구조, 긴장구조, 불연속구조의 6가지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상의 3가지 목적을 모두 지향하는 사례연구는 선형분석구조, 비교구조, 연대기적 구조를 적

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상황을 탐색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기술하며, 그리고 왜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선형적이며 비교적이며 연대기적인 구조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의 상담 및 심리치료적인 의미를 도출하였으며, 다문화상담 및 심리치료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3.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 7명이다. I 시에서 다문화예비학교로 지정된 G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 7명은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주관련 특성 및 행동·심리적 특성은 다음 <표 III-2>과 같다.

<표 III-2>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이주관련 특성						행동·심리적 특성
	나이	성	출신	가족구성	입국시기	한국어능력	
A	18	여	중국 (한족)	한국인 계부, 중국인 친모	2015년	말하기, 듣기, 쓰기 가능	성실한 자세, 밝은 성격
B	18	남	중국 (조선족)	조선족 부모	2016년	말하기, 듣기, 쓰기 가능	매사 진지함, 아이돌가수에 대한 꿈
C	19	여	중국 (조선족)	조선족 부	2014년	통역필요	미술적 재능, 낙천적 성격
D	19	여	아랍계 B국	오빠 (배우자)	2015년	말하기, 듣기 가능, 쓰기 어려움. 영어가능	질은 화장, 외향적 성격
E	17	여	베트남	한국인 계부, 베트남 친모	2016년	통역필요	언어소통에 대한 고민호소
F	16	여	우즈베 키스탄 (고려인)	고려인 부모, 남동생	2015년	말하기, 듣기, 쓰기 가능. 영어, 러시아어 가능	질은 화장, 외향적 성격
G	17	여	베트남	한국인 계부, 베트남 친모	2017년	말하기, 듣기, 쓰기 가능	성실한 자세, 내성적 성격

<표 III-2>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자 1명, 여자 6명이다. 연령대는 16세에서 19세 사이이다. 출생지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랍계 B국 등 4개국이다. 현재 가족구성은 재혼가정의 자녀가 3명,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1명, 부모가 있는 가정의 자녀가 2명이며, 나머지 1명은 결혼한 상태로 배우자와 입국하였다.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한 햇수는 1년에서 4년 사이이다. 연구참여자들이 구사하는 한국어 수준은 4명은 말하기, 듣기, 쓰기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3명은 모국어나 영어통역이 보조적으로 필요한 수준이다. 이들은 모두 학교장의 허가로 학교에 개설된 미술 및 이야기 치료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별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A는 중국 H 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중국 한족 출신의 여자 청소년이다. 엄마가 한국인 새 아빠와 재혼하고 한국에 먼저 왔으며, A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할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후반기에 A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A의 마음에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있었다.

A가 한국에 온지는 3년이 지났으며, 일상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하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학교에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선생님이 열쇠를 맡기거나 심부름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학교에서 신뢰감을 얻었다. 평소에 밝은 표정으로 생활한다. 연구참여자 D와 절친한 관계이며, 학교안팎으로 생활을 같이한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의 장점을 살려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한다.

(2)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B는 중국 S 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재중동포 출신의 남자 청소년이다. 재중동포인 아빠와 엄마가 일찍 한국에 오면서, 외할아버지

와 외할머니의 보호아래에서 성장하였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B를 과잉보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애지중지하게 키웠다.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친밀감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어려서부터 조선족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가 능숙하며, 한국문화에 대하여 익숙하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행동이 매사에 진지하다. 한국의 K-pop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여, 춤과 노래를 연습하며, 아이돌이 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차선으로 대학진학을 염두하면서 어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B는 한국의 학교가 중국의 학교보다 좋다고 생각하며,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교사들과 친구들과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다.

(3)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C는 중국 H 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재중동포 출신의 여자 청소년이다.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한지는 4년이 되었지만, 간단한 한국어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아빠를 따라서 한국에 왔으며, 현재 다른 가족구성원이 없이 아빠하고 살고 있다.

학교에 입학한지는 2년이 되었으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미술에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평소에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것이 취미이며, 자신의 작품을 SNS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한다. 한국어가 서투르므로 주로 이야기보다는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 하지만 한국어가 어렵다고 주눅이 들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니 아노는 다. 고3임에도 불구하고 진학이나 진로준비를 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은 느리지만, 성격은 낙천적이다.

(4)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D는 A국에서 태어나고 B국에서 성장한 아랍계 여자 청소년이다. 한국에서도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할 정도로 회교도적 문화를

충실히 따른다. 어려서 아빠의 직장을 따라 A국에서 B국으로 이동하였다. 할머니 집안의 친척들이 한국에는 먼저 자리를 잡아서, 한국을 알게 되었다. D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3년 전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런 점에서 D는 이민가정의 배우자이지만, 본 연구는 D가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9세의 청소년이며 본인이 결혼하였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고려하였다.

D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화장법과 화장품에 대하여 관심을 많으며, 학교에도 진한 화장을 하고 다닌다. 성격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이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잘 이야기 하지 않는다.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영어로 말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 절친한 친구인 연구참여자 A와 학교 안팎으로 생활한다.

(5) 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 E는 베트남 K 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베트남계 여자 청소년이다. 엄마가 베트남인 아빠와 이혼 후에 현재 한국인 새 아빠와 재혼하면서, E는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엄마가 한국에 먼저 오면서 외할머니가 3년 동안 E를 베트남에서 양육하였다.

E는 한국에 거주한지 2년이 되었으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지역에 있는 사회통합이주민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 미술작업을 할 때, 미술심리치료사의 예시를 따라보고 그럴 정도로 미술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한국어 때문에 한국의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이것이 E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6) 연구참여자 F

연구참여자 F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고려인 3세 출신의 여자 청소년이다. 고려인 부모를 따라서 동생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한지 3년이 되었다.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오기 전에 인근의 S

중학교에서 생활하였다.

F는 고려인으로서의 배경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고,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이지만, 감정의 기복이 있으며, 본 프로그램에 불규칙하게 참석하였다. 화장을 좋아하여 평소에 짙은 화장을 학교에 온다. 미술활동에 관심이 많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A, D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그램에서 A, D와 옆에 앉아서 참여를 하였다.

(7) 연구참여자 G

연구참여자 G는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베트남계 여자 청소년이다. 엄마가 베트남인 아빠와 이혼 후에 현재 한국인 새아빠와 재혼하면서, G는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엄마가 한국에 먼저 오면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8년간 G를 베트남에서 양육하였다.

G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G는 베트남에서도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만큼 성적도 우수하였으며 높은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거주한지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잘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상장도 받을 정도로 한국어학습에 대한 의지가 있다. 평소에 성실한 자세로 학교생활을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소 위축된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동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여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4.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다문화예비학교로 지정된 I 시의 G 고등학교에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12회기를 진행하면서 수집되었다. 연구자는 G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7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주 1회, 매 회기마다 60분에서 80분 정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본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생산된 미술작품, 소감문, 이야기발표자료, 연구자와 대화, 음성녹음 및 동영상녹화 자료, 사진자료, 연구자의 참여관찰 및 성찰일지 등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형태와 내용은 다음 <표 III-3>와 같다.

<표 III-3> 연구자료의 형태와 내용

구분	형태	내용
비언어적 자료	미술작품	드로잉 및 콜라주 기법으로 자신의 심리를 표현한 은유, 상징과 이미지
	행동관찰	연구참여자들의 행동, 얼굴표정, 제스처, 심리적 문제의 신체화 증상들, SNS의 사진
언어적 자료	소감문	기본 인적사항, 제목, 작품설명, 프로그램참여 이후의 심리상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참여관찰 및 성찰일지	연구참여자의 출결상황, 자리배치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업전개기술, 개인별수업태도(미술작품의 특징, 미술작품설명, 대화), 연구자의 성찰(내부자·외부자적 관점)
	이야기발표	자신의 미술작품 소개, 치료사와 대화, 각 회기별 참여 이후의 심리상태, 환유적 표현
	인터뷰	일부 참여학생에 대한 비구조화된 인터뷰, 담당교사에 대한 반구조화된 인터뷰

<표 III-3>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비언어적 자료와 언어적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언어적 자료와 비언어적 자료를 활용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자신의 심리를 은유로 표현한 미술작품과 환유로 표현한 이야기자료를 주된 자료원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의 6가지 종류의 자료이다.

첫째는 미술작품이다. 미술활동은 그 자체로 내담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치료할 수 있는 주요한 치료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미술활동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이끌어 내는 매개체로서 이야기치료의 보조적인 도구로서 활용된다.

둘째는 행동관찰이다. 연구참여자가 각 회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간부터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교실 밖으로 나가는 시간까지 교실 안에서 발생한 연구참여자의 행동, 얼굴표정, 제스처, 심리적인 문제의 신체화 증상들을 관찰하였으며,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들에 나타난 행동에 대해서도 관찰하였다.

셋째는 소감문이다. 연구참여자는 미술활동을 마치고 준비된 양식의 소감문에 기록하였다. 소감문의 양식은 기본 인적사항, 미술작품의 제목, 작품설명, 작품완성 후 느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작품완성 후의 느낌을 연구참여자들이 주관식으로 적거나 4가지의 심리상태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감문의 양식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는 참여관찰 및 성찰일지이다. 연구자는 조진경(2016)이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수업관찰일지를 기반으로 참여관찰 및 성찰일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본 일지에 회기의 수, 일시 및 장소, 참여자의 출결상황, 자리배치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업전개내용, 개인별수업태도, 개인별이야기 및 대화내용, 미술활동 및 미술작

품의 특징, 내부자와 외부자의 두 관점에서 연구자의 성찰 등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참여관찰 및 성찰일지의 양식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는 이야기발표자료이다. 이야기치료이론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대안적인 이야기를 여러 증인 혹은 청중 앞에서 선언하거나 편지와 같은 기록물로 남김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증인 혹은 청중들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맞장구쳐주기, 즉 다시 말하기로 응답한다. 이와 같이 내담자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격상시켜 주는 의식을 정의예식라고 말한다(White, 2010: 205).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12회기 중에서 총 7회를 집단원들과 치료사인 연구자 앞에서 발표하였다. 이야기발표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미술작품에 대한 소개, 이주, 가정, 학교, 일상에 관한 연구자와의 대화, 연구자의 다시 말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의 심리상태 변화 등을 포함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별로 이야기발표를 할 때 동영상으로 녹화하였다.

여섯째는 인터뷰자료이다. 본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은 개별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집단프로그램이다. 7명의 연구참여자들이 하나의 교실에서 같은 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심층상담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여건이었다. 하지만 연구자는 회기마다 가능한 한 연구참여자와 개인별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무리하게 프로그램에 따라오게 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변용하여 미술활동 중에서 대화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구조화된 인터뷰질문지를 가지고 하지 않고, 미술작품에서 제시된 표현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교사 2인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질문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참여자들의 심리, 행동, 생활 전반의 변화 등 본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구조화된 인터뷰질문의 양식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자료분석

사례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분석의 전략은 다음 네 가지이다(Yin, 2014: 136-142). 첫째, 이론적인 논의에 근거하여, 둘째, 귀납적으로 자료를 접근하고, 셋째, 사례를 기술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넷째, 귀무가설과 같은 경쟁설명을 사용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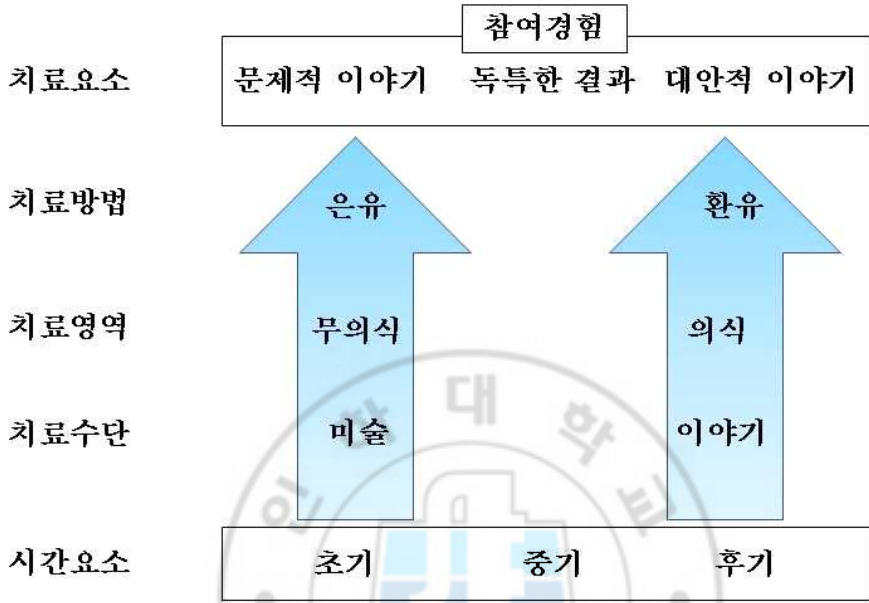
이와 같은 자료분석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이야기치료이론을 근거로 융합치료프로그램을 구안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얻은 다양한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경험을 분석단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본 프로그램이 잠재적으로 충분한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힌다.

앞서 2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례연구 자료분석의 기법은 크게 패턴 매칭, 시계열 분석, 사례통합 등의 세 가지 기법으로 볼 수 있다(Yin, 2014: 142-168). 이와 같은 자료분석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성찰하면서 작성된 분석메모를 바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야기를 범주화하였다. 다시 말해서, 분석단위에 따라서 각 연구참여자의 주요 이야기들을 범주화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의 특징을 종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이므로, 이들의 참여경험을 분석하는 분석단위, 즉 분석기준은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즉 치료요소가 된다. 다시 말해서, 문제적 이야기, 독특한 결과, 대안적 이야기라는 3가지의 치료요소는 자료를 분석하는 분석기준이다. 이것을 통해서 ‘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온 이야기를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요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분석기준이 된다. 이상의 자료분석의 구조

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Ⅲ-3>와 같다.



<그림 Ⅲ-3> 자료분석의 개념적 틀

<그림 Ⅲ-3>과 같이, 연구참여자마다 시간요소와 치료요소로 분석을 하는 사례 내 분석을 실시한 후에, 7개의 다중사례를 종합하여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분석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왜’ 그렇게 경험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5.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적 고려

사례연구의 설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의 검증방법을 사용한다(Yin, 2014: 45-49).

첫째, 구성타당성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구성타당성은 자료의 다양화와 증거 간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참여경험인데, 본 연구는 참여경험을 치료경험, 심리표현경험과 동등한 의미로 보았으며, 이러한 참여경험은 문제적 이야기, 독특한 결과, 대안적 이야기 등의 치료의 3가지 요소로서 나타난다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야기치료를 적용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이와 같은 3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치료경험을 내담자의 이야기로부터 도출하였다(조미라, 2017; 이다미, 2014, 김혜경, 2008).

본 연구는 비언어적 자료와 언어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원들을 활용한 삼각검증을 통해서 연구문제의 핵심개념들을 객관적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 간의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구성하였다.

둘째, 내적타당성은 기술적 사례연구 혹은 탐색적 사례연구가 아니라 주로 설명적 사례연구에서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앞서 2절과 4절에서 전술한 자료분석의 기법인 패턴 매칭, 인과적인 설명, 경쟁가설, 논리모델 등을 사용하면서 내적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적이고 탐색적이며 동시에 설명적인 사례연구를 지향하며, 엄밀하게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 연구가 아니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참여했기 때문에 심리치료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도입국이라는 유사한 맥락을 가진 청소년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연대기적으로, 논리

적으로 재구성하여 일종의 패턴, 즉 치료적인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점에서 내적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외적타당성은 일반화와 관련이 있다. 사례연구에서 말하는 일반화는 통계적인 일반화가 아니라 분석적인 일반화를 의미한다. 사례는 통계적인 표본이 아니라, 이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분석적인 일반화는 기존의 이론을 강화, 수정 혹은 기각하기도 하고,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기도 한다(Yin, 2014: 41). 외적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일사례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하며, 다중사례연구는 반복연구논리를 따른다. 다시 말해서, 연구가 반복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외적타당성은 강화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야기치료, 미술치료, 융합치료,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다수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참여경험의 유사성은 다시 이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참여경험의 차별성은 이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발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외적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넷째,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다른 연구자가 수행된 연구와 동일하게 실시하여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연구의 신뢰성은 높아진다. 이것은 단순히 연구를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행연구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연구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례연구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I 시에 소재한 모 이주민 센터에서 예비임상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시사점, 현장의 어려움을 사전에 확인하였다. 그리고 IRB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연구수행을 위한 프로토콜을 준비하였다. 연구프로토콜은 연구개요, 자료수집방법, 연구윤리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었다. 이러한 프로토

콜을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3장 4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자료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다양한 자료원들을 모두 전산화하여 일종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수집된 자료를 검색하고 보존하고 인용하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례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질적 연구자로서 역량을 함양하고 본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회(54시간)에 걸쳐서 질적 연구방법론 캠프에 참가하여 질적 연구의 기본을 익히고, 연구자로서의 연구윤리를 배웠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를 설계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았으며, 이는 논문연구 I, II 등의 정규수업과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공동체의 정기적인 세미나, 월례발표회, 정규수업, 학위논문발표회에 참가하여 다른 질적 연구자들의 코멘트와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논문에 반영하였다.

넷째, 연구자는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미술심리치료 수련감독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전문가의 지도하에 미술심리치료의 임상실습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상담사 및 심리치료사로서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이론시험과 임상실습을 통과하여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다섯째, 연구자는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주제로 문헌연구방법 및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학술지심사과정 및 학술대회발표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인간을 관찰하고 면담하는 조사연구이며, 중재적 개입으로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인간에게 실시하는 실험연구이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국적 상 외국인이

며 연령은 미성년인 고등학생들이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언어적으로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윤리적인 고려는 중요하다.

연구자는 2017년 11월 19일에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의뢰하였고, 2017년 12월 26일에 최종승인을 받았다. 승인번호는 171120-8A이다. 심의과정에서 나온 보완의견 및 권고사항은 연구계획서에서 청소년 연구참여자의 연령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구참여동의서 및 연구설명문에서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가 중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라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최종승인을 얻었다. 연구자는 연구설명문 및 연구참여동의서를 준비할 때, 연구참여자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의 5개 언어로 번역하고, 참여학생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하였다. 연구설명문 및 연구참여동의서에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본 내용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자의 정보, 연구참여자의 선정, 연구절차, 연구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과 보상, 자발적인 참여와 철회의 자유, 비밀보장, 자료보관 및 폐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연구자는 참여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본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IRB에서 승인을 받고 사용한 연구설명문 및 연구참여동의서의 양식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외부자로서 참여관찰자이면서, 동시에 내부자로서 치료사인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주된 이론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이야기치료에서 치료사는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속에서 문제적 이야기와 대안적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잇는 독특한 이야기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치료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교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치료사는 차분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취재기자와 같다(White, 2010: 52-5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연

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유도하지 않았다. 각 회기마다 제시된 주제 안에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미술활동과 이야기활동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기 당일에 기분이나 몸상태가 좋지 않은 참여자들에게는 편안하게 참석하고 일찍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지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하여금 스스로를 심리치료를 받아야하는 내담자로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들이 연구자를 참여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권위자로서 인식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참여자들이 본 프로그램을 심리치료프로그램이라고 학교에서 소개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내담자로 생각하는 참여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단지 미술이 좋아서, 혹은 친구를 따라서, 혹은 선생님의 권유로, 혹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간식이 먹고 싶어서 참여한 학생들이었다. 오히려 참여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라포가 쉽게 형성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통제적이고 인위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날 것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융합치료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방향과 다른 현상이 도출된다 할지라도, 참여자들의 독특한 삶의 정황에서 나오는 자신만의 이야기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고 하였다.

IV. 중도입국청소년의 치료프로그램 회기별 참여경험

1. 연구참여자 A: “휴식이 필요한 내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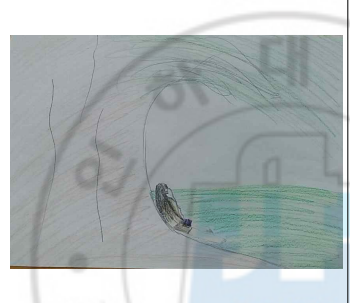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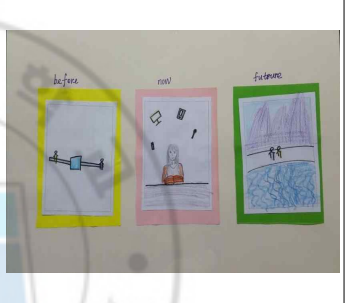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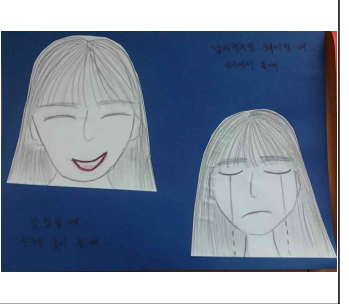
연구참여자 A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미술작품과 이야기를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미술작품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 나타난 연구참여자 A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1>와 같다.

<표 IV-1>과 같이,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A(이하 A)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한족출신이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A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지 3년 정도 되었으며, 현재 한국어로 듣고 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여전히 어려웠다. 학교생활적응도 잘하고 학교선생님들도 자신을 믿어주지만, 피곤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디에서든지,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나의 생활과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친구가 있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 친구들과 헤어져서 마음이 힘들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있었다. 고3이라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고 대학진학을 할 것인지, 일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보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와 같이 A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미술작품을 통해서 표현하였으며,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자신의 문제적인 이야기로서 지치고 고단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휴식에 대한 욕구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표 IV-1〉 연구참여자 A의 초기단계 사례

단계	초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주제	집, 나무, 사람	나와 나무	과거-현재-미래	두 얼굴
제목	꿈	나와 나무	나	나의 기분
미술				
작품 내용	삼림으로 둘러 쌓인 3층집을 표현. 본인은 2층에 걸터앉음.	나무에 기대어 휴식을 취함.	과거의 놀이, 현재의 생활, 미래의 꿈을 묘사	행복하거나 슬픈 기분을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묘사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창한 삼림 안에 있는 집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 · 한국에 거주한지 3년 정도 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에 기대어 노래를 듣는 모습. · 학교 선생님이 자신을 믿어 주고 열쇠를 맡기고 교실 문을 잠그고 가라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친구와 시소놀이를 추억함. · 현재: 고등학교에서 공부함. 일상에서는 노래방가고 컴퓨터, 핸드폰을 함. · 미래: D와 세계여행을 하고 싶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OO역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할 때 행복함. ·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헤어진 남자친구, 가족, 친구들로 인하여 슬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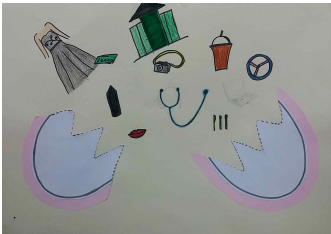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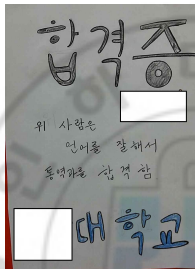

중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A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2>와 같다.

<표 IV-2>와 같이, 중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A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는 초기단계에서 드러내었던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 A가 하고 싶은 직업의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 메이크업 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사진작가, 의사, 요리사 등이었다. 디자이너와 같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직업군의 직업을 선호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커피숍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꿈 목록을 다 펼쳐 보이니 자신의 마음이 가볍고 시원해졌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연구자가 A에게 꿈의 목록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하도록 요청하자, 중국어와 한국어를 둘 다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OO대학교 통역학과에 들어가겠다는 대학입학 합격증을 만들어서 이야기하였다.

중기에서 주목할 이야기는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소개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가족 이야기를 말하였다. A는 현재보다 더 크고 부요한 집, 각종 과일나무로 풍성한 정원이 있는 집을 원하였다. 이 집에서 한국인 아빠는 바베큐 요리로 가족들을 대접하고, 중국인 엄마는 핸드폰을 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네를 타면서 쉬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야기하였다.

부모가 이혼하기 전에 중국인 아빠의 성을 따라 지었던 중국어 이름이 아니라, 현재 한국인 새 아빠의 성을 따라서 지은 한국어 이름에 대하여 만족하면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에 한국에 올 때보다도 힘이 든다고 말하였다. 졸업이 가까워서 준비할 게 많으며, 한국어를 많이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표 IV-2〉 연구참여자 A의 중기단계 사례

단계	중기			
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주제	탄생	상장	집, 나무, 사람	나의 이름
제목	(없음)	(없음)	미래	나의 이름
미술				나의 이름 소개하기 그림
작품 내용	계란에서 태어난 자신의 소원을 묘사함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대학합격증으로 묘사	미래의 가족의 모습을 묘사	자신의 한국 이름을 표현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목록: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 메이크업 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사진작가, 의사, 요리사. · 기타 소원들: 돈 많이 벌기. 그림 잘 그리기. 공부 잘하기. 커피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를 잘해서 OO대학교 통역학과에 들어가고 싶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가족의 집을 묘사으로서 300평이 되는 큰 집. · 정원에 모든 과일이 있는 나무들이 있음. · 아빠는 바비큐요리를 하고, 엄마는 휴대폰을 하면서 쉬고, 본인은 그네를 타고 있음. 이러한 가족의 모습을 꿈꾸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며,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줄 때 기분이 좋음. · 고1때보다 현재의 자신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할게 많고 한국어를 알아야 하는 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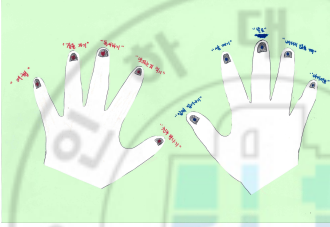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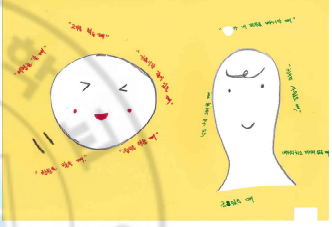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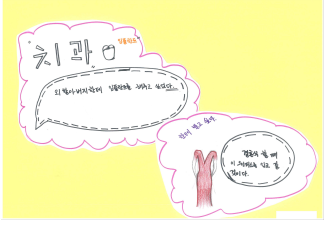
후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A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3>와 같다.

<표 IV-3>과 같이,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A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의 그림에서 그녀는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7, 9회기). 그 이유는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자신을 어려서부터 길러주시고 사랑해준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녀를 타면서 A는 휴식을 얻었다. 회기 도중에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중국에 20여일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A의 마음에는 큰 상실감이 있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서 할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을 미술과 이야기로 표현하였다.

자신의 대학진학을 원하지 않는 엄마와 갈등이 있었지만, A는 중어중문과에 가고 싶은 의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험준비를 하였다. 여전히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서 한국어로 하는 발표가 싫었다. 반면에 여전히 중국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중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위안을 얻었다.

후기단계에서 독특한 이야기는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의 과정에서 중국인 아빠(前父)와 중학교 선생님의 대한 것이었다. 한국에 입국하는 데 필요한 비자 및 여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아빠가 서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 A를 3년 동안 담임선생으로 지도하고 아껴준 중학교 선생님은 아빠를 찾아가 설득하여 서명을 받아내어 자신이 한국에 올 수 있었다. 이 선생님 덕분에 A는 한국에 올 수 있었다면서 중국에 방문하게 되면 선생님에게 만년필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하였다.

〈표 IV-3〉 연구참여자 A의 후기단계 사례

단계	후기			
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주제	나와 나무	손가락	두 얼굴	선물
제목	나와 나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없음)	주고싶은 선물, 받고싶은 선물
미술				
작품 내용	큰 나무 밑에 그네를 타고 있는 A	왼손가락에 좋아하는 것을, 오른손가락에 싫어하는 것을 기술	행복한 조건과 불행한 조건을 묘사함.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선물, D에게 받고 싶은 선물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그네를 어려서 타고 놀았음. 할아버지가 자신을 키워 주었음. · 대학진학에 대하여 엄마와 갈등이 있지만, 중어중문학과에 가고 싶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발표시간이 싫지만, 중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풀림. · 지난 주에 중국에 방문함. 할아버지의 임종과 장례를 경험하고 난 후 마음이 슬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은 여행, 고기, 가족, 칭찬, 요리에서 나옴 · 불행은 D와의 관계, 다른 친구와 갈등, 배고픔 등에서 나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치과진료를 받게 해드리고 싶음. · 한국에 오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음.

연구참여자 A는 12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의 미술작품과 이야기 속에서 공간적으로는 모국인 중국과 정주국인 한국을 오가며,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오고가면서 가족, 친구, 학교생활, 진로, 심리적인 어려움 등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 IV-4>에서는 연구참여자 A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하고 발전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표 IV-4> 연구참여자 A의 이야기의 전개

초기	중기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거주한지 3년 정도 되어 한국어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어가 어려움. · 학교선생님들이 A를 믿어주고 심부름을 시킬 만큼 학교생활적응도 잘하고 있음. 하지만 심리적인 피로함이 있음. · 친구관계가 A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중국을 떠나면서 헤어진 친구들과 남자친구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였음. · 고3으로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대안을 준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가 소망하는 직업의 목록을 제시함. 디자인 계열의 창조적인 직업군을 선호함. · 이중언어의 장점을 살려서 OO대학교 통역학과에 들어가고 싶음. · 가족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함. 현재보다 더 크고 부요한 집, 각종 과일나무로 풍성한 정원. 여유롭고 휴식이 있는 생활을 소망함. · 한국어 이름에 대해서 만족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있지만, 처음에 한국에 올 때보다도 힘이 들고 한국어로 해야 하는 일이 많아 부담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도중에 중국에 있는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방문하였음. 할아버지의 임종과 장례를 지켜보면서 상실감과 슬픔이 있었음. · A를 길러주고 사랑해준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그네로 형상화되고 반복하여 등장함. 그네를 타면서 위로를 받고 휴식을 얻음. · 할아버지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서 선물의 이야기로 승화하였음. · 자신의 한국행을 반대하고 비협조적인 중국인 아빠를 설득하여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중학교 선생에 대한 감사함을 선물로 표현함.

<표 IV-4>와 같이, 프로그램의 초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A는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첫째, 학교에서 의사소통이상으로 갖추어야할 한국어 실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둘째, 학교 교사들과의 좋은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지만, 마음이 지치고 피로한 자신을 발견하였다.

A는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의 뿌리에는 놓인 두 가지 상황을 발견한다. 첫째, 졸업 후의 진로를 목전에 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조급한 상황이다. 둘째, 중국에서 형성된 친구 및 가족 등의 인간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다.

프로그램의 중기단계에서 A는 초기단계에서 드러내었던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다. A가 하고 싶은 직업의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디자인 계열의 직업군을 언급하면서, 당장에 취업할 수 있는 커피숍 운영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목록들 중에서 자신의 이중언어 장점을 살려서 통번역전공과 관련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A는 초기단계에서 학교의 이야기를 하였다면, 중기단계에서 가족의 이야기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A의 가족 이야기는 과거 중국 가족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가족의 이야기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가족의 미래를 이야기하였다.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넓은, 좀 더 휴식과 여유가 있는 미래의 집, 가족 구성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인 새 아빠가 지어준 한국이름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으며, 한국에서 삶에 적응하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A는 한국생활초기보다 지금이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는 졸업 후의 상황에 대한 부담과 한국어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프로그램의 후기단계에서는 A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였다. 첫째, 할아버지의 이야기이다. 프로그램 후기 중에 예상치 못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죽음이었

다. 엄마의 이혼과 한국행 이후에 연구참여자 A를 길러주고 아껴준 할아버지가 프로그램의 후기 중에 중국 H시에서 돌아가셨다. A는 잠시 중국에 머물면서 할아버지의 임종과 장례를 지켜보았다. A의 마음에는 심리적으로 커다란 상실감과 슬픔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A는 할아버지의 A에 대한 사랑의 상징물인 그네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할아버지와 사랑의 추억을 이야기하였다. A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네를 타면서 안식과 위로를 얻었다. 또한 A의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할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에 등장시켰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A는 치아가 온전치 못하셨던 할아버지를 치과에 보내드려서 임플란트 시술을 해드렸을 것이다.

둘째, 중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A는 선물을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인물을 언급하는데, 그 인물은 중국의 중학교 선생님이었다. 중국의 학교특성상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A를 담임지도하면서 A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A가 기숙생활에 필요한 물건도 사다 주는 등 도움을 많이 주었다. 특별히 선생님이 A가 한국에 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A의 한국행에 필요한 비자 및 여권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국인 아빠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 선생님은 A의 아빠를 찾아가서 설득하여 서명을 받아내 주었다. 그러므로 A에게 선생님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만년필은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상징이었다.

또한 후기단계에서는 엄마가 A의 대학진학을 지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는 자신의 대학진학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야기하였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으로서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에 대한 발표 스트레스와 더불어, 모국어인 중국어로 책을 읽을 때 받는 위로를 이야기하였다. A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그것에 대한 대안을 동시에 대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전시켰다.

2. 연구참여자 B: “정체성이 흔들리는 내담자”

연구참여자 B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미술작품과 이야기를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미술작품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 나타난 연구참여자 B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5>와 같다.

<표 IV-5>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B(이하 B)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중동포 출신이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는 모국인 중국을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먼저 중국 S 시에 있는 시골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집이었다. B의 부모는 한국으로 일하러 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린시절 B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은 한국에 없어서 B는 그림고 보고 싶었다. 이 시골집에는 자두나무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은 나무였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건물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 집과 나무는 사라지게 되었다. 시골집과 자두나무는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는 추억의 장소로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B는 모국의 터전이 상실되어 착잡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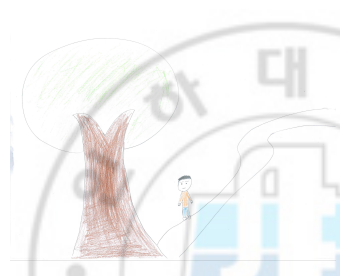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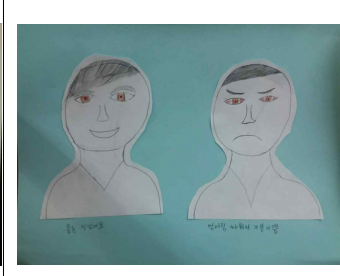
B의 이야기는 점점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확장되었다. 과거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났다. B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B가 밖에서 놀다가 다칠까봐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B를 아꼈다. B는 과거에 중국의 집안에서 갇혀 TV를 보는 폐쇄적인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였다. 심지어 과거를 묘사한 그림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없었으며, TV와 TV앞에 있는 앉은 자리만이 놓여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의 공간은 한국으로 이동하였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과거의 집이라는 폐쇄적인 공간보다는 확장된 영역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였다. 그림에서 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큼직하게 자리하였다. 과거와 달리, 현재 고등학생으로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B는 무대에서 혼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B는 자신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상남자’ 라는 곡을 1년 동안 춤연습을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B의 이야기 속에서 삶의 외연이 확장되어 가고 자신의 모습이 점점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B는 한편으로는 “미래가 자신의 생각처럼 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B에게 있어서 행복한 마음과 불행한 마음은 주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엄마가 용돈을 주거나, 학용품이나 옷을 사주는 경제적인 부분을 챙겨줄 때는 마음이 좋았다. 하지만 엄마가 B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엄마와 갈등이 발생할 때, 슬픈 마음이 들었다. B에게 추억과 사랑의 대상인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달리, 엄마는 B에게 현재 애증의 대상이었다. B는 연구자에게 엄마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단계에서 B는 자신의 존재의 뿌리인 중국의 시골집과 사랑의 젖줄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B는 과거의 추억에 머물지 않고 점점 자신의 삶의 공간과 인간관계를 확대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전시키는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 엄마와의 불안한 관계를 이야기 하였다.

〈표 IV-5〉 연구참여자 B의 초기단계 사례

단계	초기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주제	집, 나무, 사람	나와 나무	과거-현재-미래	두 얼굴
제목	(없음)	어렸을 때의 친구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얼굴
미술				
작품 내용	중국의 시골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모습을 묘사.	집 앞에 있는 자두나무를 묘사	과거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의 생활, 현재의 고등학교 생활, 미래의 아이돌스타로서의 꿈을 묘사.	기쁘거나 슬픈 기분을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묘사.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S 시의 시골집을 추억함. • 부모는 한국으로 먼저 간 상황이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슬하에서 성장하였음. •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무 하나를 심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시골에 있는 자두나무를 추억함. • 현재 시골집과 함께 사라짐. • 이제는 없어진 시골집과 나무를 생각하니 아쉽고 착잡한 마음이 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나,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TV를 주로 보았음. • 현재 G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음. • 미래는 아이돌가수가 되어서 무대에서 춤과 노래를 하고 싶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할 때는 엄마로부터 용돈을 얻었을 때임. • 슬픈 때는 엄마랑 싸웠을 때임. 엄마와 대화가 잘 되지 않음.

중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B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6>와 같다.

<표 IV-6>과 같이, 중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B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는 초기단계에서 드러내었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에 관한 것이었다. B가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아이돌 가수로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었다. 그것은 향수, 아이폰, 춤을 출 때 입는 상의, 하의, 신발이었다. 또한 자신의 꿈이 실현된 상징으로서 개인CD 앨범을 언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에 연극영화과가 있다고 B에게 소개하였다. B는 OO대학교의 연극영화과 입학합격증을 만들어서, 아이돌로서 준비하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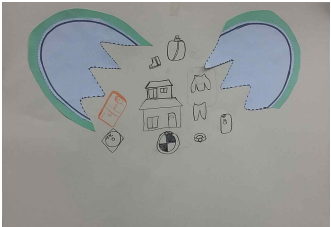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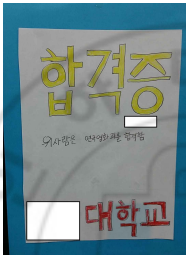

중기에서 주목할 이야기는 B의 집, 즉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초기 단계에서 B의 집은 과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중국의 시골집이었다. 하지만 중기단계에서 B의 집은 지금 여기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한국의 집으로 시간과 공간이 전환하였다. B는 한국에 처음 왔던 날짜, 공간적 배치, 부모의 행동을 생생히 기억할 만큼 강한 인상을 받았다. B의 부모는 일을 하러 먼저 한국에 나와 있었으며, B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B를 길러주었다. 그러므로 부모와 완전히 결합하기까지 부모와 헤어지고 분리된 상당한 시간을 보냈으며, B는 한국의 부모와 중국의 조부모 사이를 오고 가야했다. B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한국에 방문하였으며,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한 달을 한국에 체류하였다. 그리고 2년 전에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비로소 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완전한 결합은 잦은 헤어짐과 오랜 기다림 다음에 온 것이므로 B에게는 의미있는 이야기이었다. 초기에 B가 언급한 엄마와의 애증의 관계의 원인이 중기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가 풀리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B와 B의 부모가 서로를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그 만큼 적었던 것이다.

중기에서 B는 자신의 이름이 지어진 흥미로운 배경을 소개하면서 자신

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B의 이름은 할아버지의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었다. 할아버지는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태어나기 전 날에 꿈에서 하나님이 2개의 이름을 지어 주셨다. 첫째 이름은 하늘의 뜻을 따르라는 뜻이고, 둘째 이름도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두 이름 모두 평범하지 않은 이름이었다. B는 하나님이 모셔온 자식이니 잘 키우라는 의미로 할아버지는 받아들이고, B를 애지중지 키웠다. 심지어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귀하게 대하였다. 이런 점에서 B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높았다. B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습관처럼 사용하였지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B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존귀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밖에서 함부로 살지 말아야겠다는 윤리의식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할아버지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B는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정체성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집안의 뿌리가 경상북도 D 시에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B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D 시에서 중국 S 시로 이주하였다. 그러므로 B는 중국 S 시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으며, 현재 국적은 중국이지만, 자신의 성(姓)은 한국에서 온 이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표 IV-6> 연구참여자 B의 중기단계 사례

단계	중기			
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주제	탄생	상장	집, 나무, 사람	나의 이름
제목	(없음)	(없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없음)
미술				나의 이름 소개하기 그림
작품 내용	계란에서 태어난한 자신의 소원을 묘사함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대학합격증으로 묘사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상황을 묘사	자신의 한국 이름을 표현
이야기의 주요내용	· 원하는 것의 목록: 향수, 집, 차, 반지, 아이폰, 출출 때 입는 옷, 자신이 발표한 개인 CD 앨범.	· OO대학교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아이돌로서 준비함.	· 한국에 처음 입국한 날짜를 기억하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할 정도로 기억함. · 부모가 먼저 한국에 오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슬하에서 성장하였으며, 부모와 완전히 결합하기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감.	· B의 이름은 할아버지가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임. · 할아버지가 집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귀하게 키웠음. · B의 뿌리는 경북 D 시임. · 자신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함.

후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B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7>와 같다.

<표 IV-7>과 같이,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B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는 다시 과거로 돌아왔다. 어릴 적에 보았던, 같이 있어서 익숙하고 편안한 나무의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나무를 보는 관점이 변하였다. 초기에는 어렸을 적 친구가 되어 준 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서 착잡한 마음이었지만, 후기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혼자서 그네를 타면서 친구를 기다리는 마음에 조급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다. B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발전시켰다. 한국의 학교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B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든 나눌 수 있는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 자신의 말을 들어준 친구,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친구에 대하여 좋은 친구들을 말하였다. 다시 말해서, B는 같은 나무라는 소재로 이야기를 할 때, 초기에는 모국인 중국에 대한 추억과 감상에 머물렀지만, 후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여기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관점을 이동하였다.

이와 같은 B의 관점의 변화는 두 얼굴이라는 주제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 초기에 그린 자신의 기쁜 얼굴과 슬픈 얼굴을 통해서 엄마와의 애증의 관계가 그러한 기분을 좌우하는 주된 원인이었다. 하지만 후기에는 자신의 두 얼굴의 주된 원인이 엄마와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여전히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힘들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엄마는 멀리 명동에서 일을 하였다. 집에 들어가면 항상 혼자만 있었다. 후기의 B는 엄마 때문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서 기쁘거나 슬펐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중기단계에서 엄마와의 애증의 관계가 B의 가족의 한국이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B는 부모의 20주년 결혼기념 선물로서 필리핀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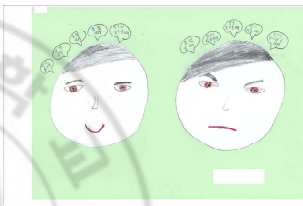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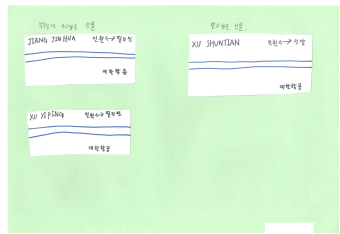
항공권을 드리고 싶어 하였다. B는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뵙고 싶은 마음을 중국 S 시행 항공권으로 표현하였다.

후기에 들어오면서 B의 이야기는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변화되었다. B는 아이돌 스타가 되는 것이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좁은 문이라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차선의 전략을 모색하였다. 아이돌 오디션에 떨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어학시험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을 고려하였다. 아이돌 연습생으로 고생하는 중국인 친구들의 상황과 아빠가 일하는 공장의 일을 고려해 보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후기단계에서 B의 이야기는 문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초기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이야기를 모색하고 있다.



〈표 IV-7〉 연구참여자 B의 후기단계 사례

단계	후기			
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주제	나와 나무	손가락	두 얼굴	선물
제목	(없음)	무지개 손	두 마음	부모님께 주고 싶은 선물
미술				
작품 내용	어릴 때부터 보던 나무를 묘사	장점과 단점이 어우러져서 무지개같은 색의 자신의 정체성을 손으로 묘사	기쁜 상황과 화난 상황을 얼굴로 묘사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과 부모님께 받고 싶은 선물을 항공권으로 묘사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때부터 보던 익숙하고 편안한 나무임. · 나무에서 그네를 타면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음악, 춤, 기타, 요리배우는 것을 좋아함. · 단점: 처음하는 일에 용기가 부족함. 늦잠. 아침밥을 거름. 편식을 함. 이러한 단점들을 없애려고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은 밥을 먹을 때, 잠잘 때, 돈 쓸 때, 춤출 때, 친구와 놀러 갈 때 있음. · 불행은 돈 없을 때, 집에 갔을 때, 일찍 일어났을 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결혼 20주년을 맞아서 필리핀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음. · 중국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할아버지를 방문하고 싶음. · 부모가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연구참여자 B는 12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에 나타난 이야기는 공간적으로는 모국인 중국에서 정주국인 한국으로 이동하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이동한다. 부모, 할아버지와 할머니, 친구와의 관계, 이름에 얽힌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방식, 진로 등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다음 <표 IV-8>에서는 연구참여자 B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하고 발전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IV-8> 연구참여자 B의 이야기의 전개

초기	중기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중국의 고향집과 나무가 그림지만, 더 이상 볼 수 없음. · 나를 길러 주신 조부모. · 현재의 고등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나 · 미래의 아이돌 가수로서 꿈의 무대 · B의 기분이 엄마와 관계에 따라서 좌지우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꿈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 목록, 구체적인 준비 계획이 있음. · 가족의 이주과정 속에서 부모와의 오랜 헤어짐과 만남이 반복됨. · 조부가 꿈에서 받은 B의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학교 친구들이 있음. · 결혼기념일 선물로 부모에게 필리핀항공권을 드리고 싶음. · 중국에 있는 조부모를 방문하고 싶음. · 미래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모색.

<표 IV-8>과 같이, 초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B는 중국에 대한 추억의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B의 정체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시골집과 친구와 같은 자두나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없어서 상실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B의 이야기는 점점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확장된다. B에

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국에 일하러 나와 있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을 길러준 고마운 분이였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폐쇄적이고 과잉보호적인 양육으로 인하여 집 안에서 TV만 보고 있으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고등학생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꿈의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다.

B는 자신의 기분이 엄마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졌다. B에게 추억과 사랑의 대상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는 달리, 엄마는 B에게 현재 애증의 관계였다. B는 연구자에게 엄마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표현하였다. B는 “미래가 자신의 생각처럼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초기단계에서 B는 자신의 존재의 뿌리인 중국의 시골집과 사랑의 젖줄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B는 과거의 추억에 머물지 않고 점점 자신의 삶의 공간과 인간관계를 확대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전시키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꿈에 대한 의문과 현재 엄마와의 불안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B의 이야기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B는 초기단계에서 드러내었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있다. B는 아이돌 가수로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목록을 제시하였다. 자신의 꿈이 실현된 상징으로서 개인CD 앨범을 언급하고, 꿈을 향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OO대학교의 연극영화과 입학합격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였다.

둘째, B의 집에 대한 이야기, 즉 가족의 이주에 대한 이야기이다. 초기에 B가 언급한 엄마와의 애증의 관계의 원인이 중기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B의 부모는 일을 하러 먼저 한국에 나와 있었으며, B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B를 길러주었다. 그러므로 부모와 완전히

결합하기까지 부모와 헤어져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으며, B는 최근에야 부모와 결합하였다. B의 성장기에 B와 B의 부모가 서로를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적었다.

셋째, B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이다. B는 자신의 이름이 지어진 흥미로운 배경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할아버지가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감으로 연결되고,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한다는 윤리의식으로 발전한다. 또한 B는 자신의 성(姓)이 경상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조상들로부터 왔음을 확인한다.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B의 이야기는 초기-중기에서 나타난 동일한 소재를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심화·발전시키고 있다. 과거의 감상과 추억에 머물지 않고, 지금-여기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단계에서 드러난 갈등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한 이야기를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나무의 이야기이다. B는 다시 어린 시절의 나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나무는 자신의 터전이 사라져버려서 씩씩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게 하는 나무가 아니었다. B는 이제 이 나무에서 쉬다가 친구를 만난다. 나무는 친구를 만나는 장소로 바뀐다. 그 친구들은 B의 한국학교생활에 도움을 준 친구들이었다.

둘째, 엄마의 이야기이다. 초기 단계에 엄마와의 애증의 관계가 중기 단계에서 가족의 이주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드러내고 후기 단계에서는 엄마를 이해하고 부모로부터 오는 섭섭함이 완화된다. B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 부모의 상황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으며, 부모에 대한 섭섭함을 일상생활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서, 부모를 효도하는 생각으로 발전시켰다. 부모의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필리핀에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은 아들로서 이야기를 말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방문하고 위로하는 손자로서 이야기를 말하였다.

셋째, 미래의 이야기이다. 초기-중기에서 계속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 자신의 꿈인 아이돌 가수가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차선의 전략을 세워갔다. 어학시험을 통해 대학을 진학하고 회사에 다닐 생각을 하고, 아빠가 하는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한 고민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B는 실현가능한,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를 찾고 있다.



3. 연구참여자 C: “엄마의 빈자리가 있는 내담자”

연구참여자 C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미술작품내용과 이야기내용을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미술작품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 나타난 연구참여자 C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9>와 같다.

<표 IV-9>와 같이,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C(이하 C)의 이야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와 살고 있는 집을 말하였다. 아빠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뿐만 아니라 C는 아빠와 함께 중국의 놀이공원에 놀러 간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엄마의 존재는 C의 이야기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C의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아빠에서 남자친구로 이동한다. C는 프로그램의 초기에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음을 집단원들과 연구자에게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집단원들도 처음으로 안 사실이 라면서 놀라워하였다. C는 미술작품과 이야기에서 남자친구를 공개하면서 표정이 밝아졌다.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를 공개한 이후부터 외모에 신경을 쓰고 예뻐지려는 변화가 있었다. C는 현재 남자친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남자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C는 엄마의 부재를 남자친구로 대체하면서, 아빠의 존재감은 축소된다.

C는 서울 명동에 가서 여동생 친구와 놀았던 기억이 즐거웠다고 말하였다. 특히 한국인 남자 연예인 OOO를 좋아하고, 이와 관련된 상품을 사는 것을 좋아하였다. C의 평소의 행동은 느리고 성격은 낙천적이라서 걱정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할 만한 미래에 대한 꿈과 구체적인 준비와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현재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았다. 평소에 애니메이션을 그릴 정도로 미술을 좋아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표 IV-9〉 연구참여자 C의 초기단계 사례

단계	초기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주제	집, 나무, 사람	나와 나무	과거-현재-미래	두 얼굴
제목	작은 씨앗	사과나무하고 나	나의 과거와 미래	나의 마음
미술				
작품 내용	아빠하고 살고 있는 집과 씨앗에 물을 주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	커다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먹는 모습을 묘사	과거의 놀이, 현재의 남자친구, 미래의 꿈을 묘사	즐거웠던 장면, 슬펐던 장면을 묘사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는 다른 가족이 없이 아빠와 산다. · 매우 커다란 우리 집 · 작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큰 나무가 될 것을 소망함. · 중국의 놀이공원에 아빠와 놀러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는 커다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먹음. · 사과나무를 감싸고 있는 담쟁이 넝쿨과 사과나무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 · 나무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고무줄놀이를 했음. · 현재: 남자친구와 함께함. · 미래: 남자친구와 지우개 도장을 만들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동생 친구와 서울 명동에 나가서 놀았을 때 행복하였음. · 연예인 000를 좋아하여 관련 상품을 샀음. · 인형뽑기를 잘 하지 못해서 슬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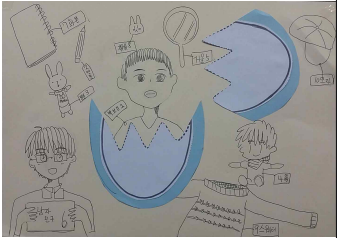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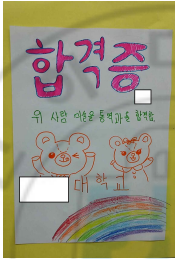

중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C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10>와 같다.

<표 IV-10>과 같이, 중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C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C는 초기 단계처럼 남자친구와 한국인 남자 연예인 OOO를 중심인물로 이야기하였다. C는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 이외에 고모, 오빠, 할머니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가족의 앞에서 가족의 사진을 찍는 사진사는 바로 남자친구이었다. C는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아빠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였다. 자신의 핸드폰으로 아빠가 사진을 보지 못하도록 숨겨놓았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존재는 C의 이야기에서 점점 중심적인 인물로 부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연애대상인 연예인 OOO도 중심인물이었다.

C의 생활에서 미술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평소에도 만화를 습작하고 자신의 작품은 SNS에 공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오는 이유도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C는 미술용품인 연필, 지우개, 필통, 스케치북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C는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진로와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미술학과가 있는 인근의 대학교를 소개하면서, C가 자신의 재능을 진학에 연결시켜 보는 시간을 주었다. C는 미술학과의 대학입학증을 만들어서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중기의 C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가족구성원의 변화이었다. 초기에 아빠만 있던 집은 고모, 오빠, 할머니로 가족이 확장되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중국 산둥에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는 존재하지 않았다. 엄마의 자리에 고모와 할머니가 있었다. 특히 고모는 자신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C에게 의미가 있는 인물이었다.

C의 행동을 살펴보면, C는 평소에 자신 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 프로그램의 집단원인 연구참여자들, 특히 중국계 연구참여자들과도 프로그램 중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C의 사고나 행동이 같은 연령대의 고등학생들보다 어려 보였다.

〈표 IV-10〉 연구참여자 C의 중기단계 사례

단계	중기			
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주제	탄생	상장	집, 나무, 사람	나의 이름
제목	(없음)	(없음)	숨바꼭질	(없음)
미술				<p>나의 이름 소개하기 그림</p>
작품 내용	<p>C가 필요로 하는 물품, 사람의 목록을 묘사</p>	<p>C의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과 대학을 입학합격증으로 묘사</p>	<p>고층아파트에서 사는 가족들을 묘사</p>	<p>자신의 이름을 과자와 물고기의 모양을 가지고 묘사</p>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을 하는데 필요한 미술 용품들을 가지고 싶음. · 연예인 000이 좋아함 · 남자친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을 하는데 흥미가 있어서, 00대학교 미술학과에 대한 관심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아파트에 사는 가족은 아빠, 고모, 오빠, 나, 할머니임. · 가족들의 사진을 찍는 사진사는 남자친구임. · 중국에 가고 싶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모가 이름을 지어줌. · 과자와 물고기 모양을 사용하여 이름을 묘사함

후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C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11>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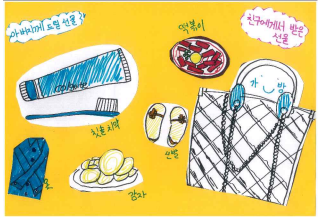
<표 IV-11>과 같이,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C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기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C가 처음으로 엄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C는 엄마와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엄마가 해준 요리가 맛있었다고 말하였다. 현실적으로 아빠와 살지만, 엄마의 빈 자리를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를 언급하였다.

C는 중기의 어느 날 자신의 애니메이션 그림을 공유하는 중국인 초등 학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친구 역시 그림을 좋아하였다. 친구는 현재 이탈리아에 거주하였지만, 방학 때 중국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C는 친구의 중국집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로 보내려고 하였다. C는 미술이라는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C는 초기와 같이 다시 새싹에 물을 주고 있는 자신을 이야기한다. 아직은 한국생활적응이 서툴고 한국어도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였다. 하지만 C는 항상 무엇인가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묘사하면서, 자신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를 표현하였다.

C는 초기와 같이 다시 아빠에게 초점을 둔다. 아빠에게 드릴 선물의 목록을 이야기하였다. 평소에 이를 닦지 않는 아빠, 감자를 좋아하는 아빠, 작업복만 아빠를 위해서 치약과 칫솔, 감자요리, 외출복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 하였다. C는 아빠가 건축관련 공사일을 하셔서 시력이 나쁘다고 하면서 안경을 사드리고 싶어 하였다. C의 이야기는 여전히 아빠의 울타리에 있으며, 아빠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C는 아빠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고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꿈꾸는 이야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표 IV-11> 연구참여자 C의 후기단계 사례

단계	후기			
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주제	나와 나무	손가락	두 얼굴	선물
제목	(없음)	좋아 싫어	(없음)	선물
미술				
작품 내용	새싹에 물을 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	왼손가락에 좋아하는 것을, 오른손가락에 싫어하는 것을 기술	행복의 조건, 불행의 조건을 묘사	아빠에게 드릴 선물과 친구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묘사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싹에 물을 주고 있음 · 중국에서 가고 싶어함.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 아빠와 살지만, 엄마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것: 그림, 카레, 노란색, 점심식사, 감자칩 · 싫어하는 것: 요리, 아침밥과 저녁밥, 지각하는 자신, 목욕, 우유 · 아빠가 요리를 해주지만, 엄마가 해준 요리가 맛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은 빙수, 달리기, 기타, 이야기에서 나옴. · 불행은 일을 망침, 오지 않는 친구, 넘어짐, 울음, 과식에서 나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은 치약/치솔 세트, 감자요리, 외출복임. · 친구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떡볶이, 가방, 신발

연구참여자 C는 12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의 미술작품과 이야기 속에서 엄마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 가는지를 보여준다. 다음의 <표 IV-12>에서는 연구참여자 C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하고 발전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IV-12> 연구참여자 C의 이야기의 전개

초기	중기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아빠와 살고 있음. · 남자친구와 이성교제, 마음속의 남자친구인 연예인 O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고모와 할머니. ·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남자친구. ·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를 비로소 언급함. 엄마가 해준 맛있는 요리가 그리움. · 그림을 공유하는 초등학교 친구 · 새싹을 키우는 자신 · 아빠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 엄마의 존재는 C의 이야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C는 아빠와 거주하고 아빠와 노는 가족 관계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C의 이야기에서 중심인물이 남자친구로 이동한다. C는 이 프로그램에서 남자친구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C는 현재 남자친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남자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와 함께 C는 한국인 남자 연예인 OOO를 좋아하고, 이와 관련된 화장품, 문구류 등의 상품을 사는 것을 기뻐하였다. 엄마의 부재를 남자친구로 대체하면서, C에게 아빠의 존재감이 점점 축소된다.

중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C는 초기 단계처럼 계속하여 남자친구와 한국인 남자 연예인 OOO를 중심인물로 이야기하였다. 중기의 이야기에서

는 남자친구를 가족의 전면에 데려다 놓았지만, 현실적으로는 C의 아빠도 C의 남자친구의 존재를 모를 만큼 C는 은밀하게 교제를 하였다. C의 이야기에서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생겼다. 아빠, 고모, 오빠, 할머니로 구성된 가족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여전히 엄마는 존재하지 않으며, 엄마의 자리에 고모와 할머니가 있었다.

C의 생활에서 미술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신의 관심사이며, 취미이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통로였다. 미술용품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와 관련된 전공학과와 대학을 탐색하였다.

후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 C는 처음으로 엄마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C는 엄마와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엄마가 해준 요리가 맛있었다고 말하였다. C는 엄마의 빈 자리를 인식한다.

C는 다시 초기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다시 새싹에 물을 주는 모습으로, 다시 아빠에 대한 초점으로 돌아왔다. C는 새싹처럼 성장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 C는 혼자서 있는 아빠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아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노력하였다.

C는 자신이 그린 미술작품을 중국의 초등학교 친구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4. 연구참여자 D: “갈 길을 모르는 내담자”

연구참여자 D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미술작품내용과 이야기내용을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미술작품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 나타난 연구참여자 D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13>와 같다.

<표 IV-13>과 같이,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D(이하 D)의 이야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 D는 자신의 가족을 소개한다. 가족구성원은 자신, 엄마, 언니, 오빠라고 소개하였다. 한국어가 편하지 않았는데, 연구자와 영어로 말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쉬어졌다고 참여소감을 말했다.

2회기에서 B국의 사과나무를 묘사하고 이야기하였다. 나무 옆에 길이 있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망하였다. D는 이 그림과 이야기에 대해서 ‘거리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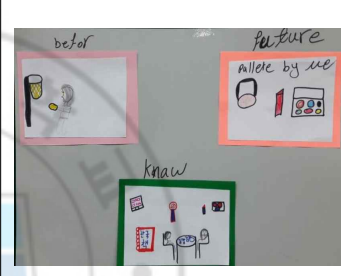

3회기에서 D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과 이야기로 표현하였는데, D는 ‘나’라고 제목을 붙였다. 과거의 모습은 2012년에 농구를 좋아하던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2012년 이전의 삶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였다. D는 1999년에 A국에서 태어났지만, 2006년 이후에 아빠의 직업을 따라서 가족이 B국으로 이주하였고, 자신은 B국의 학교를 다녔다. 현재의 모습에서 D는 연구참여자 A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상을 함께한다고 이야기하였다. D는 연구참여자 A와 매일 점심을 먹고, 간식을 먹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노래방에도 가고, 컴퓨터를 하고, 화장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D의 SNS의 주요사진들은 연구참여자 A와 찍은 사진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었다. 미래의 모습에서 D는 자신의 이름을 따온 화장품을 만들고 싶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4회기에서 D는 자신의 양면적인 감정을 ‘내가 매일 느낄 때’라고

제목을 붙였으며,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자신이 행복할 때는 친구와 쇼핑을 하러갈 때였다. 하지만, 자신이 불행할 때는 가족이 그리울 때였다. 한국에 친가족이 없지만, 할머니계의 가족들이 한국에 있으며, 방학마다 C시에서 가족들을 만나며, 매일 엄마랑 통화하면서 그리움을 해소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표 IV-13〉 연구참여자 D의 초기단계 사례

단계	초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주제	집, 나무, 사람	나와 나무	과거-현재-미래	두 얼굴
제목	(없음)	거리에 있는 유일한 사람	(없음)	매일 내가 느낄 때
미술				
작품 내용	가족구성원을 소개함	B국의 사과나무를 묘사	과거의 놀이, 현재의 생활, 미래의 꿈을 묘사	즐거웠던 장면, 슬펐던 장면을 묘사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를 좋아하는 D. · 가족은 나, 엄마, 언니, 오빠임.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영어로 말하는 게 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국의 나무를 소개함 · 나무 옆에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국에서 태어났고, 아빠의 직장을 따라서 B국에 살았음. · 과거: 농구를 좋아했음. · 현재: A와 매일 일상생활을 함께함. · 미래: D의 이름을 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 친구와 쇼핑하러 갈 때 임. · 불행: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한국에 할머니 쪽 가족들이 있음. 여름과 겨울 방학에는 C시에 방문함. 매일 엄마랑 통화함.

중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D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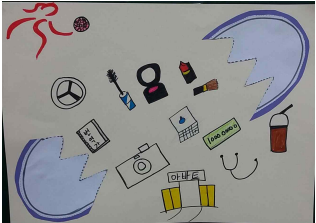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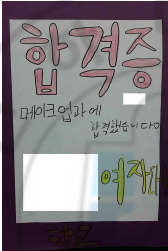

<표 IV-14>와 같이, 중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D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회기에서 D는 계란에서 태어난 자신의 소원을 묘사하였다. D가 하고 싶은 직업의 목록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진사, 번역가, 의사, 디자이너 등이었다. D가 받고 싶은 물건의 목록은 자동차, 농구공, 카메라, 카페, 아파트, 돈 등이었다.

6회기에서 D는 자신의 전공을 메이크업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대학 합격증으로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메이크업 학과가 있는 인근의 대학교에 대해서 말해주었으며, D는 학교와 전공의 이름을 넣어서 대학합격증을 그림으로 그리고 집단원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7회기에서 1회기와 동일한 주제인 집-나무-사람을 이야기하였다. D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집에 있는 사람을 오빠라고 이야기한 점이다. 자신의 배우자이자 동거인의 존재를 비로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D는 오빠가 자신을 지켜보며 자신과 함께 오고 싶어 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였다. D는 ‘The Life’ 라고 제목을 붙였다.

8회기에서 D는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였다. D는 한국어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아랍어 이름을 한글, 영어, 아랍어로 나란히 배열하였다.

<표 IV-14> 연구참여자 D의 중기단계 사례

단계	중기			
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주제	탄생	상장	집, 나무, 사람	나의 이름
제목	(없음)	(없음)	The Life	(없음)
미술				<p>나의 이름 소개하기 그림</p>
작품 내용	계란에서 태어난 자신의 소원을 묘사	자신의 적성과 꿈을 전공과 대학으로 구체적으로 묘사	집에 있는 오빠	이름의 의미와 지어준 사람, 상징을 소개함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고 싶은 일은 메이크업, 포토그래퍼, 번역가, 의사, 디자이너임 · 받고 싶은 것은 자동차, 농구, 카메라, 카페, 아파트, 컴퓨터, 돈임 · 발표에 대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에 화장에 관심이 많음. OO여자대학교 메이크업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 있는 오빠와 나를 이야기함. · 오빠가 자신을 지켜봄. 자신이 있는 곳에 오고 싶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과 이름을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이야기함.

후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D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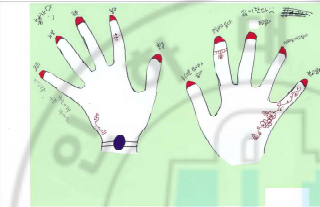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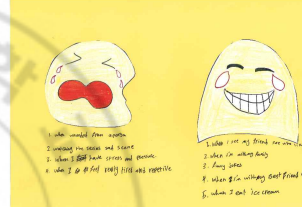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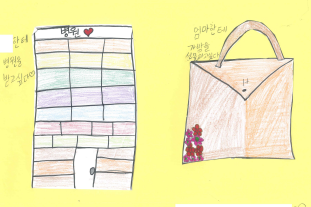
<표 IV-15>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D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회기에서 D는 1회기와 동일한 주제로 나와 나무를 그림으로 묘사하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의 그림과 이야기를 ‘나의 나무’ 라고 제목을 붙였다. 숲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 위에 관광객들이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없다고 말하였다.

10회기에서 D는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의 목록을 양손가락에 각각 형상화하고 이야기하였다. D는 모국과 관련된 요리, 여행과 한국에서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하지만, D는 휴대전화로 수다를 떠는 것과 학교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였다. A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좋아하지만, D는 학교생활에 흥미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1회기에서 D는 자신의 기쁨과 슬픔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D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할 때 행복하였다.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예민하였다.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압박은 자신이 과거에 다닌 학교와 다르게 크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D는 반복적으로 모국에 있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D에게 부모는 자신의 ‘인생’ 과 같으며, 특히 엄마는 자신의 ‘심장’ 과 같으며, D는 부모와의 깊은 애정의 관계를 이야기하였다.

12회기에서 D는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과 받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D는 엄마에게 화장품과 가방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였다. D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고 싶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피부과 병원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였다. 이 병원에서 마사지와 레이저 수술까지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피부과 병원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표 IV-15〉 연구참여자 D의 후기단계 사례

단계	후기			
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주제	나와 나무	손가락	두 얼굴	선물
제목	나의 나무	(없음)	(없음)	(없음)
미술				
작품 내용	<p>숲 속 한가운데 오솔길에 걸 어가는 사람들</p>	<p>왼손가락에 좋아하는 것을, 오른손가락에 싫어하는 것을 묘사</p>	<p>행복의 조건, 불행의 조건을 묘사</p>	<p>받고 싶은 선물, 엄마에게 주고 싶은 선물</p>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국 의 집과 가족 · B국 의 사과나무 · 엄마의 요리. 엄마가 그림. · 라마단기간에 B국 방문계획 · 둘째 언니 결혼식에 방문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것: B국 요리, 치킨 수프, 화장, 공부, 노는 것, 친구, 운동, B국 방문, 제 주도여행 · 싫어하는 것: 휴대전화로 말을 많이하기, 학교. · 가족구성원과 새언니의 임신 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 친구의 연애를 지켜 봄. 가족과 함께 있음. 농담. 베스트 프렌드 A와 함께함. · 슬픔: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 피곤하고 지루한 일이 반복됨. · B국의 부모에 대한 그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에게 화장품, 가방을 선물로 주고 싶음. · 자신에게 주고 선물로 피부과 병원을 받고 싶음. 피부과에서 마사지와 레이저 시술을 하고 싶음. 한국에서 의사를 하고 싶음.

연구참여자 D는 12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의 미술작품과 이야기에서 A국에서 B국으로 이주한 이민자의 딸로서, 부모가 없이 다시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었다. D는 배우자이자 동거인에 대한 존재를 숨기고 가면을 써야하지만,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감정과 생각들을 프로그램에서 드러내었다.

다음의 <표 IV-16>에서는 연구참여자 D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하고 발전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표 IV-16> 연구참여자 D의 이야기의 전개

초기	중기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국에 이주한 이민자로서의 경험이 있음. · 일상을 함께하는 절친한 A가 있음. · 모국에 있는 부모가 그리운다고 호소함. · 자신의 이름을 딴 메이크업제품을 만들고 싶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구체적인 학과와 전공으로 이야기를 말함. · 동거인이며 배우자인 오빠의 존재를 언급함. · 자신의 아랍어이름을 3개의 언어로 표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을 걷지만,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음. ·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는 학교생활 · 자신의 인생이며 심장과 같은 부모가 늘 그리움. · 엄마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 내가 자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음.

<표 I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 D는 자신이 이야기하기 편한 언어인 영어로 연구자와 대화를 하였으며, 자신의 가족, 이주,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술하였다. D는 A국에서 태어나서 아빠의 직업을 따라서 B국으로 이주를 한 이민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으로 이주할 때는 D의 부모와 함께 이주하지

않았다. 초기 단계에서 D는 한국에서의 가족구성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D는 가족을 엄마, 언니, 오빠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D는 한국에 온지 3년이 되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학교 안팎으로 연구참여자 A와 친밀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A는 친구와 함께하면 행복하지만, 가족이 같이 없어서 매일 그립고 슬프다는 호소를 하였다. 자신의 미래계획에 대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직업으로 삼아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중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D는 초기에서 언급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전시켰다. D는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에 자신의 전공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여서, 연구자는 인근의 대학에 개설된 학과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었다. D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학과명과 대학명을 기술하고 합격증을 만들어서 발표하였다. D는 자신의 배우자이자 동거인의 존재를 비로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집에 있는 사람으로서 D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D는 분명하게 오빠가 자신의 배우자이며 동거인이라는 것을 연구자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오빠가 D와 가까운 관계임을 은연중에 언급하였다. 하지만 D는 오빠의 존재를 숨기고 그 이상의 이야기하려하지 않았다. D는 아랍어 이름을 한글, 영어, 아랍어의 3개 언어로 표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후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 D는 초기와 달리 자신의 존재감이 없는 길의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초기로 부터 후기까지 D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점점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한국에 A를 비롯한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하지만, D는 자신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압박가운데 있다고 자신의 심리를 이야기하였다. 또한 B국에 있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 반복되었다. D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엄마에 드리고 싶은 선물로 표현하며, 꿈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자기에게 주고 싶은 선물로 표현하였다.

5. 연구참여자 E: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내담자”

연구참여자 E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미술작품내용과 이야기내용을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미술작품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 나타난 연구참여자 E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17>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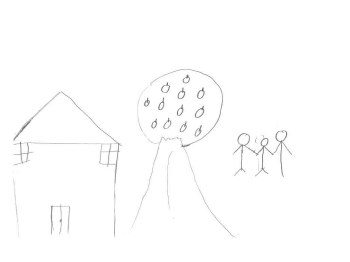



<표 IV-17>과 같이,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E(이하 E)의 이야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 E는 자신의 가족을 이야기하였다. 공간적 배경은 베트남의 집이었다. 베트남에서의 가족구성원은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었다. 가족의 손을 잡고 공원에 간다고 말하였다.

2회기에서 나무만 그리고 사람은 그리지 않았다. E는 사람을 그리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E는 사람을 단순한 선으로 묘사하는 수준으로 그림을 그렸다.

3회기에서 E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OO(E의 베트남어 이름)’라고 이름을 붙였다. 연구자가 3회기 미술활동의 도입부에서 한국의 전통놀이인 팔방놀이에 대해서 말하였다. E도 역시 자신의 과거 모습을 친구와 팔방놀이를 하는 자신을 묘사하였다. 현재의 모습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으로 말하였다. 미래의 모습은 베트남 남자친구와 노는 장면을 묘사하고 이야기하였다. 남자친구는 현재 베트남에 있지만, 한국에도 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4회기에서 E는 두 얼굴이라는 주제의 미술과 이야기 활동의 제목을 ‘나의 기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E는 베트남 남자친구를 만날 때 행복하다. 하지만, E는 학교시험듣기가 안될 때, 슬프다고 말하였다. E는 아무리 열심히 들으려고 해도, 시험이라는 중요한 상황에서 듣기가 잘 안 될 때, 기분이 낙담이 되었다. E에게 의사소통 이상의 한국어, 즉 학업 및 진로를 위한 한국어 능력은 아직 요원한 상태임을 표현하였다.

〈표 IV-17〉 연구참여자 E의 초기단계 사례

단계	초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주제	집, 나무, 사람	나와 나무	과거-현재-미래	두 얼굴
제목	(없음)	(없음)	사랑하는 E	나의 기분
미술				
작품 내용	베트남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묘사	나무를 묘사	과거의 놀이, 현재의 고교생활, 미래의 남자친구를 묘사	즐거웠던 장면, 슬펐던 장면을 묘사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 엄마랑 같이 살았음. · 집 옆에는 사과나무가 있음. · 아빠, 엄마, 내가 손을 잡고 공원에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을 그리기가 어렵다고 호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살 때 친구랑 같이 베트남에서 팔방놀이를 하였음. · 현재는 고등학교에서 공부함. · 미래에는 남자친구와 놀러 다닐 것임. 현재 베트남에 있는 남자친구가 한국에 방문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친구를 만날 때 행복함. ·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한국어 듣기가 안 되어서 슬퍼함.

중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E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18>와 같다.

<표 IV-18>과 같이, 중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E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회기에서 E는 계란에서 탄생한 것을 자신이 필요한 물건 혹은 하고 싶은 것들로 이야기하였다. E는 집도 있고 핸드폰도 있지만, 더 좋은 집, 더 좋은 핸드폰을 원하였다. 컴퓨터와 자판이 있었으면 하였다. E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고 싶어 하였다. 외모를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목걸이를 가지고 싶어 하였다. 이러한 목록은 E의 가정경제형편을 반영하는 이야기이었다.

6회기에서 E는 상장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 찾기를 시도하였다. E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전공과 대학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E가 앞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둘 다 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므로,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인재가 될 거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연구자는 E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가 있는 OO대학교를 추천해주었다. E는 연구자의 조언을 귀담아 듣더니, 대학합격증을 그리고, 자신의 장점과 진로를 자신의 언어로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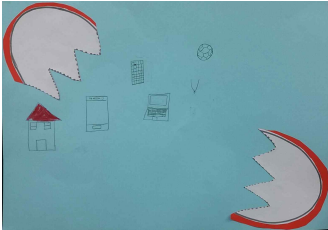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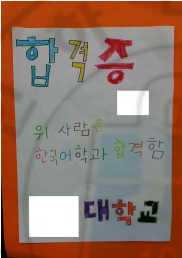

7회기에서 E는 집, 나무, 가족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돌아와서 다시 과거의 베트남의 집으로 시선을 향하였다. 이것은 E가 7살 때에 엄마와 손 잡고 공원에 간 장면이었다. E에게 엄마와 단둘이 있던 장면을 추억하는 이유는 E에게 이 시간이 소중한 때문이었다. E는 엄마가 베트남 아빠와 이혼 후에 한국에 먼저 나왔으며, 외조모의 슬하에서 자랐다고 말하였다. 엄마의 3년간의 부재는 E로 하여금 엄마와의 추억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 동일한 주제가 1회기와 다른 특징은 두 회기는 모두 가족과 손을 잡고 공원으로 놀러가는 동일한 장면이지만, 7회기부터 아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E는 7회기에서 엄마의 이혼과 헤어짐 이후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말하였다.

8회기에서 E는 자신의 한국이름과 베트남이름을 나란히 배열하여 그렸으며 형형색색의 색깔로 색칠을 하였다. 자신의 한국이름은 지혜와 은혜를 의미하며,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말하였다.

E의 중기의 행동을 살펴보면, 초기에 그림을 못 그린다고 자신감이 없어하던 모습과 달리, 중기에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자의 예시 그림이 없어도 다른 집단원들과 어울리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자신감 있게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족이야기, 이주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E의 행동의 변화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자신의 한국어와 베트남어 이름을 다양한 색깔로 채색한 것이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두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E는 이주의 과정 속에 있던 기쁘고 슬펐던 각각의 이야기들을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하나의 색으로 인식하고, 이제는 모든 색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E의 인식과 수용은 중기에 들어서 행동과 정서의 변화로서 가시화되고 있었다.

〈표 IV-18〉 연구참여자 E의 중기단계 사례

단계	중기			
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주제	탄생	상장	집, 나무, 사람	나의 이름
제목	(없음)	(없음)	집, 나무, 가족	OOO(한국이름)
미술				<p>나의 이름 소개하기 그림</p>
작품 내용	계란에서 태어난 자신의 소원을 묘사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대학합격증으로 묘사	베트남의 집과 가족을 묘사함	이름의 의미, 이름을 지어준 사람, 상징을 소개함
이야기의 주요내용	<p>· 필요한 것: 집, 핸드폰, 컴퓨터, 자판, 축구, 목걸이.</p>	<p>· OO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입학하고 싶음.</p>	<p>· 베트남 집에서 사는 외조모와 E. · 엄마는 한국에 먼저 나와 있음. · 7살 때 엄마와 공원에 가서 놀던 장면을 추억함.</p>	<p>· 엄마가 지어준 한국이름 OOO임.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있음. · E의 베트남 이름 · 엄마의 한국어이름은 OOO임.</p>

후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E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19>와 같다.

<표 IV-19>와 같이,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E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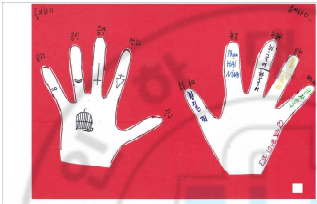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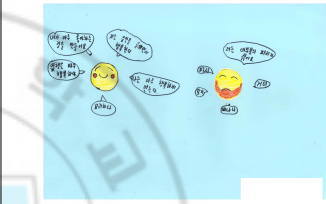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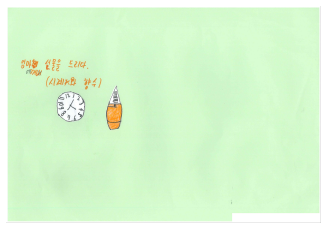
9회기에서 E는 나무를 그리면서, 이 나무는 친구를 기다리는 장소인 나무라고 설명하였다. 1회기의 나무는 자신도 없고 아무도 없는 나무만 있는 그림이었는데, 9회기의 나무는 사람과 교감을 나누는 만남의 장소로서의 나무로 변화하였다.

10회기에서 E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주목할 이야기는 E가 한문과 국사 수업을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E에게 한국어도 어려운데, 한국어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더 어려웠다. 그리고 E는 한국의 역사에 흥미가 없다고 말하였다.

11회기에서도 E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목록을 이야기하였다.

12회기에서 E는 엄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은 2년 후에 베트남에 가는 것이다. 엄마가 한국으로 먼저 떠났을 때 자신을 길러 주었던 외할머니의 80세 생일을 맞아서 할머니에게 드릴 돈과 옷 선물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였다. 하지만 엄마가 돈이 없으면 못 갈 수 있다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표 IV-19〉 연구참여자 E의 후기단계 사례

단계	후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주제	나와 나무	손가락	두 얼굴	선물
제목	나, 나무	(없음)	두 마음	선물
미술				
작품 내용	공원을 산책할 때 보는 배나무를 묘사.	왼손가락에 좋아하는 것을, 오른손가락에 싫어하는 것을 기술	행복의 조건, 불행의 조건을 묘사	엄마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을 묘사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 E가 좋아하는 배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것: 요리, 음식, 음악, 영화, 친구 • 싫어하는 것: 춤추기, 한문, 한국사, 문학, 바나나 • 한문수업을 싫어함. 한국어로 한자를 배우니 어려움. 국사수업에 흥미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얼굴: 좋아하는 것을 만들, 여행, 음악 듣기, 요리하고 맛있게 먹기. • 화난 얼굴: 피자, 모기, 바나나, 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가 좋아하는 향수와 시계. • 2년 후에 베트남에 갈 것임. 외할머니가 80세 생신이심. 생신을 축하드리러 감. • 고향은 베트남 하노이 근처의 K라는 도시임. K시의 초·중학교를 나왔음.

연구참여자 E는 12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의 미술작품과 이야기 속에서 가족, 한국이주, 학교생활, 일상생활 등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의 전형적인 예와 그 배경을 보여주었다. 또한 E는 본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학습적인 측면, 심리정서적 측면, 행동적인 측면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의 <표 IV-20>에서는 연구참여자 E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하고 발전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표 IV-20> 연구참여자 E의 이야기의 전개

초기	중기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서 있는 나무 · 아빠, 엄마, 나로 이루어진 가족. · 한국어 듣기가 어려워서 슬픔. · 베트남 남자친구 때문에 행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 이주과정 속에서 3년간의 헤어짐을 겪음. ·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전공과 대학으로 진로를 구체화시킨. · 다양한 색으로 입혀진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정체성을 표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는 친구를 만나는 장소임. · 외조모, 엄마, 나로 이루어진 가족. · 외조모, 엄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함.

<표 IV-20>과 같이, 초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 E는 중도입국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의 배경이 되는 가족이야기, 학교생활이야기, 이와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였다. 먼저 E는 과거 베트남의 집에 있는 자신의 가족구성원(아빠, 엄마, 나)이 다함께 손을 잡고 공원에 가는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E는 자신을 연대기적으로 과거에 팔방놀이 하던 E, 현재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E, 미래에 베트남 남자친구와 함

깨하는 E로서 이야기를 전개하며, 한마디로 ‘사랑하는 E’ 라고 이름을 붙였다. E는 베트남 남자친구와 대화할 때 행복하였지만, 들리지 않는 한국어로 시험을 치루려니 마음이 슬펐다.

중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E는 초기의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심화시켰다. 한국에 입국한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어는 여전히 어려웠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학교생활은 하고 있지만, 의사소통 이상의 한국어가 요구되는 학업수행과 진로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과 강점을 발견하고 유망한 전공과 학교를 찾아보았다. 구체적으로 합격증으로 형상화하고 집단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였다. 가족의 이야기는 엄마와의 단 둘이 있던 추억을 말하였다. E는 엄마의 이혼과 한국어주로 인해서 3년간 헤어졌던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이후 E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두 개의 문화를 한국어 이름과 베트남어 이름으로 표현할 때, 다양한 색깔로 채색하면서, 이주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E의 인식은 행동적인 측면에서 자신감의 증가와 집단원들과의 협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전보다 편해졌고, 한국어 쓰기가 늘었으며, 한국어 말하기도 초기보다 발전하였다.

후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 E는 기존의 이야기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이야기를 하였다. 초기의 나무는 자기 자신도 없고 아무도 없는 나무만 있는 그림이었는데, 후기의 나무는 사람과 교감을 나누는 만남의 장소로서의 나무로 변화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여전히 한국어가 어렵고, 학교의 일부 수업이 싫다는 것이었다. E는 자신을 길러주고 한국으로 이끌어 준 엄마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보호해준 외할머니에 대한 감사를 선물로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6. 연구참여자 F: “자유를 갈망하는 내담자”

연구참여자 F의 미술기반 이야기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미술작품내용과 이야기내용을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미술작품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 나타난 연구참여자 F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21>와 같다.

<표 IV-21>과 같이,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F(이하 F)의 이야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 F는 나무와 집 옆에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이야기하였다.

2회기에서 F는 나무 옆에 기대어 앉아있는 자신을 그렸다. F는 나무에 기대어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자신의 그림과 이야기에 대해서 ‘자유’라고 제목을 붙였다.

3회기에서 F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자신의 모습을 ‘아트’라고 제목을 붙였다. 과거의 F는 12살의 F였다. F는 ‘친구와 놀았던 것’이라고 소제목 붙이면서, 배드민턴을 하는 두 사람과 오션지에 음표를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친구와 배드민턴을 하였고 음악활동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현재의 F는 16살의 F였다. F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라고 소 제목을 붙였다. F는 학교운동장과 학교를 그림으로 그리고 자신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래의 F는 21살의 F이다. F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라고 소 제목을 붙이고, 4가지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하였다. 첫째는 F는 대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도와주는 것이었다. 둘째는 취미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셋째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다. 넷째는 세계여행을 하는 것이었다.

4회기에서 F는 두 얼굴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하는 대신에, 자신이 하

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자유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F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 했다. F는 자신의 네 가지를 이야기하였다.

첫째, 침대의 그림을 그리고 아침마다 잠에서 깨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둘째, 냉장고의 그림을 그리고 밥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셋째, 태양의 그림을 그리고 사람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넷째, 하트의 그림을 그리고 F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표 IV-21〉 연구참여자 F의 초기단계 사례

단계	초기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주제	집, 나무, 사람	나와 나무	과거-현재-미래	자유이미지
제목	(없음)	자유	아트	(없음)
미술				
작품 내용	집 옆에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	나무에 기대어 있는 자신을 묘사	과거의 놀이, 현재의 고교생활, 미래의 꿈을 묘사	자신의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함
이야기의 주요내용	· 나무 옆에 F가 서 있음.	· 자유에 대한 소원 · 나무에 기대어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싶어함.	· 12살에 친구랑 배드민턴과 음악활동을 했음. · 16세에는 고등학교를 다님. · 21세에는 대학교 생활, 세계여행을 소망함. ·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서 뿌듯함.	· 자신의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함. · F는 사람들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임. · F는 아침마다 계속 일어나기 어려워함. · F는 밥 먹는 것을 좋아함. · F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임.

중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F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22>와 같다.

<표 IV-22>와 같이, 중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F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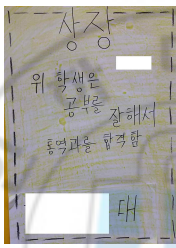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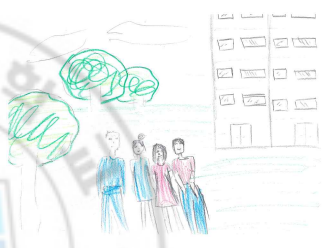
5회기에서 F는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모습을 계란의 탄생으로 묘사하고 이야기하였다. F는 사랑하는 사람과 멋진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에 가고 싶고, 취미로 사진을 찍고 싶어 하였다.

6회기에서 연구참여자 F는 진로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켰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F가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장점으로 할 수 있는 통번역 및 문화관련 전공을 소개시켜주었다. F는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통역학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학의 합격증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집단원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7회기에서 연구참여자 F는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였다. F의 가족구성원은 아빠, 엄마, 남동생과 자신이었다. F는 집을 묘사하면서 아파트처럼 큰 집에서 살고 싶으며, 나무를 묘사하면서 'Our love' 라고 이야기하였다.

8회기에서 F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의 3개 언어로 그림으로 그리고 이야기하였다. F는 자신의 이름이 아빠가 지어줬는데, 할머니의 이름과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표 IV-22〉 연구참여자 F의 중기단계 사례

단계	중기			
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주제	탄생	상장	집, 나무, 사람	나의 이름
제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미술				<p>나의 이름 소개하기 그림</p>
작품 내용	계란에서 탄생한 자신의 소원을 묘사	자신의 적성을 따라서 전공과 대학을 탐색함	큰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을 묘사	자신의 한국이름, 러시아어 이름을 그림으로 표현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고 싶은 일: 사진찍기, 흥미에 맞추어서 시간을 보내기, 대학교에서 생활, 맛있는 것 먹기, 돈 많이 벌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기, 크고 멋진 집에 살기, 자동차, 공부 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를 잘해서 000대 통역과를 합격하고 싶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처럼 큰 집에 살고 싶어함. · 가족구성원은 아빠, 엄마, 나, 남동생임. · our love라고 하는 나무이며, 이 나무는 우리의 사랑을 상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모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이름 · 아빠가 자신의 이름을 지어줌. · 외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친할머니는 돌아가셨음.

후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F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23>와 같다.

<표 IV-23>과 같이,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F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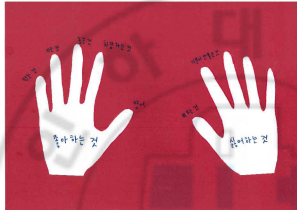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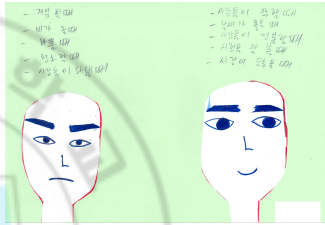

9회기에서 F는 2회기와 동일한 나와 나무라는 주제에서 거의 유사한 그림으로서, 나무에 기대어 앉은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F는 나무에 기대어서 음악을 듣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자유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10회기에서 F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양손가락에 표현하였다. F가 좋아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먹고, 자고, 놀고, 여행하는 것들이다. 특히, F는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F가 싫어하는 것은 비오는 것, 기분이 안 좋은 것을 언급하였다.

11회기에서 F는 자신의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이 생기는 조건을 표현하였다. 착한 사람들을 만날 때, 날씨가 좋을 때, 사람들이 행복할 때, 시험을 잘 볼 때, 시간이 많을 때, F는 행복해 진다고 이야기하였다. 반면에 게임에서 질 때, 비가 올 때, 바쁠 때, 청소할 때, 사람들이 화를 낼 때, F는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였다.

12회기에서 F는 선물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하는 대신에, 집, 나무, 사람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하였다. 7회기와 동일하게 엄마, 아빠, 동생, 자신으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원을 표현하였으며, 사과나무가 있고, 태양이 떠있으며 바다 옆에 있는 집 앞에서 가족이 놀았던 장면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표 IV-23〉 연구참여자 F의 후기단계 사례

단계	후기			
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주제	나와 나무	손가락	두 얼굴	집, 나무, 사람
제목	(없음)	손	얼굴	우리 가족
미술				
작품 내용	<p>나무에 기대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p>	<p>왼손가락에 좋아하는 것을, 오른손가락에 싫어하는 것을 기술</p>	<p>행복의 조건, 불행의 조건을 묘사</p>	<p>가족구성원을 묘사</p>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에 기대어서 음악을 듣고 있음. · 그림을 그리면서 자유스러운 마음이 생겼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화장하는 것, 영어, 고기를 뜯어 먹기. · 미국에 가고 싶어함. · 싫어하는 것: 비오는 것, 기분이 안 좋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할 때: 사람들이 착할 때, 날씨가 좋을 때, 사람들이 행복할 때, 시험을 잘 볼 때, 시간이 많을 때임 · 화가 날 때: 게임에서 질 때, 비가 올 때, 바쁠 때, 청소할 때, 사람들이 화낼 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 옆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족. · 집 앞에서 가족이 같이 놀았음. · 사과나무와 해.

연구참여자 F는 12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의 미술작품과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가족, 감정, 소원, 일상생활, 진로, 이룸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였으며, 자유와 쉽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였다.

다음의 <표 IV-24>에서는 연구참여자 F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하고 발전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표 IV-24> 연구참여자 F의 이야기의 전개

초기	중기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음. ·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임. · 자유롭고 편하게 살기를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음. · 경제적으로 부요하고 성공하고 싶음. · 자신의 언어적 강점을 알고, 관련 전공과 대학에 진학하고 싶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음. · 자신의 감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음. · 쉽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함. 이 프로그램이 그런 도움을 주었음.

<표 IV-24>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 F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F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였다. 과거에는 친구들과 운동하고 노래 하였고, 현재는 고등학교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학생살을 꿈꾸는 다른 여고생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F는 사람들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F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F는 자유를 갈망하였다. 나무에 기대어 앉아서 하늘과 자연을 쳐다

보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싶다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중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F는 자신의 정체성의 배경이 되는 가족과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한인가족으로서 한국에 이주한 3년이 되는 F의 가족은 아빠, 엄마, 동생, 자신으로 이루어졌다. F의 이름은 고려인 할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F는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며, 고려인으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일이 많았다. F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하고 싶다. 더 좋은 집, 자동차, 물질적인 부를 원하였다. F는 자신이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를 할 수 있는 언어적 강점을 인식하고, 관련 전공과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

후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 F는 자신의 감정,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심화시켰다.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행복한 감정과 불행한 감정이 생기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집 앞에서 놀았던 추억을 이야기하였다. F는 초기와 마찬가지로 나무에 기대어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미술과 이야기의 표현을 통해서 자유스러운 마음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7. 연구참여자 G: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내 담자”

연구참여자 G의 미술-이야기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미술작품내용과 이야기내용을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미술작품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 나타난 연구참여자 G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25>와 같다.

<표 IV-25>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G(이하 G)의 이야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 G는 과거의 베트남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한국 가족 이야기를 말하였다. 할머니, 엄마, 아빠, 자신으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아빠와 회사에서 일하는 엄마, 집안 일을 하는 친할머니의 가족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가는 장면을 자신의 이야기의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2회기에서 G는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싶지만, 엄마가 자신을 지지 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3회기에서 G는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괜찮은 인생’ 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과거에 자신은 베트남에서 공부를 잘해야만 입학할 수 있는 베트남 고등학교의 이야기를 하였다. 자신이 베트남에서 공부를 잘하였는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였다. 현재의 자신의 상황을 한국어 잘 듣는 귀로 묘사하고 한국어 능력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미래의 자신의 모습은 25살의 모습으로서 힘들게 회사를 다니지만, 자신이 일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가족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하였다.

4회기에서 G는 자신의 두 얼굴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양가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G는 가족이 행복할 때 자신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G 자신의 행복의 조건은 가족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G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의 욕구를 드러내었다.



〈표 IV-25〉 연구참여자 G의 초기단계 사례

단계	초기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주제	집, 나무, 사람	나와 나무	과거-현재-미래	두 얼굴
제목	집, 나무, 가족	(없음)	괜찮은 인생	(없음)
미술				
작품 내용	한국의 집과 가족을 묘사	친구와 손잡고 놀이공원에서 노는 장면을 묘사	과거: 베트남 고등학교 현재: 한국어 미래: 직장생활과 가족	즐거웠던 장면, 슬펐던 장면을 묘사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1층에 있는 G의 집과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함. · 부모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함 · 가족들이 같이 마트에 가는 상황을 이야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같이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야기를 함. ·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유는 한국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지지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베트남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 · 현재: 한국어 듣기의 어려움과 노력. 엄마와 헤어지고 외조부가 길러줌. · 미래: 25세에 회사에서 일함. 부모, 할머니와 같이 살고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의 조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요리, 여행, 농구할 때임. · 특히, 가족이 행복할 때 G는 행복할 것임 · 불행: 잠자는 동안 깨우는 것, 거미, 나비, 혼자 있고 싶은데 누군가 말을 걸 때 임.

중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G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26>와 같다.

<표 IV-26>과 같이, 중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G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회기에서 G는 새롭게 탄생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란의 꿈’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하였다. G는 자신의 외모와 가정환경에 대한 열등감을 가졌다. 그래서 G는 뚱뚱하고 키가 작고 가난한 자신의 모습과 반대되는 소원으로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날씬해지고 키가 더 커지기를, 물질적으로 부요해 지기를 말하였다. G는 초기와 달리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지만, 대학에 안 갈 것 같으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G는 곧 가족을 떠나서 I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다문화공립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연구자에게 전하면서, G는 오히려 행복해 하는 웃음을 보여주었다. G는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G의 가족이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아서 나온 반어적인 표현임을 G가 중기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였다.

6회기에서 G는 이미 한국어에 대한 상장을 학교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은 욕구를 한국어 상장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G는 대학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면서 다시 단정적으로 자신의 열린 미래에 대하여 선을 그어 버렸다.

7회기에서 G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에 대한 소망과 실상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였다. G의 소원은 할머니, 아빠, 엄마를 포함하여 온 가족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G의 부모가 집에서 매일 싸우고 있으며, 아빠가 G에게 사사건건 참견한다고 G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잡하고 고단한 가족생활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8회기에서 G는 자신의 한국 이름과 베트남 이름에 대한 그림을 나란히 배열하여 그렸으며, 자신의 한국 이름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표 IV-26〉 연구참여자 G의 중기단계 사례

단계	중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주제	탄생	상장	집, 나무, 사람	나의 이름
제목	계란꿈	상장	집, 나무, 사람	(없음)
미술				나의 이름 소개하기 그림
작품 내용	계란에서 태어난 자신의 소원을 묘사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 학교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가족들을 함께 가는 베트남 여행	베트남이름, 한국이름을 소개함
이야기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모에 대한 소원: 날씬하고 키가 컸으면 함. · 가정에 대한 소원: 부자가 되고 싶어함.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사고 싶어함. · 미래에 대한 소원: 고양이의 친구되기. 베트남여행. · 타학교로 전학 후에 기숙사생활하며,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욕구를 표현함. 한국어 상장을 이미 받았으며 또 받고 싶어함. · 대학에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가족이 베트남 호텔로 여행을 가고 싶어함. · 부모가 매일 싸우고 있음. 한국인 아빠의 참견 때문에 G의 기분이 안 좋음. 부모가 행복해지기를 소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이름과 한국이름을 소개함. · 한국이름은 한국인 새 아빠가 지어주었음. 한글이름에 대한 호감과 만족이 있음. · 엄마의 베트남 이름을 소개함.

후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G의 미술작품과 이야기내용은 다음의 <표 IV-27>와 같다.

<표 IV-27>과 같이,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 G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회기에서 나와 나무라는 주제에서 자신의 모습은 없고 나무만을 크게 그려 놓았으며, 봄의 사과나무라고 말하였다.

10회기에서 G는 동물을 좋아하여 한국에서 수의사가 되고 싶으며, 한국이름의 OO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국인 베트남이 여전히 그림고 방문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한국어 문법이 어렵지만, 한국어를 잘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더 도출할 필요가 있어서, 11회기에 두 얼굴이라는 주제 대신에, G에게 개별적으로 집, 나무, 사람이라는 주제를 제시하였다. 할머니와 아빠가 함께 일하지만, 엄마는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으며, 자신도 역시 따로 떨어져서 그네에서 책을 읽으면서 친구를 기다린다고 그림으로 묘사하고 이야기하였다. G의 가족구성원 간의 융화가 어려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회기에서 G는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목록과 주고 싶은 선물 목록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선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여 수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였다.

〈표 IV-27〉 연구참여자 G의 후기단계 사례

단계	후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주제	나와 나무	손가락	집, 나무, 사람	선물
제목	(없음)	손가락 그림	(없음)	선물
미술				
작품 내용	나무를 묘사	왼손가락에 좋아하는 것을, 오른손가락에 싫어하는 것을 기술	집에서 가족 구성원의 활동을 묘사	친구, 가족에게 주고 싶은 선물과 받고 싶은 선물을 콜라주로 묘사
이야기의 주요내용	· 봄의 사과나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이를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함. · 한국 이주이야기: 1년이 되지 않은 한국생활. · 한국어의 OOO가 되고 싶어함. · 한국에 살고 싶지만, 베트남이 생각나고 가고 싶어함. · 한국어 문법의 어려움.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와 아빠가 함께 일하고 있음. · 엄마는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음. · G는 그네에서 책을 읽고 있음. 친구랑 이야기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친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의 목록을 이야기함. · 친구, 가족으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의 목록을 이야기함. · 고교 졸업 후에 대학에 가고 싶어함. 한국어의 어려움. 동물, 고양이를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함.

연구참여자 G는 12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의 미술작품과 이야기 속에서 공간적으로는 모국인 베트남과 정주국인 한국을 오고가며, 내용적으로 한국에 대한 기대와 베트남에 대한 그리움, 잠재력과 한계, 기쁨과 슬픔, 자기긍정과 자기부정, 가족에 대한 희망과 절망을 대칭적인 구도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다음의 <표 IV-28>에서는 연구참여자 G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하고 발전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표 IV-28> 연구참여자 G의 이야기의 전개

초기	중기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하는 가족의 모습을 말함. ·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모와 경제적 형편에 대한 열등감이 있음. · G의 가정이 전혀 행복하지 않음. · 도피구로서 전학을 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싶음. 대학에 진학하여 수의사가 되고 싶음. · 가족과 나눌 선물을 생각하고 준비함.

<표 IV-28>과 같이, 초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 G는 재혼한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로서의 모습과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G에게 가족의 모습은 모든 가족이 마트에 장을 보러 함께 가는 가족이었다. 초기단계에서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G의 가족의 실제 모습일 수도 있고, 단지 G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

G는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자신을 괜찮은 인생이라고 소개하였다. 베트남에서 공부도 잘하고 인정받았던 자신의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어도 잘 안 들리는 상황을 대비시켰다. 또한 미래 역시 가족

부양을 위해서 힘든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G는 자신의 감정이 가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였다. 자신의 행복의 조건으로서 가정의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서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와 가족이 행복해서 자신이 행복한 경우 두 가지를 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혼자 있고 싶고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묘사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또한 한국에서 대학을 가고 싶지만, 엄마가 지지하지 않는 현실을 말하였다. 이와 같이, G는 대칭적인 구도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 이상과 현실, 행복한 감정과 불행한 감정을 이야기하였다.

중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 G는 초기단계에서 드러내었던 대칭구조의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대칭을 이루는 이야기 중에서 자신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자신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었다.

G는 날씬하고 키가 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의 이면에는 외모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열등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G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베트남여행을 이야기하는 G의 이면에는 매일 싸우는 부모, 사사건건 참견하는 한국인 새 아빠에 대한 절망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에 계속 살고 싶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소원을 가져 보아도, 자신이 더 이상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없어서 대학에 안 갈 것이라며 단정을 지을 만큼 G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그래서 G는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도망갈 수 있는 도피처를 찾았다. 그것은 현재 재학 중인 G 고등학교에서 기숙사가 제공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이었다. G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도피구를 은근히 좋아하였다. 왜냐하면 골치 아픈 부모의 갈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후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 G는 초기-중기에서 드러낸 대칭구도적인 감정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적응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G는 동물을 좋아하는 자신의 관심을 살려서 대학에 진학하여 수의사

가 되고 싶다고 말하였다. 자신의 한국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였다. 할머니와 아빠로부터 엄마와 G가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G는 가족을 위한 선물과 가족으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8. 소결

연구참여자들 A로 부터 G까지의 미술작품을 매개로 작성한 소감문, 연구자와의 상담 및 집단원들과의 대화, 인터뷰, 이야기발표에 대한 축어록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초기·중기·후기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은 다음 <표 IV-29>와 같다.

<표 IV-29>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의 단계별 특징

이야기 단계	공통점	차이점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어려움을 은유(미술)와 환유(이야기)로 표현함. · 학교생활, 진로, 일상생활 등에서 고민을 표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인 어려움의 내용과 표현 방식 등에서 개인별 차이가 있음. · 한국어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평가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줌.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의 시간과 공간이 확장되고 연결되면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심화됨. · 가정의 이야기, 즉 부모의 이혼, 가족과의 헤어짐과 재결합 등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 · 자신의 장점을 알고 미래를 구체화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의 헤어짐과 재결합의 방식, 심리적 어려움에 있어서 개인별 차이가 있음(부모의 이혼/별거 여부, 부모와의 유수기간, 새 아빠와의 관계 등).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단계에 등장한 상징물의 의미가 심화되고 발전됨. · 진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고, 차선의 전략을 구상함. · 어려움의 승화, 갈등의 해결 등으로 이야기가 종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에 부여하는 의미에 차이가 있음. ·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

<표 IV-29>와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술-이야기 융합치료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미술을 통해서 은유를 사용하여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환유를 사용하여 의식과 인지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참여자별로 차이가 있다.

연구참여자 A는 나무 그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심리적 피로를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나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모국에서의 뿌리가 사라져서 생긴 상실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의 그림과 이야기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엄마의 빈자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모국에 있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 모국에 대한 향수를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나무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가족 중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호소하였다. 가족의 손을 잡고 공원에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 F는 나무 그림을 통해서 나무 옆에서 기대어 앉은 자신은 자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함께하는 가족의 모습,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반어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초기에서 한국어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 평가가 연구참여자마다 차이가 있었다. 중국 한족 출신의 연구참여자 A는 의사소통능력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다. 베트남 출신의 연구참여자 E는 한국어 듣기가 잘 안되어서 시험 준비가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베트남 출신의 연구참여자 G는 한국어를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잘 안 들린다고 호소하였다.

반면에 재중동포 출신의 연구참여자 C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운

한국어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지 않았다. B국 출신의 연구참여자 D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영어로 말할 수 있지만, 한국어 스트레스를 호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어 능력에 대한 상대평가 혹은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자기평가가 언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중기에서 나타난 이야기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야기의 시간과 공간이 확장된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를 지향하면서 시간이 연대기적으로 연결되고, 모국에서 한국으로,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일상생활의 현장으로 공간이 확장된다. 이야기의 초점이 자신에게서 가족구성원으로 확대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의 주요원인이 가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것은 가족과의 헤어짐과 재결합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독특한 가정적인 맥락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과의 헤어짐과 재결합의 방식과 심리적인 어려움은 연구참여자마다 차이가 있다.

연구참여자 A는 부모의 이혼과 엄마와의 헤어짐으로 인하여 조부모가 장기간 돌보아 주었다가 엄마와 한국인 새 아빠가 있는 한국에 입국하였다. B는 부모의 한국입국으로 인하여 장기간 헤어져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보아 주었으며, 한국에 입국 후에 엄마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마음을 상하는 일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엄마가 없이 혼자된 아빠의 슬하에서 성장하였으나, 연구참여자 C에게 아빠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엄마의 빈자리를 남자친구로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갔다. 연구참여자 D는 동거인이며 배우자라고 암시하는 ‘오빠’라는 사람과 한국에 입국하였다. 다시 말해서 연구참여자 D는 이민 가정의 배우자이자, 동시에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는 독특한 사례를 보여 주면서, 모국에 있는 부모형제를 그리워하였다. 연구참여자 E의 경우는 부모의 이혼, 엄마와의 헤어짐으로 외할머니가 3년간 양육을 하여 주었으며, 한국에서 이룬 엄마와 한국인 새 아빠의 가정에 정착하였다. 하지만, E에게 한국인 새 아빠의 존재감은 없으며, 엄마와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F는 고려인 부모와 함께 한국에 입국을 하였으므로, 부모의 이혼과 헤어짐 등의 복잡한 가정사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G는 엄마가 한국인 새 아빠와 새롭게 이룬 가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부모가 매일 다툼 뿐만 아니라, 새 아빠가 자신의 일에 사사건건 참견함으로 인해서, E는 전학을 통해서 가정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중기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장점에 근거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구체화시켰다.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들의 목록을 나열하거나, 자신에 꿈꾸는 직업에 필요한 물품들의 목록을 나열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와 부합하는 전공학과와 전공이 개설된 대학교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연구참여자 A, E, F, G는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통역하거나 번역하는 방향으로 전공을 정하고 관련 대학교를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아이돌가수로서 준비할 수 있는 연극영화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미술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켜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이·미용 및 화장에 대한 자신의 취미를 발전시켜 관련 전공을 선택하였다.

후기에서 나타난 이야기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초기 및 중기에 등장한 상징물이 후기에 재등장하지만, 그 의미는 심화되고 발전된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에게는 그 상징물의 의미에 변화가 없었다.

연구참여자 A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 그네는 자신을 키워준 조부의 사랑에 대한 상징물로서 그 의미가 드러나면서, 자신이 현재 지치고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의미가 발전하였다. 연구참여자 B에게 있어서 자두나무는 어린 시절 힘이 되어준 친구와 같은 존재였으나, 지금은 사라져서 쓸쓸한 마음이 들게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두나무 아래에서 한국 친구들을 기다리는 장소로 변화되었다. 연구참여자 C에게 있어서 새싹으로 표현된 나무는 희망과 성장의 상징이었다. 초기단계에서나 후기단계에서나 연구참여자 C는 여전히 새싹에 물을

주면서 새로운 나라 한국에서의 성장과 미래를 꿈꾸었다. 연구참여자 D는 ‘길’을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길은 부모와 같이 평생을 이민자로 살았던 연구참여자 D 자신의 인생을 상징하였다. 초기에는 길 위에 고독하게 있는 자신을 이야기하였지만, 후기에는 길 위에 타인들만 있을 뿐 자기 자신은 없었다. 이민자로서 길을 계속 걸어왔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연구참여자 D의 내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 E에게 있어서 초기의 나무는 자기 자신도 없이 혼자서 있는 나무였다. 하지만 후기에 나무는 친구와 공원에서 본 나무로 변화하였다. 연구참여자 F에게 있어서 초기나 후기나 모두 나무는 자신이 기대어 앉는 장소였다. 연구참여자 F가 나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한국에서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휴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 G에게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행복한 모습의 가족은 실제의 가족이 아니라 이상적인 가족을 상징하였다. 같은 그림을 그렸지만, 후기로 갈수록 그림을 통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후기에서 진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고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로 보완되었다. 연구참여자 A는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표현하며 구체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아이돌가수가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차선의 계획들을 검토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의 미술적인 재능을 연습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계속하여 발전시키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 D는 자신의 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태였으나, 구체적으로 전공학과와 대학교의 이름을 확인하고 진학하고 싶은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그 이후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소와 계획을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학업수행 및 진로준비를 위한 한국어 능력이 안 되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였지만, 이중언어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관련 전공을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 F는 3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공과 대학을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대학진학에 있어서 부모의 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더 잘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구체화하였다.

후기에서 초-중기에 나타난 인간관계의 갈등이 해결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승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변화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회기 중에 돌아가신 조부를 기억하고 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아빠의 반대를 뚫고서 한국에 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준 중학교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국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엄마와의 애증의 관계를 해소하고 이제는 부모에게 대한 효도의 마음, 조부모를 방문하여 보살피려는 마음으로 전환하였다. 연구참여자 C에게 아빠는 C의 인생의 중심인물이었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는 남자친구의 등장으로 아빠는 점차 이야기의 중심부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후기의 이야기에서 연구참여자 C는 아빠를 다시 불러내어 엄마 없이 혼자서 자신을 키우며 일하느라 고생하는 아빠의 부족함을 자신이 채워드리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숨기고 싶은 자신의 동거인이자 배우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시도를 하였지만, 문체적 이야기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까닭에, 이민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오히려 깊어져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종결하였다. 연구참여자 E에게 가족은 여전히 한국인 새 아빠의 존재감이 없는 가족이지만, E는 자신을 길러주고 보호해준 외할머니와 엄마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였다. 연구참여자 F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을 좌우하는 요인을 찾으려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유와 휴식과 편안함을 나무에게 찾아가서 기대는 방식으로 해소를 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후기로 갈수록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무슨 일이든 함께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

V. 미술-이야기융합치료 참여경험의 의미와 효과

1. 미술-이야기융합치료 참여경험의 의미

앞선 IV장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미술기반 이야기치료 회기별 참여경험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번 V장은 연구참여자의 참여경험의 의미가 이야기치료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미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치료는 문제적 이야기를 발견하고, 문제적 이야기를 뒤집을 만한 독특한 사건을 내담자의 경험 속에서 조명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대안적인 이야기를 다시 쓰기를 하면서 내담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공고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술하였다(화이트와 엡스틴, 1990).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참여경험을 문제적 이야기의 발견, 독특한 결과의 조명, 대안적 이야기의 재저작이라는 세 가지 상위범주로 나누었으며, 상위 범주에 따라 도출된 하위범주는 다음의 <표 V-1>와 같다.

<표 V-1> 미술-이야기융합치료 참여경험의 의미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문제적 이야기의 발견	이주를 겪으며 생긴 심리적 문제
	새로운 가족관계의 어려움
	한국어와 학교생활의 어려움
독특한 결과의 조명	가족 안팎 사람들의 지지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
대안적 이야기의 재저작	상징의 의미 변화
	심리적 어려움의 해소

1.1. 문제적 이야기의 발견

이야기치료의 관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경험은 치료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적 이야기의 발견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범주의 의미는 ‘이주를 겪으며 생긴 심리적 문제’, ‘새로운 가족관계의 어려움’, ‘한국어와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라는 하위 범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 이주를 겪으며 생긴 심리적 문제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이주경험과 연관시키려는 접근은 꾸준히 시도되었으며, 이주 이전과 이주 이후를 포함한 모든 경험들이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발달과 관련이 있다(유비 외, 2017: 233-234).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주라는 공통된 사건을 겪었으며, 한국에 입국한지 1년에서 4년 정도 되었으며, 연구참여자마다 이주와 관련된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 A(이하 A)는 지친 마음과 피로함을 호소하였다. A는 한국에 온지 3년이 되었으며, 고등학교에서 생활을 한지 3년이 되었다. 무난히 교사와 학생들과 대화할 만큼 한국어도 잘하였다. 학교생활에서도 적응을 잘하여 교사들이 A에게 심부름도 시키고 물건을 맡길 만큼 교사들의 신뢰를 받았다. 학교장의 은퇴식에서는 다문화학생의 대표로 나와서 교장선생님에게 꽃다발을 증정하였다. 하지만, A는 미술과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앉아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이야기하였다. 다시 말해서, A는 자신에 대한 상징적인 은유를 ‘기대어 쉬는 것’으로서 이름을 붙였다.

“삼림 안에 집이 있습니다. (2층 지붕 위에) 앉아 있어요.” (연구참여자 A, 1회기)

“나무에 기대어 노래를 들어요.” (연구참여자 A, 2회기)

A는 본인이 지치고 피로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쉼에 대한 욕구를 미술표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표현하였다. A의 모범적이며 성실한 학교생활의 이면에는 쉬고 싶은 마음을 A는 외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적 이야기의 원인에 대하여 A는 두 가지의 상황을 이야기 하였다. 첫째, 한국에서 입국하면서 모국에서 형성된 인간관계가 물리적으로 단절되었다. 둘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진로 준비가 시급한 고민이 되었다. 이것은 A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었으며, 기대어 쉼을 누릴 수 있는 장소, 의논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게 하였다.

“옛날에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 슬펐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마음이 힘들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요” (연구참여자 A, 4회기)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찾아 보았어요” (연구참여자 A, 4회기)

“이제 졸업이 가까이 왔어요. 처음 만날 때보다 지금이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안 힘들어요. 할 게 많이 없어서. 지금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연구참여자 A, 8회기)

연구참여자 B(이하 B)는 뿌리가 뽑힌 듯이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B는 자신의 모국인 중국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다. B에게 중국 S 시에 있는 고향집과 집 옆에 심은 자두나무는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고향집은 할아버지모와의 추억이 있는 집이었다. 부모가 먼저 한국으로 일하러 떠나면서, 고향집에서 할아버지모가 B의 양육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이 고향집에는 자두나무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모가 이 집으로 오면서 심은 것이었다. B에게 자두나무는 어렸을 때 친구와 같은 존재였다. 그러므로 자두나무는 B에게 중국의 고향집, 할아버지모의 사랑, 친구와 같이 성장을 함께 존재로서 추억을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자두나무는 B의 정체성의 뿌리를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하지만 이 자두나무는 세월이 지나면서 중국의 고향집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나무를 마지막으로 지켜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야기하는 B는 자신의 마음은 씩씩하고 착잡하다고 말하였다. 학교에서도 원만하게 적응을 잘하고 있는 B의 삶의 이면에는 여전히 돌아갈 고향을 잃은 실향민과 같은 마음이 존재하였다. 돈을 벌러 한국에 온 부모를 따라서 몸은 한국에 나와 있지만, 마음 속에는 모국의 고향이 존재한다.

“이 나무는 자두나무예요. 어렸을 때, 중국 시골에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가을되면 자두가 나와요. 지금은 이 나무가 없어졌어요. 저희 집 자체가 없어요. 다른 건물이 땅을 샀어요. 마지막으로 이 나무를 보는 장면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고향집을 보니까 아깝고 아쉽고 착잡해요.”
(연구참여자 B, 2회기)

연구참여자 D(이하 D)는 고독감과 모국에 있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D는 나와 나무라는 주제에서 반복적으로 나무 옆에 길을 그렸으며, 그 길을 걷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D는 초기에 나무 옆에 있는 길을 걷는 사람을 ‘거리에서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후기에 D는 나무 옆에 있는 길에 여러 명의 관광객들이 있지만, 자기 자신은 이 길 위에 없다고 말한다.

“나무 옆에 길이 있고, 그 길에 사람이 걸어갑니다. 거리에서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연구참여자 D, 2회기)

“이 곳은 숲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예요. 저는 여기에 없어요.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이 있어요.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가면 오솔길이에요.” (연구참여자 D, 9회기)

이와 같이 D는 자신의 상황,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길로 형상화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D는 자기만 혼자서 이 길을 걷는 것 같이 느껴진다. 때로는 D는 누군가와 같이 걷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러한 고독감은 요르단에 있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D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슬퍼요. 한국에 (친)가족은 없지만, 할머니 쪽 가족들이 있어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에는 C 시에 방문합니다. 매일 엄마랑 통화해요.” (연구참여자 D, 4회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D, 11회기)

연구참여자 E(이하 E)는 엄마가 떠나고, 가족 간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없는 외로움을 이야기하였다. E는 한국인과 재혼한 엄마를 따라서 한국에 온지 2년이 되었다. E는 한국에 오기 전에 외할머니와 3년 동안을 동거하였다. E의 엄마는 E를 베트남에 두고 먼저 한국에서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렸다. E는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진술할 때, 특징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자신의 가족과 손을 잡고 공원에 놀러가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였다. 1회기의 가족 이야기에서 E는 엄마, 아빠와 손을 잡고 공원에 간다. 하지만, 7회기에서 E는 7세 때의 가족이야기에서 엄마와 단 둘이 공원에 간다. E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서 성장하였다. E는 11세에 엄마가 한국에 먼저 입국함으로써 E가 15세가 되기까지 외할머니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살았다. E는 성장기간의 대부분을 엄마 혹은 외할머니로부터 성장하였다. 그래서 E에게는 가족, 특히 엄마는 늘 그리운 존재였다. 자신의 그리움을 과거 베트남의 가족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가족의 손을 잡고, 공원에 놀러가던 모습이 E에게는 행복한 추억이었다.

“베트남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아요. 집 옆에는 사과나무가 있어요. 아빠, 엄마, 내가 손을 잡고 공원에 갑니다.” (연구참여자 E, 1회기)

“집은 베트남 집입니다. 외할머니와 내가 살았구요. 엄마는 한국에 나와

있었어요. 엄마와 내가 (그림-손잡고) 공원에 가서 놀던 장면이에요. 내가 7살 때입니다. (중략) 엄마는 11살에 한국에 왔어요. 저는 15살에 한국에 왔어요. 3년 동안 할머니와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E, 7회기)

연구참여자 G(이하 G)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음을 표현하였다. G의 이야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칭적인 구조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었다. G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G는 ‘같이’ 라는 부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함께하는 가족을 이야기하였다.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가고,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하는 가족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가족의 실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가족 관계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가족들이 같이 마트에 가는 장면이에요” (연구참여자 G, 1회기)

“우리 가족이 같이 베트남에 여행가요” (연구참여자 G, 7회기)

G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가족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한다. 한국인 아빠와 베트남 엄마는 매일 싸우고, 아빠는 자신의 삶에 사사건건 참견하고 있다. 아빠는 주로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지만, 엄마와 G는 대화에서 소외되어 있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요. 맨날 싸웠어요. 아빠가 저한테 참견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연구참여자 G, 7회기)

“아빠와 할머니가 같이 일해요.” (연구참여자 G, 11회기)

1.1.2. 새로운 가족관계의 어려움

국내의 대다수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특징은 그들의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이 재혼을 통해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

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의 아픔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마의 재혼을 통한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들의 부모가 재혼가정이 아니더라도 중도입국 청소년은 부모가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국에 남아서 부모와 헤어져 지내는 상당한 기간을 보내게 된다(배상률, 2016: 53-55). 이런 과정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은 부모와 재결합하더라도 서먹하고 어려운 관계를 가지게 된다.

연구참여자 B의 부모가 모두 한국에 먼저 정착한 후에 B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B가 부모와 완전히 결합한지 2년이 되지 않았다. B는 부모와 완전히 결합하기 전까지 할아버지모의 손에서 길러졌다. B는 방학 중에 한국에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헤어진 부모가 낯설고, 한국에서 부모와의 결합이 아직은 쉽지가 않았다. B는 할아버지모가 자신을 키워주면서 자신을 잘 알고 있지만, 부모는 자신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B의 행복하고 불행한 마음이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였다. 엄마가 용돈을 주거나, 학용품이나 옷을 사주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챙겨줄 때는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엄마가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는 일이 생길 때 슬픈 마음이 생겼다. B에게 사랑과 추억의 대상인 할아버지모와 달리, 엄마는 애증의 대상이었다.

“행복할 때는 엄마로부터 용돈을 얻었을 때예요. 이 돈으로 필요한 거를 사먹고, 향수를 살 수 있어요, 엄마가 학용품과 옷은 사주세요. 슬픈 때는 엄마랑 싸웠을 때예요.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할 때 엄마랑 싸우면 기분이 나빠요.” (연구참여자 A, 4회기)

연구참여자 G에 대해서 전술하였던 것처럼, G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음을 표현하였다. G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맥락은 G가 재혼가정의 자녀라는 점이다. G는 베트남에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다. 엄마가 한국에 먼저 입국하면서 8년 동안 엄마와 헤어져 살았다. 엄마가 한국인 새 아빠와 재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G는 가족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행복한 가족, 함께하는 가족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G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였다. 그래서 G에게 행복의 전제조건은 가족의 행복이었다.

“나는 행복해 질거야” (연구참여자 G, 10회기)

“우리 가족이 행복할 때 나는 행복할 것이다” (연구참여자 G, 4회기)

하지만 G는 자신의 기대와 달리 가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이 절망한다. 부모는 매일 싸우고, 아빠는 자신의 삶에 간섭하고, 새 아빠와 새 할머니가 엄마와 자신을 소외시켰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요. 맨날 싸웠어요. 아빠가 저한테 참견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연구참여자 G, 7회기)

“아빠와 할머니가 같이 일해요.” (연구참여자 G, 11회기)

G는 숙식이 제공되는 기숙사형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G는 가족과 떨어지게 된 것을 오히려 좋아하였다. 전학이라는 상황이 G에게 일종의 도피처가 된 것이었다.

“(중략)이젠 기숙사에서 살아요(웃음). (중략) 학교에 언제 갈지는 몰라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을 알아요(웃음).” (연구참여자 G, 5회기)

연구참여자 E에게 한국인 새 아빠의 존재감이 전혀 없다. E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이혼하였다. E의 엄마가 한국인 새 아빠와 재혼하고 한국에 먼저 입국하면서, E는 외할머니와 3년간 베트남에서 남아있었다. E가 한국에 온지 2년이 되었으며, 한국인 아빠와 같이 살지만, 한국인 아빠의 존재감은 전혀 없다. E는 회기 중에 단 한 번도 한국인 새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E의 가족에 관한 그림은 모두 어린 시절을

추억하였다. 베트남 전 부친이 1회기에 등장하고 엄마와의 추억이 7회기에 등장한다. 하지만 한국인 새 아빠와 정서적 교류도,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상적인 사건도 E에게는 아직까지 없었다. 심지어 E에게 있어서 가족은 베트남 아빠의 가족들도 포함하면서, 여전히 베트남 가족이다.

“(친가 쪽) 가족은 할머니, 삼촌, 고모가 있어요. (외가 쪽) 가족은 외할머니, 큰 삼촌, 작은 삼촌, 큰 이모, 엄마가 있어요.” (연구참여자 E, 7회기)

1.1.3. 한국어와 학교생활의 어려움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달리,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해외에서 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한국의 공교육에 진입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준비하는 기간을 거친다(배상률, 2016: 35-40). 하지만 이러한 준비를 하고 공교육에 들어오더라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는 여전히 큰 장벽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한국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가 아니라, 진학과 취업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한국어이므로, 한국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로 하는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연구참여자 A가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한국생활적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피로하고 힘이 든 자신의 모습의 이면에 한국어의 스트레스가 있음을 말하였다. A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중국계 중도입국 청소년의 통역을 해줄 정도였다. 하지만 A는 의사소통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이 되지 않아 학교생활과 진로가 고민이 되었다.

“이제 졸업이 가까이 왔어요. 처음 만날 때보다 지금이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안 힘들어요. 할 게 많이 없어서. 지금은 할 게 너무 많아요. 한국어를 많이 알아야 해요” (연구참여자 A, 8회기)

“학교에서 발표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든 과목에서 발표할 때 싫어요. 한국어 발표하는 거 자신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A, 10회기)

연구참여자 D는 전술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길로 묘사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고독한 마음을 이야기하였다. D는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지만, 이 고등학교생활 이후에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한 가운데 있었으며, 학교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았다. 한국어로 공부하고 시험을 치루는 것이 스트레스였다.

“나는 대학을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B국에 있는 친구들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D, 4회기)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시험이 하루에 몰려 있을 때, 스트레스가 많아요.” (연구참여자 D, 11회기)

연구참여자 E는 학교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한국어와 관련된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다. E가 한국에 온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학교생활적용 이상의 수준이 요구되는 학업수행과 진로 준비에 필요한 한국어 수준은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한국어 듣기가 안 되어서 슬퍼요” (연구참여자 E, 4회기)

“저는 한문 시간이 싫어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데, 한국어로 한자를 배우니 더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사 수업에 흥미가 없어요.” (연구참여자 E, 10회기)

1.2. 독특한 결과의 조명

이야기치료의 관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경험은 이야기치료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결과의 조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범주의 의미는 ‘가족 안팎 사람들의 지지’,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 ‘한국어와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라는 하위 범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1. 가족 안팎 사람들의 지지

이야기치료에서 독특한 결과는 내담자가 문제적 이야기를 발견하고 외재화한 이후에 문제적 이야기를 뒤집거나 반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사건이나 경험을 자신의 이야기에서 탐색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고미영, 2004: 166; 화이트, 2010: 263). 그러므로 독특한 결과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경험한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참여자 A는 지치고 휴식이 필요한 심리적인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자신이 기대어 설만한 사람들을 찾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A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두 사람, 할아버지와 선생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할아버지와 선생님은 A가 기댈만한 사람들,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현재 A는 그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없다. 첫째, 할아버지는 A의 양육자였다. A의 어머니는 전 아빠와 이혼한 후에 한국에 먼저 오게 되었다. 어머니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A를 보살피고 키워주었다. 할아버지와 A의 특별한 관계는 본 연구기간 중에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할아버지가 중국 하얼빈에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다. A는 20여 일간 중국 H 시에 방문하여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았다. 연구자는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A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난주에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H 시에 다녀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요. 저를 사랑해 주고 아껴 주셨어요.” (연구참여자 A, 10회기)

둘째, 중학교 선생님은 A의 한국행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A에게 중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시절 내내 A의 담임을 맡아 주셨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외출이 어려웠는데, 선생님은 A에게 필요한 것을 사다주었다. 선생님의 결정적인 도움은 A가 한국행 비자 및 여권을 준비할 때였다. A가 여권 및 비자를 만들 때, 중국인 아빠의 서명이 필요하였는데, 전 부친은 서명해 주지 않았다. 선생님은 A의 아빠를 찾아가서 설득하여 서명을 받아내 주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A는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제가 한국에 올 때, 비자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서명을 주지 않았어요.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한국에 올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A, 12회기)

연구참여자 C(이하 C)는 엄마의 빈자리가 있는 내담자로서, 엄마 없이 아빠와 함께 동반입국하였다. C는 9회기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엄마의 존재를 미술작품이나 이야기에서 표현한 적이 없다. C에게 가족은 아빠이며, 더 확장하면 고모, 할머니, 오빠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C에게 엄마가 존재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C의 심리에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엄마가 C의 가족에서 제외된 것은 이혼 때문인지 사별 때문인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C가 가족을 표현하는 방식은 엄마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C에게 엄마의 빈자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엄마는 근본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9회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C는 엄마의 빈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한다. 아빠가 요리를 해주어도, 엄마가 해주는 요리를 대체할 수 없었다.

“중국에 가고 싶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있어요. 여기가 아버지랑 살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C, 9회기)

“아빠가 요리를 해주지만, 엄마가 해준 요리가 맛있었어요.” (연구참여자 C, 10회기)

C는 엄마의 빈자리를 남자친구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였다. C는 본 연구에서 남자친구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C는 3회기에 남자친구와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였다. C는 토요일마다 OO에서 남자친구와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면서 데이트를 하였다. C는 3회기이후부터 외모와 옷차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뻐지려고 노력하였다.

“지금은 남자친구와 함께 있어요. 미래에는 남자친구와 지우개도장을 만들어요.” (연구참여자 C, 3회기)

C에게 남자친구는 가족의 일원처럼 가족의 전면으로 부상하였다. C의 가족그림에서 남자친구는 가족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로 등장한다.

“우리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중략) 남자친구가 우리가족 사진을 찍어 주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C, 7회기)

하지만 현실적으로 C는 아빠에게 남자친구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빠는 이성교제를 반대하였다. 그래서 C는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들을 아빠가 볼 수 없게 하였다. C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자친구가 아빠에게 인사를 하러 갈 것이라고 계획을 말하였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C가 남자친구와 만들어가는 독특한 결과에서 아빠의 존재감은 점점 축소된다. 아빠와 사는 집, 아빠와 놀던 추억을 묘사하는 이야기는 남자친구와 미래를 꿈꾸고 남자친구와 노는 이야기로 바뀌었다.

연구참여자 D는 한국에서 걸어가는 길의 외로움과 부모에 대한 그리

움을 외재화한 후에 이민자의 길을 먼저 걸어간 부모의 인생을 통해서 독특한 결과를 조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D의 인생에 있어서 한국으로의 이주는 두 번째 이주였다. D는 이미 이민자의 자녀로서 부모를 따라서 A국에서 B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D가 비록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였지만, 이민자의 배우자로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 한국에 부모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부인으로서 온 것이다. 아직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의 이주를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D의 인생에서는 이민자로서의 족적을 뚜렷이 가지고 있었다. D는 전쟁의 포화를 겪은 A국에서 B국으로 이주하였고, 남편과 자신의 꿈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B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한 지원을 받으면서 둘 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D는 이민자로서 자신을 길러주고 사랑해준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한다. D에게 이민자였던 부모가 자신의 인생과 같다고 말한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와 아빠는 제 인생과 같아요.
(중략) 엄마는 내 심장과 같아요.” (연구참여자 D, 11회기)

D가 이민자인 부모를 자기 인생과 같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이다. D는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인생으로부터 이미 한국에서의 이주생활을 극복할 경험과 지혜를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다. D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자신의 부모로부터 찾은 것이다. D는 이민자인 부모의 인생으로부터 독특한 결과를 조명하고 있었다.

1.2.2.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

연구참여자 B는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라져 버린 고향집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B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흥미롭고 독특한 이야기를 발견하였다. 자신의 이름에 너무 익숙해

져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야기였다.

B의 이름은 본래 두 개였다. B가 태어나기 전날에 B의 할아버지가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개의 이름을 받았다. 첫째 이름은 하늘의 순리를 따르라는 의미이고, 둘째 이름 역시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의미였다. 할아버지가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 준 이름이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이름에 관한 신비하고 평범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서, B를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심지어는 할아버지는 B가 집 밖에 나가 놀다가 다칠까봐 집 밖으로 나가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귀하게 대하였다.

“나의 이름은 할아버지가 꿈에서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태우고 왔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에요. 이름이 두 개인데, OO, 하늘의 뜻을 잘 따라라, 다른 이름은 △△이고요. 하나님이 태워준(모셔온) 자식이니 잘 키워라. 할아버지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귀한 자식이라서 할아버지가 집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귀하게 키웠어요. 할아버지가 종교가 없는데도 제가 태어나기 전날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2개 받았고 OO이란 이름으로 정하였어요.” (연구참여자 B, 8회기)

더 나아가서 B는 자신의 성(姓)이 한국에서 온 것임을 재발견하였다. B의 국적은 중국이며, 모국이 중국이지만, 자신의 뿌리가 한국의 경상북도 D 시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에서의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근거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조선족이에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D 시 출신이에요. 일제시대에 중국 S 시로 왔어요.” (연구참여자 B, 8회기)

B는 오래된 습관처럼 사용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재발견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였다. B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항상 자신을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재인식하게 된 자존감과 보호의식은 B로 하여금 한국에서 함부로 살지 않도록 이끄는 윤리적 기초가 되었다.

“저의 이름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자연스럽지만, 저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할아버지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B, 8회기)

B의 기억의 창고에서 오랫동안 감추어진 자신의 이름에 대한 독특한 결과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B는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G는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이 가정에 있음을 외재화하였다. 하지만 G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다툼을 중재할 수 없었다. 엄마와 자신을 소외시키는 한국인 할머니와 아빠의 긴밀한 관계를 바꿀 수 없었다. 가족의 행복을 간절히 소원하지만,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G가 모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복잡한 가정환경에서 물리적 거리, 감정적인 거리를 둘 수 있는 전학이라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G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G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과 관련된 독특한 결과를 조명하는 시도를 하였다.

G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괜찮은 인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다툼이 끊이지 않는 부모를 피하고 싶은 정도로 답답한 현실에서 G는 빛나는 별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 별은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이라는 별이었다. 자신은 전에도 괜찮은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괜찮은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 작품의 제목은 괜찮은 인생이에요” (연구참여자 G, 3회기)

평소에 경직되고 위축된 모습의 G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있다. G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트남에서 다닌 Y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G가 1학년 때까지 다닌 베트남 Y 고등학교는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하는 학교였다. G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였다. 베트남 Y 고등학교에서 G는 친구들도 많았다. G는 불과 1년 전만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와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 G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며, 성취를 경험했다. G는 베트남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그룹에 들어가는 학생이었다.

“베트남 Y 고등학교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으려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어요. (중략)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해요. 1등 학교는 아니지만, 2등을 하는 학교예요. 저는 과학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연구참여자 G, 3회기)

G는 현재의 삶에서도 이러한 노력과 성취를 계속하였다. 특별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였다. G는 한국어로 상장을 받았지만, 한국어로 또 상을 받고 싶어 하였다.

“나의 현재의 귀는 언어를 배우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중략) 한국어 듣기가 잘 안 되서 개선하고 있어요. 베트남어 보다 한국어가 어려워요.” (연구참여자 G, 3회기)

“한국어 열심히 해서 상을 받고 싶어요. 한국어 상장을 이미 받았어요. 또 받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G, 6회기)

G는 자신에게 목표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 내담자였다. 그리고 성취를 이루어 냈다. G는 베트남에서도 노력했고, 한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었다.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하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독특한 결과들을 다시 조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G는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1.3. 대안적 이야기의 재저작

이야기치료의 관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경험은 이야기치료의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대안적 이야기의 재저작, 즉 다시 쓰기로 나타난다. 이러한 범주의 의미는 ‘상징의 의미변화’, ‘심리적 문제의 해소’ 라는 하위 범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1. 상징의 의미변화

연구참여자들은 미술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를 상징으로 표현한 후에 소감문 및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회기 중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상징에 부여한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심리적인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며, 미술기반 이야기치료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A는 프로그램 초기단계에서 자신의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하지만 후기단계에서 A는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할아버지가 나무에 달아준 그네를 타면서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

“어려서부터 그네를 탔어요. (중략) 그네는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만들어 준 그네를 타니 기분이 좋아요.” (연구참여자 A, 9회기)

연구참여자 B는 나무를 바라볼 때, 고향의 터전이 사라져서 쓸쓸한 감정이 생겼다. 하지만 B는 그 나무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만남의 장소

로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저는 그네에 타고 있어요. 지금은 혼자서 타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는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아요. 친구를 만날 마음에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이 나무는 어릴 때부터 보던 나무예요. 그래서 같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하고 편안해요.” (연구참여자 B, 9회기)

연구참여자 C는 1회기에 나무를 주제로 그린 그림에서 C는 새싹에 물을 주고 있으며, 아빠가 자신을 지켜보는 모습을 미술로 표현하였다. 9회기에서 같은 나무를 주제로 한 그림에서 C는 다시 새싹에 물을 주지만, 아빠는 없었다. 새싹은 성장과 생명력의 상징이다. C는 새싹에 물을 주면서 커다란 나무로 자랄 것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초기의 그림과 달리 후기의 그림에서는 C는 아빠의 품에서 독립한 성장을 갈망하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새싹에 물을 주고 있어요. 물을 주고 나니 기분이 좋아요.” (연구참여자 C, 9회기)

연구참여자 D는 초기에 나무 옆에 있는 길을 걷는 사람을 ‘거리에서 있는 유일한 사람’ 이라고 말하였다. 후기에 D는 나무 옆에 있는 길에 여러 명의 관광객들이 있지만, 자기 자신은 이 길 위에 없다고 말한다. D는 이민자로서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가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나무 옆에 길이 있고, 그 길에 사람이 걸어갑니다. 거리에서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연구참여자 D, 2회기)

“이 곳은 숲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예요. 저는 여기에 없어요.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이 있어요.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가면 오솔길이에요.” (연구참여자 D, 9회기)

1.3.2. 심리적 어려움의 해소

연구참여자들은 대안적 이야기를 재저작, 즉 다시 쓰기를 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식은 연구참여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A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승화하고 할아버지가 베풀어준 사랑의 상징물인 그네를 표현하였으며, 중학교 선생님의 자신에 대한 강한 지지를 통해서 어려움을 뚫고 한국에 존재하는 이유를 상기하였다. 이를 통해서 A는 자신의 피로감을 완화하고 한국에서 살아갈 용기를 되찾으면서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재중동포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이미 익숙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으나, 나무의 뿌리가 뽑힌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를 표현하였으며, 이주과정에서 오랫동안 헤어진 부모와 재결합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호소하였다. 하지만 B는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주된 문제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변화되어, 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들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관점이 변화하는 방식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프로그램 초기에 유일한 가족구성원인 아빠와의 애착 관계를 표현하였지만, C의 새로운 지지자인 남자친구를 통해서 점차 아빠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C는 여전히 아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놓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장과 자립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심리적인 성장의 의지를 심화시켰다.

연구참여자 D는 이민자의 배우자이면서 동시에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살아야하는 이중생활의 가면 때문에 앞으로 이민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할지 모르는 막막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D는 이민자였던 부모의 인생을 생각하며 자신의 문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복잡한 가족사와 이주의 과정 속에서 아빠 없이 자라났으며, 엄마와 오래 헤어져 지내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현재도 한국인 새 아빠의 존재감이 E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E는 자신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을 하나로 조화된 아름다운 색깔로 인식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연구참여자 F는 미술-이야기융합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적 이야기와 대안적 이야기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유를 갈망하는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였으며, 자신의 강점과 미래의 꿈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완화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이주의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목마름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다. G는 가족의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의 모습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였으며, 새로운 학교로의 전학을 통해서 여전히 갈등이 많은 가정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의 중·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았던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 기억하면서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G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속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서 도전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변화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2.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효과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ANCT) 프로그램 참여경험을 회기별로 기술하였으며, 이야기치료의 관점에서 참여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참여경험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미술-이야기융합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하고 해소하는데 있어서 잠재적인 효과가 있으며, 그러므로 미술-이야기융합치료가 잠재적인 가치를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용한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를 외부 관찰자를 통해서 관찰하였다. 외부관찰자는 G고등학교의 다문화 담당교사 2인이다. 다문화담당교사를 외부관찰자로 섭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학생들은 행정적으로는 G고등학교의 일반학급에 편성되어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비다문화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에 참여한다. 하지만 다문화예비학교로 지정된 G고등학교는 이들을 위해서 한국어, 심리치료수업 등의 수업을 별도로 개설하였으며, 한국어교사, 미술치료사 등을 채용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전담하는 다문화담당교사가 중도입국 청소년이 소속된 학급의 담임교사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더 많은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내고 대화하고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의 신상 변화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담당교사 2인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미술-이야기융합치료프로그램이 종료된 직후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다문화교사는 다음과 같다. 담당교사 A는 다문화예비학교에서 한국어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연구참여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참여학생들의 개별적이고 전반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 담당교사 B는 다문화예비학교의 운영실무를 맡고 있는 부장교사로서 참여학생들의 전반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 다문화담당교사들의 관찰내용을 기반으로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효과를 범주화하면 다음

<표 V-2>와 같다.

<표 V-2>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전반적 효과	재미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
	밝고 즐거운 표정의 외적 변화
	정서표현 자신감과 용기의 내적 변화
개별적 효과	연구참여자 A: 열린 마음, 스트레스 완화
	연구참여자 B: 표현에 대한 부담에서 재미로 변화
	연구참여자 C: 어려움 중에도 성실한 참여
	연구참여자 D: 밝은 표정, 진로에 도움
	연구참여자 E: 방어적, 과묵한 자세에서 표현으로 변화
	연구참여자 F: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
	연구참여자 G: 표현에 대한 부담에서 성실한 참여로 변화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 담당교사들은 미술-이야기 융합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반적이고 개별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진술하였다.

2.1. 전반적 효과

다문화담당교사들은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중도입국 청소년은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전반적인 변화는 ‘재미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 ‘밝고 즐거운 표정의 외적 변화’, ‘정서표현 자신감과 용기의 내적 변화’ 라는 하위 범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주면서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였다.

“애들한테 내가 조금씩 한 번씩 물어봐요. 이 수업 재미있나. 그렇게 하면 인제 음악, 미술 수업이 제일 재미있대요. 한국어 수업보다는 일단은. 왜냐하면 한국어는 머리 써야 되잖아요. (중략) 그래서 음악, 미술 수업 되게 재미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인제. 근데 인제 애네들도 말을 잘 못 하니깐 저랑 그렇게 통하는, 통, 말이 안 되는데 인제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중략) 근데 인제 애들한테 인제 한 번씩 물어보면 미술 수업하고 음악 수업은 참 재밌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사 B)

본 연구가 구안한 바대로 미술-이야기융합치료가 전반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위주로 편성된 일반 고등학교의 교과목은 단순한 의사소통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선행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어를 잘 모르고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조차도 학교수업에 접근하고 따라가기 쉽지 않았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어와 학교수업에 대한 어려움은 앞 절의 분석에서도 기술하였다.

하지만 미술-이야기융합치료프로그램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부담이 아니라 재미가 있는 활동으로 기억이 남았다는 것이 담당교사들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심리치료에 대한 개념과 경험이 없는 연구참여자들조차도 미술-이야기융합치료프로그램에 별다른 준비나 부담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에서 위(WEE) 클래스와 같은 상담실을 제공하고, 교육청에서 상담지원센터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깐 이제 심리치료 같은 거는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도 미술치료도 하셨지만은 이때 우리 위클래스가 있거든요. 거기 인제 애들 그거 하면 오라고 하는데 애네들 잘 안 와요. 되게 굉장히 잘 안 오고 소극적이예요. 일단 언어가 안되니깐 잘 안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오래 하면 상담 지원센터도 있어요. 다문화. 그것도 교육청에서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애들한테 안돼. 애네들은 그거를 갖다가 좀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내용을, 속을 들여, 들여다보면 굉장히 고민하는 애들도 많고 좀 어려운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색을 잘 안 하려고 해요”(교사 B).

둘째, 미술-이야기융합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외적인 변화는 밝고 즐거운 표정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들의 눈에 떨만한 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제 가끔 저 사진을 받아보잖아요. 저희도 이제 사진을 막 이렇게 스크랩해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막 사진 찍은 거 보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니깐 애들 표정도 되게 밝고, (중략)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대로 다 자기들이 표출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인제 뭐 발표할 때 그런 모습이 인제 사진에 이렇게 보였을 때도, 애들이 되게 즐거워하고”(교사 A)

연구자는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매 회기마다 현장사진을 다문화 담당교사들에게 송부하였다. 연구자가 현장사진을 촬영할 때 연출된 이미지를 촬영하기 보다는 회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열중하고 진지한 태도 등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진을 본 담당교사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다른 수업 때와 다른 얼굴 표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한 치료프로그램은 지식전달식 혹은 치료사중심의 일방향적인 수업이 아니다. 본 프로그램은 연구참여자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고, 연구참여자 와 치료사 사이에서, 연구참여자 와 연구참여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쌍방향적인 수업이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 경험담,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표정이 보다 활기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문화담당교사들은 중도입국학생들의 밝고 즐거운 표정을 외적인 변화로 보았다.

셋째, 미술-이야기융합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내적인 변화는 심리표현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담당교사들은 참여학생들이 뭔가를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뭔가 그 가정에서 어쨌건 힘들었지만 그걸 결과물을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타인에게 나는, 나는 뭐야 라고 소개할 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그게 자신감을 갖는다고 해야 되나? 예. 그 표현할 수 있는 거, 네. 근데 그게 확실히 그게 딱,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칠판에다 뭘 쓰는 걸 좋아해요. 뭔가 그리고 원래 그전에는 칠판은 선생님 거지 우리가 낙서는 못해 라는 원래 그런 개념이 있었지만, 근데 애네들 좀 되게 그게 자유로워” (교사 B)

본 연구가 진행한 치료프로그램은 미술활동과 이야기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생각,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중도입국 청소년을 격려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마치면 자신의 활동결과물인 미술작품과 소감문을 눈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다. 참여학생들은 자신의 참여 결과물을 좋아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사진을 찍어서 남기기도 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집단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아픔과 나누기 힘든 이야기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이야기치료의 정의예식을 차용하여, 의도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치료사와 집단원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비록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힘들어하던 연구참여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미술작품을 칠판에 붙이고 구두로 발표할 수 있는 기

회를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였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연구참여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어려운 순간을 학교수업에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한국어로 발표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하지만 담당교사의 관찰내용처럼, 참여학생들이 칠판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고 말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본 프로그램이 참여학생들이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2. 개별적 효과

다문화담당교사들은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중도입국 청소년 개인마다 변화된 내용을 관찰하였다. 개별적인 변화는 ‘열린 마음, 스트레스 완화’, ‘표현에 대한 부담에서 재미로 변화’, ‘어려움 중에도 성실한 참여’, ‘밝은 표정, 진로에 도움’, ‘방어적, 과묵한 자세에서 표현으로 변화’, ‘특별한 변화가 없음’, ‘표현에 대한 부담에서 성실한 참여로 변화’라는 하위 범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 A는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스트레스가 완화되었다. A가 3년 전에 학교에 처음에 왔을 때, 기본적인 대화 밖에 안 되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이제 A는 학교에서 주목할 만큼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

“A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여기 학교 왔을 때는 약간 그니깐 대화가 안 됐거든요. 애는 기본적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밖에 안 되는 아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일치월장한 케이스라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교사 A)

이러한 A의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분 미술-

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은 휴식과 안정을 호소하였던 A의 마음을 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때부터 아이가 좀 이거 수업하면서. 좀, 예, 약간 그런 오픈된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확실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거나, 이런 거나, 굉장히 피드백도 빠르고. (중략) 근데 인제 고게 인제 미술수업이랑 저희가 음악수업. 네. 그런 거 하면서 인제 좀 스트레스를 인제 완화 시켜주고. 아이들이 인제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위주로 시작한 건데 고게 좀 되게 잘된 케이스가 좀 A이었던 거 같아요.” (교사 A)

다문화교육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교사는 참여학생 A의 변화만을 보더라도 이 심리치료프로그램은 가치가 있었으며, 이를 지도한 연구자가 A의 삶에 의미가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A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고. 예.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교사 B).

둘째, 연구참여자 B는 미술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로 재미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였으며, 전반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었다. B는 자신이 미술에 대한 소질과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주저하는 자세를 보였다.

“미술 같은 거나 음악은 뭔가 전문성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다 나 그림 못 그리는데, (중략) 이 친구는 음, 수업 태도나 요런 거는 있는데 조금 조는 거는 간간히 있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거 같아요.” (교사 A)

하지만 B는 본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재미있다고 표현

하면서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미술활동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주저하는 B에게도 흥미롭게 다가가고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내담자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며 자발적인 접근이 어려운 기존의 상담 및 심리치료와 차별화된 부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저도 B한테 들은 거예요. 너무 재밌다.” (교사 B).

셋째, 연구참여자 C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담당교사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학생이었다. C는 1년 전에 집의 창문에서 낙상하여 크게 다친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다. 그래서 C는 또래들에 비하여서 언어적으로 어눌해지고 신체적으로 느려지는 부분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친구도 잘 사귀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였다. C의 주요 호소문제는 엄마의 빈자리를 자신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었다.

“하여튼 요 친구가 좀 많이 안타까워, 안타까워요. 좀 약간 그래서, 네 근데 약간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고 또래 수준은 아니고” (교사 B)

하지만 C는 다른 수업에는 지각도 하고 결석을 하려고 하는데, 본 프로그램에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석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평소에 애니메이션을 그리기를 좋아하고 미술적인 재능을 가진 C에게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더불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적어도 치료사와 집단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C는 본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출석율을 보이면서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C는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성실하게” (교사 B)

넷째, 연구참여자 D는 닫힌 마음에서 표정이 밝아졌으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 D는 결혼한 신분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해야하는 자신의 상황을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숨기는 연구참여자였다. D는 한국의 학교 생활이 어렵고, 졸업 후의 진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오는 불안한 심리를 호소하였다. 하지만 담당교사는 D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관찰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D로 하여금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심리를 간접적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자신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는 집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한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은 D가 이전보다 표정에 변화가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 D는 오픈을 잘 안해요. (중략) 요 친구도 좀 많이 밝아졌어요.” (교사 B)

본 프로그램은 자신의 진로나 재능, 장래직업 등을 탐색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평소에 진한화장을 하고 다닐 정도로 화장, 미용 등에 관심이 많은 D에게 본 프로그램은 화장 및 미용과 관련된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조언을 주었으며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D는 본 프로그램의 미술치료측면에서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된 효과가 컸다고 교사들은 관찰하였다.

“미술수업이나 좀 이런 거를 아마 되게 고런 거 하면서,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딱 그게, 그게 딱 확정된 거 같아요. 약간 메이크업 헤어 :그래서 이번 진로, 그 대학교 진학한다고 준비하는데 과를 헤어 메이크업 본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그 미술수업이 오히려 아

이한테 더. 네. 플러스 된 효과가 딱 그제 지금 D가 더, 자기 진로랑 이게 미술이랑. 또 여기서도 선생님께서도 딱 그런 것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기 미래 장래희망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중략) 효과가 되게 컸던 거 같아요.” (교사 B)

다섯째, 연구참여자 E는 방어적이며 표현하기를 주저하는 자세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세로 변화가 있었다. E는 복잡한 가정사와 이주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을 잘 보여주지 않는 연구참여자였다. 하지만 담당 교사에 따르면, E는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표현하기를 주저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연구자는 E로 부터 자신의 한국 가족에 대한 이야기, 특히 한국인 새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심리가 없지 않아 있었다.

“욕심도 많고, 말도 많고, 이렇게 말이 없는 거 같은데, 또 하면 하고 약간, 좀 약간 예의 없는 거 같은데 또 예의, 또 어느 때 보면 약간 애는 중잡을 수 없는 애 인거 같아요. 낯은 좀 특유의 뭔가, 약간 방어적 인 거 같긴 한데, 또 그렇지 않은 거 같고, ” (교사 B)

하지만 본 프로그램은 E로 하여금 자신을 방어하고 폐쇄하던 자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 담당교사는 본 프로그램의 미술치료적 측면이 외모에 관심이 많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여자청소년인 E의 특성에 부합하였으며, E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친구도 아마 뭔가 꾸미거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미술수업도 아마 되게, 근데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확실히 미술수업을 하면서 자기에 있는 거를 많이 터놓는 게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교사 B)

여섯째, 연구참여자 F는 미술-이야기융합치료에 참여하면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연구참여자 F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가장 낮은 학생이었다. F는 담당교사나 연구자에게 보고 없이 여러 번 결석하였으며, 연구자는 결석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담당교사는 F가 많이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한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본 프로그램이 심리치료 측면에서 F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심리를 정확하게 표현하였으며, 연구자는 자유를 갈망하는 F의 심리적인 주요 호소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좀 많이, 좀 많이 방황하고 있고.네. 걸 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 다니고 싶지는 않다고, 그 위 클래스선생님한테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 상담을 했는지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인제 그 위 클래스선생님한테 인제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예. 학교 다니기 싫다고. 그러니깐 재미도 없고, 어쨌건 지금 교우관계나 전반적인 게 너무 다” (교사 B)

일곱째, 연구참여자 G는 미술표현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G는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화목하지 않은 가족으로부터의 도피처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G는 본 프로그램의 종료와 거의 같은 시점에 전학을 갔다. 그러므로 담당교사들도 프로그램 이후 G의 심리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G의 개별적인 변화를 진술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담당교사들은 G가 미술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프로그램 참석을 주저하였던 데서, 성실하게 참여하는 자세로 바뀌었다고 관찰하였다.

“그리고 인제 미술수업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깐 힘든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근데 좀 여기 적응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 적응하면서, 너 가 생각하

는, 애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나 그림 못 그린다고, 그니깐 나 이거 안 해도 된다고, 너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 아니니깐 하라고, 그러니깐 입 삐죽 삐죽 거리면서, 입 삐죽삐죽 거리면서 인제 아마 좀 했을 거여서.” (교사 B)



3. 소결

본 장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의 의미를 이야기치료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틀로 활용된 이야기치료의 세 가지 범주는 문제적 이야기의 발견, 독특한 결과의 조명, 대안적 이야기의 재저작이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은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발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호소한 주요 심리적 문제는 휴식과 안정, 흔들리는 정체성, 진로에 대한 방황, 엄마의 부재로 인한 허전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으로부터의 도피, 자유에 대한 갈망 등이었다. 이는 가정에서 새로운 가족관계의 어려움, 학교에서 한국어와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모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일련의 이주과정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이주 전·중·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이론적인 논의에서 이미 기술하였던 것처럼, 중도입국 청소년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라는 다양한 층위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상담과 심리치료는 비다문화청소년의 상담 및 심리치료와 다른 접근, 즉 이주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은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뒤집을 수 있는 독특한 사건들을 자신의 경험에서 발견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안팎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해 주고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경험을 말하였으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말하였다. 이러

한 독특한 결과의 조명을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한국에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졌다.

독특한 결과의 조명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 시사하는 바는 효과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해서 가정, 학교, 사회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지지집단 혹은 이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은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출된 이야기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며 대안적인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공고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주요 표현기법으로서 은유와 환유를 사용하여 무의식과 의식 세계의 이야기를 표현하였다. 대안적인 이야기의 다시쓰기에서 특징적인 점은 연구참여자들이 초기의 미술치료에서 표현한 상징들의 의미가 후기단계에서는 새로운 의미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적어도 자신의 심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경험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대안적 이야기의 재저작이 시사하는 바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평소에 말하기가 어려운 심리를 미술치료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이야기치료를 통해서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환유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의 어려움 때문에 언어적 치료를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용하기 어려워서 비언어적인 미술치료 중심의 심리치료로 진행되어온 통념을 깨고, 언어적 치료, 즉 이야기치료를 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치료의 효과는 단순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적인 능숙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환유적 재구성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의 발달단계에서, 자신의 과거-현재-미래의 사건을 연결하고 충분히 재구성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야기치료를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미술-이야기융합치료는 미술치료에서 나타난 무의식 세계의 표현과 이야기치료에서 나타난 의식세계의 표현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경험의 의미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국어가 비록 부족할 지라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자신이 사용한 은유적 상징의 의미를 환유적으로 재구성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경험을 통해서 본 연구는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잠재적 치료효과와 활용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장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용한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를 외부자인 다문화담당교사를 통해서 관찰하였다. 담당교사들은 미술-이야기 융합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반적이고 개별적인 변화를 진술하였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은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외적으로는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바뀌었으며, 내적으로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졌다.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전반적인 효과가 시사하는 바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위해서 먼저는 내담자의 자발적인 참여도와 용이한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내담자주도적인 치료, 내면세계를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이야기융합치료는 위-클래스와 같은 기존의 학교상담체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내적·외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은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개별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개인마다 변화의 정도와 내용은 다르며, 별다른 변화가 없는 연구참여자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에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치료에 대한 부담이 흥미와 재미로 바뀌었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자기표현이 어려웠던 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졌으며, 적성 및 진로발견에 도움이 되는 등의 개별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보였다.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개별적인 효과가 시사하는 바는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가진 집단역동성을 잘 활용하면 개별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동일한 주제와 재료를 가지고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그림을 보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표현하는 내면세계는 전혀 동일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였지만, 다른 연구참여자들보다도 소통하였다. 다른 학생들의 경험과 어려운 이야기도 듣고 공감하면서 자신만이 그러한 어려움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위로받았다.

비록 본 프로그램은 개인상담의 장점인 한 사람에 대한 집중과 깊이가 있는 대화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어떤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개인프로그램이 아니라 집단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집단에 녹아들면서 다른 연구참여자들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흘러보냈다.

결론적으로 외부관찰자의 관점에서 미술-이야기융합치료프로그램 참여학생들의 외적·내적인 성장과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효과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 미술-이야기융합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

리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연구대상자를 상대로 양적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사전-사후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양적 연구가 아니라, 소수의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이야기, 변화의 과정, 개별적인 의미에 집중하는 질적 연구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 이주배경중도입국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여 일반화할 수 없지만, 본 사례연구결과는 향후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이야기치료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였으며, 이야기치료와 미술치료를 융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에 이야기치료와 다양한 치료기법의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Ⅵ. 결 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이주민 2세대인 이주배경청소년,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주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인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Art-Narrative Convergence Therapy: ANCT)에 참여하면서 변화되는 참여경험을 분석하고, 이들의 참여경험에 나타난 치료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주민 1세대의 국내 정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2세대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양육, 교육, 진로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학계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다문화가족정책을 검증하는 시험대이며, 향후 한국다문화사회의 발전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도약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이와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심리치료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의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II장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내 현황과 정책을 통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정책적인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실제적으로 이들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상담 및 심리 치료적인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 가정, 학교, 사회라는 맥락에서 통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기법을 이야기치료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심리치료가 미술치료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이야기치료를 주된 이론으로 사용하고 미술치료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두 치료가 융합될 때 보다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한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사례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설계, 연구절차, 연구참여자, 자료수집 및 분석, 그리고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적 고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임상자료수집은 2018년 5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다문화예비학교로 지정된 I시의 G고등학교에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2회기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7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을 미술작품, 소감문 및 발표자료, 참여관찰, 인터뷰 등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Ⅳ장에서는 연구문제 1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7명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치료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12회기를 초기, 중기, 후기의 단계별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미술과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과 관련된 경험을 점진적으로 발견하였으며, 그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발전시켰다.

초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생활, 진로, 일상생활 등에서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미술을 통해서 은유를 사용하여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거나,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환유를 사용하여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세계

를 표현하였다. 하지만 표현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참여자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한국어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연구참여자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가 언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중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야기의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였다. 참여자들의 경험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를 지향하면서 이야기의 시간이 연대기적으로 연결되고, 모국에서 한국으로,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일상생활의 현장으로 공간이 확장되었다. 경험한 이야기의 초점이 자신에게서 가족구성원으로 확대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을 가족관계에서 찾았다. 그것은 가족과의 헤어짐과 재결합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독특한 가정적인 맥락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헤어짐과 재결합의 방식과 심리적인 어려움은 연구참여자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중기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장점에 근거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구체화시켰다.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들의 목록, 자신에 꿈꾸는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목록,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와 부합하는 전공학과와 전공이 개설된 대학교 이름 등으로 구체화시켰다.

후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초기 및 중기 단계에서 등장한 상징물을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그 의미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켰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고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하여 말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초기와 중기에 나타난 가족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갈등이 해결되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승화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마다 상징물에 부여하는 의미에 차이가 있었으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V 장은 연구문제 2와 관련한 연구결과로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경험을 문제적 이야기, 독특한 결과, 대안적 이야기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참여경험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적용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발견하고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대안적인 이야기를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일련의 치료적인 경험을 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문제적 이야기는 이주를 겪으면서 발생한 심리적인 변화에 관한 이야기로서, 주로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 한국어 및 학교생활에 대한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문제적인 이야기를 표현할 때, 상징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마다 같은 상징을 사용하더라도 부여한 의미는 달랐으며, 그들이 느낀 심리적 어려움의 내용과 갈등이 있는 가족구성원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독특한 결과는 가족 안의 인물, 가족 밖의 인물, 혹은 자기 자신의 강점,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조부모, 부모, 중학교 선생님,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게 내재된 성장욕구, 잠재력, 혹은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문제적 이야기를 뒤집을 만한 근거를 발견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대안적인 이야기는 문제적인 이야기에서 사용한 상징물에 부여한 의미를 새롭게 변화시킨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심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경험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경험을 통해서 볼 때 본 연구는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잠재적 치료효과와 활용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용한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를 외부자인

다문화담당교사를 통해서 관찰하였다. 담당교사들은 미술-이야기 융합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첫째,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외적으로는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바뀌었으며, 내적으로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개별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개인마다 변화의 정도와 내용은 다르며, 별다른 변화가 없는 연구참여자도 일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심리치료에 대한 부담이 흥미와 재미로 바뀌었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자기표현이 어려웠던 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졌으며, 적성 및 진로발견에 도움이 되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구안한 미술-이야기융합치료의 잠재적 치료효과와 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중도입국 청소년 심리치료의 잠재적인 가치를 확인한 이야기치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치료기법들과 융합치료를 시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임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논의 및 제언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치료기법으로서 이야기치료를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였다. 국내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야기치료를 주된 치료기법으로 적용한 연구는 전무(全無)한 상황이며, 일부 연구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미술치료에서 일부 활용한 수준에 불과하다(곽승주, 2013).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생긴 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불과 5년이 되지 않은 짧은 역사 속에서, 국내의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미술치료 중심의 치료를 진행해 왔다. 본 연구에 참여한 7명의 연구참여자들 중에서도 한국어의 어려움이 있는 3명의 참여자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술치료를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매체로 사용하여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도출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가 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치료이론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이야기치료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발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대안적인 이야기를 찾기에 충분한 치료적인 과정을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어의 제한 때문에 비언어적인 예술치료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선행 연구의 통념을 깨고, 본 연구는 이야기치료를의 효과가 단순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숙달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환유적 재구성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향후에 이야기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이고 임상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가 융합치료적인 맥락에서 활용되었을 때 시너지효과를 확인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푸드테라피, 음악치료 등을 일부 도입한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융합치료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치료프로그램은 융합치료의 4가지 유형 중(Stricker & Jerry, 2008: 390)에서 이야기치료에 미술치료를 흡수하는 흡수통합방식을 취함으로써, 주요치료기법인 이야기치료에 미술치료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미술치료활동이 내담자의 풍성한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매개체가 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미술치료에서 무의식 세계를 다루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치료에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내담자가 미술활동에서 사용한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내담자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환유적으로 연결하고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의 장점을 활용한 융합치료모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는 일종의 내담자중심적인, 자기주도적인 심리치료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미술치료는 구조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인간 내면의 심층구조에 초점을 둔다. 내담자가 그림에서 표출된 이야기의 상징과 의미를 중요하게 본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김유숙 외, 2013: 168). 하지만, 본 연구의 핵심적인 치료이론인 이야기치료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의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적인 진리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실제 그대로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재구성된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야기치료의 기본 전제는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와 해결방향을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치료사는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유도하지 않았다. 각 회기마다 제시된 주제 안에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미술활동과 이야기활동을 통해

서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통제적이고 인위적인 환경이 아니라 평소에 생활하는 교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런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야기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치료 경험은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각본을 다시 쓰면서, 한국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지속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비롯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공교육기관에 유입되고 있으며, 향후에 상당한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학교와 관련정책기관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준비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며, 학교와 관련기관은 현황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정신의학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의 정신질환을 가진 내담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이주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중·후의 일련의 이주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가족관계, 한국에서의 새로운 언어와 문화적응의 어려움,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이중 삼중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안정시킬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가진 부모조차도 중도입국자녀들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낮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들의 심리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질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학교에 전적으로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학교의 현

실도 열악한 상황이다. 본 연구가 진행된 다문화예비학교를 보더라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행정적으로 일반학급에 배정되어 담임교사의 지도와 관리 아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다문화담당교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문화담당교사들이 신상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학교는 위클래스와 같은 상담실을 제공하고 교육청은 상담지원센터로 연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만일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주배경청소년이 학교에 급증하게 되었을 때, 학교에서 이러한 학생들을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비롯한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살생각율이 비다문화청소년들보다 두 배가 넘는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학교현장에는 고위험군에 속한 이주배경청소년이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안인영 외, 2016). 하지만 학교와 유관기관의 준비와 대책은 매우 미진하다. 이런 점에서 현황파악 및 후속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학교는 교육, 행정,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 측면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신건강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본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하였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수업을 마치고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참여함으로 인해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담당교사들은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에 배정한다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학교는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정규수업시간에 편성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예비교실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 따르면,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할당받은 예산을 소모하는 데 급급하고 단기적인 실적을 만들어 내야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입장에서는 다문화 전담교사나 전담 행정실무자가 없다면 일반교사가 추가적으로 다문화관련 업무를 담당해야하고 기간제 교사를 단기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학교와 유관기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교육, 다문화상담 등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학급에 전담교사가 있는 것처럼, 다문화관련 전임교사 및 전담실무자를 채용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 상담 및 심리치료, 행정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본 융합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출된 참여학생들의 심리적인 내용을 가정과 학교와 공유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내용 뿐만 아니라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심리치료 관련 프로그램이 일회성의 프로그램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본 연구를 통해서 참여학생들로부터 확보한 상당한 분량의 심리관련 자료와 분석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참여학생들을 1학년부터 졸업이후 까지도 섬세하게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학부모들도 자신의 자녀의 심리적 발달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아쉬움은 담당교사들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학교현장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임상사례를 확보해야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비롯한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례 자체가 학교현장에서도 부족하다보니, 교사들은 실제로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하고 지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미술-이야기 융합치료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기존의 학교상담실보다도 수월하게 상담 및 심리치료에 접근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방식과 내담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치료경험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미

미술-이야기융합치료프로그램은 연구참여자인 중도입국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외부관찰자인 담당교사들을 통해서 잠재적인 효과와 치료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서 미술-이야기융합치료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적합하게 변용하여 활용한다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임상사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학교 교사들과 행정가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이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들의 정서변화와 심리치료에 긍정적임을 발견하였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야기치료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미술치료에서 활용하는 미술활동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미술치료의 관점에서 분석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이야기치료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미술치료분석에 대한 내용이 본 연구에서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학술지에 미술치료분석에 보다 초점을 둔 대한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개별화된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아니라 집단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 다시 말해서 연구참여자들은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경험하였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였다. 이런 집단성에 근거한 본 연구의 강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본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역동성에 대한 분석이 약화되었다. 그러므로 향후에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집단프로그램으로서의 장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 연구가 집단성에 근거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별상담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서로 근접한 거리의 장소에서, 한정된 시간에, 다수의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니 가족관계 및 개인적인 고민 등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

한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로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임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적 임상에 나온 결과와 집단적인 임상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미술-이야기융합치료에 참여한 7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리변화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같은 내용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같은 국적의 중도입국 청소년일지라도 심리적 문제와 해결 방식이 다양함을 제시하였다. 향후에 본 프로그램을 다양한 국적의 중도입국 청소년에 적용하여 임상자료를 축적하고 국적별, 입국시기별, 연령별 등의 맥락으로 공통점과 다양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야기정체성 지도를 구축함으로써,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주제는 최근에서야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이론연구, 치료프로그램개발, 임상적용을 통해서 연구를 확대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나가면서

“치료사 자신이 배워야 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만일 치료사 자신이 깨끗하지 않은 봉대라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 치료사가 건강하고 강하지 못하면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든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한때 나의 치료 대상자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에 대해 분개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치료란 양쪽 날을 지닌 끝과 같음을 알게 되었다. 한 쪽 날로는 치료 대상을 다듬지만 다른 한 쪽 날로는 치료사 자신을 다듬는 것이다”(Van Riper, 1979)

위의 문구는 언어치료 분야에서 잘 알려진 Van Riper가 언어치료가 치료대상자에게 주는 의미가 아니라 치료사인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성찰하면서 쓴 글이다. 그에 따르면 치료사는 단순히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치료대상자를 치료할 수 없다. 치료사 자신이 치료의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치료사가 먼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치료대상자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투사될 수 있는 치료사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결국에 치료라는 행위는 치료대상자 뿐만 아니라 치료사 자신을 다듬고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심리치료는 질적 연구와 매우 유사하다. 질적 연구자 자신이 주요 연구도구이며,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성찰적인 자세를 가지고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김영순 외, 2018: 17-42).

본 연구에서 수행한 미술-이야기융합치료를 통해서 연구자 본인은 7명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만났다. 그들은 미술과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성장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받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삶의 희망을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하지만 연구자 본인

은 매 회기를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에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미술작품을 수집하고 학생들과 찾아다니면서 대화하고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데 집중을 하느라고 연구참여자들을 개별적으로 섬세하게 돌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자에게 순수하게 다가와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들려주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자에게 남긴 수많은 이야기들은 마치 구슬들이 하나의 줄에 꿰어지듯이 엮여지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나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연구자가 연구동기에서 기술하였던 것처럼 연구자 본인의 가족사와 이민사를 관통하는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품게 되었다.

연구자 본인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항상 함께할 수 없으며, 이들의 졸업 이후의 진로까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들을 잘 돌보아 줄지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잘 잡고 살 수 있을지 이들의 미래가 걱정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소기의 목적은 성취한 것이다. 연구자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국내 이주민의 상담 및 심리치료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다문화심리치료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하겠지만, 그들의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있다.

참고문헌

- 고미영. (2004). *이야기 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서울: 청목출판사.
- 고미영. (2012). *초보자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 서울: 청목출판사.
- 공마리아. (1995). *난화 상호 이야기법을 통한 미술치료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 대구대학교.
- 곽승주. (2013).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만들기 미술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야기구성 및 정서표현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 건국대학교 .
- 교육부. (2017). 2017년 다문화지원계획안.
<http://blog.naver.com/moeblog/220909378876>.
- 구자황. (2015). 은유와 환유에 대하여 - 개념의 수용 양상 및 확장적 이해를 위한 시론(試論).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3), 5-3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a). 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2&efYd=20170621#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b). 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542&efYd=20170321#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c). 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213&efYd=20170726#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d).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27&efYd=20170922#0000>.
- 권은영. (2004). *포레-주도 난화 상호 이야기법이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 공주대학교.
- 김미정. (2002). *난화 상호 이야기법을 통한 선택적 함묵아의 문제행동 개선에 대한 사례연구*(석사학위). 대구대학교.
- 김연진. (2013). *정서순화예술놀이를 통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향*

- 상 연구: 유리드믹스 음악놀이 & 푸드아트놀이를 중심으로(석사학위). 숙명여자대학교.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 임한나. (2018). *질적 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영순·박봉수·팜티웬짱(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중심 재사회화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언어와 문화*, 8(3), 37-63.
- 김영아. (2001). *난화 상호 이야기 만들기법 적용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언어행동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 창원대학교.
- 김위향(2004). *난화상호이야기법이 정인지체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 대구대학교.
- 김유숙, 고모리 야스나가, 최지원. (2013). 놀이를 활용한 이야기치료. 서울: 학지사.
- 김이선, 최윤정, 동제연, 신현옥, 채소린. (2016).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중 · 장기 발전방안 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 김정옥. (2015).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 평택대학교.
- 김지연. (2004). *난화 상호 이야기법을 통한 미술치료가 ADHD 유아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 경기대학교.
- 김지인. (2017).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예술 치료 사례 연구*(석사학위). 한양대학교.
- 김흥기. (2015). *국내 중도입국자녀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현주. (2016a). 중도입국 청소년 상담의 치료적 요인에 대한 탐색 - 상담자의 상담경험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8(5), 1-29.
- 김현주. (2016b). 중도입국 청소년 상담의 치료적 요인에 대한 탐색- 상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8(2), 77-111.
- 김혜경. (2008).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치료 프로그램 개발*(박사학위). 서울여자대학교.

- 두영란. (2003). *난화 상호 이야기법이 ADHD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 대구대학교.
- 민나리. (2018a). [사각지대 놓인 중도입국 청소년] 부모 따라 한국 온 다문화자녀 1만~3만명…통계도 복지도 캄캄. 서울신문. URL: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09016004#csidx8188b95ab129d9499f88a7686929a0b>.
- 민나리. (2018b). [사각지대 놓인 중도입국 청소년] 주 청소년 다수가 외로움·고립감…한국살이 지원할 ‘등지’ 턱없이 부족. 서울신문. URL: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09016003>.
- 민향식. (2017).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아 존중감 향상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 중국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석사학위). 인천대학교.
- 박하나. (2016). *중도입국 초등학생을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적용 사례 연구*(석사학위). 광주교육대학교.
- 박혜영. (1987). 은유와 환유의 언어학적, 정신분석학적 해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 *덕성여대논문집*, 16, 107-123.
-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영의, 김성범. (2017). 문학 치료의 텍스트 해석학적 이해에 대한 고찰: 폴 리쾨르의 은유, 상징, 내러티브 해석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2, 41-76.
- 법무부. (2017). 보도자료: 170110 중도입국자녀 개인정보 공유. URL: http://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873&strAnsNo=A&strFilePath=imm/&strRtnURL=IMM_3020&strOrgGbnCd=104000.
- 변경원, 최승은. (2015). 이야기를 통해 타자와 교류하는 주체: Taylor의 인정이론을 넘어 Ricoeur의 이야기정체성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형성 가능성. *교육문화연구*, 21(4), 37-59.

- 안인영, 서지영, 이동운, 이소진, 차보석, 이철순, ... 최재원.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한국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 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7(4), 306-312.
- 양계민, 조혜영. (2011).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용역과제 보고서 11-R3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엄찬호, 유강하, 유건상, 윤일수, 이민용, 이영의, ... 최병욱. (2017). *인문치료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여성가족부. (2018).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8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오영섭, 김영순, 왕금미. (2018). 이야기치료의 국제적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학치료연구*, 48, 41-74.
- 왕금미.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콜라주 미술치료 사례연구*(박사학위). 인하대학교.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비, 최정태, 손예진, 김기현. (2017). 한국 이주배경 청소년의 이주경험과 정신건강. *한국아동복지학*, 58, 231-262.
- 윤향희. (2016). *국제재혼가족 청소년 지원 정책개선 방안 연구: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갈등사례를 바탕으로*(박사학위). 동국대학교.
- 이다미. (2014).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위한 해결중심과 이야기치료의 효과*(박사학위). 연세대학교.
- 이묘주. (2004). *모-자 난화상호이야기방법 미술치료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 대구대학교.
- 이미련. (2014). 이야기치료 관련 국내연구의 분석.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2(3), 167-175
- 이민용. (2010). 이야기 해석학과 이야기치료. *해세연구*, 23, 249-273.

- 이성재. (2008).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 *프랑스문화연구*, 16, 379-406.
- 이순욱. (2006). 부부갈등 가정의 아동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이야기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비교-(박사학위). 경북대학교.
- 이영의. (2010). 인문치료 패러다임. *범한철학*, 56, 283-309.
- 이은경. (2002). *난화 상호 이야기법이 정신지체아의 주의집중결함 및 충동성 개선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 대구대학교.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8a). *이주배경청소년이란?* Retrieved from <http://rainbowyouth.or.kr>.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8b). *보도자료: 전국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카페 “다톡다톡(多talk茶talk)”, 5년간 4,600여명 지원*. Retrieved from www.rainbowyouth.or.kr.
- 이준우. (2001). *난화 상호 이야기법이 선택적 함묵아의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 공주대학교
- 이지연. (2002). *이야기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기법의 효과*(석사학위). 서울여자대학교.
- 임선아. (2006).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 대한 상담 사례 연구 : 난화 상호 이야기법을 중심으로*(석사학위). 광주교육대학교.
- 임세영. (2011). *집단 난화 상호 이야기법이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 대구대학교.
- 장선경. (2009). *난화 상호 이야기법을 활용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이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언어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박사학위). 창원대학교.
- 장선경, 권요한. (2009). *난화 상호 이야기법을 활용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이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언어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1(3), 437-461.
- 전경숙. (2012).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의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정책보고서 2012-06).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2007).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미영. (2005). *난화상호이야기법이 언어발달지체아동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 대구대학교.
- 정소연. (2016). *난화상호이야기법을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만성 조현병 환자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 대구대학교.
- 정용인. (2018a). *나는 다문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61038001.
- 정용인. (2018b). *다문화 20대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61038011&code=940100.
- 정원식. (2016a). *[세상 속으로] 다문화의 또 다른 그림자 방치된 중도입국 자녀들*.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12225325#csidx20847c0d87fde29b0f0cf87930108ea.
- 정원식. (2016b). *[세상 속으로] “한국말 못하고 문화 적응 안돼...학업·취업 다 포기 상태”*.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12135485&code=940100.
- 정해숙, 김이선, 이택면, 마경희, 최윤정, 박건표, ...이은아.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여성가족부.
- 정희자. (2003). 은유와 환유의 상호 작용. *외대어문논집*, 18, 275-300.
- 정희정, 김소연. (2014).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 상담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4), 831-853.
- 조미라. (2017). *기독교인자살유가족을 위한 이야기치료*(박사학위). 연세대학교.

- 조원탁, 박순희, 서선희, 안효자, 송기범, 이형하. (2012).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 경기: 양서원.
- 조진경. (2016).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방과후 영어수업 참여경험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박사학위). 인하대학교.
- 좌동훈. (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숭실대학교.
- 좌동훈. (2014).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 사회적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97-126.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 최영권.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정규과정 진입을 위한 한국어 교육 원리 연구*(석사학위). 배재대학교.
- 최지원. (2013). *이야기치료 개입을 통한 아동의 정체성형성과정 연구*(박사학위). 서울여자대학교.
- 최현미. (2013).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박사학위). 창원대학교.
- 폴 리콕르. (1999). *시간과 이야기 1,2,3*, 서울: 문학과 지성사.
- 한혜원. (2010). *디지털 시대의 신인류. 호모나랜스*. 경기: 살림출판사.
- 황선영. (2011).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향상을 위한 이야기만들기 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박사학위). 영남대학교.
- 황현정, 이윤정(2016).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적용한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155-176.
- Alford, B. L. (2014). *I am perfection: A program development utilizing family systems theory to empower African American female adolescents to identify positively with their physical appear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Anderson, H. (2005). The myth of not-knowing. *Family Process*, 44(4),

497-504.

- Angus, L. & McLeod, J. (2004). *The handbook of narrative and psychotherap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Bateson, G. (1980). *Mind and nature: A necessary unit*. New York: Dutton.
- Beisera, M., Puente-Durana, S., & Hou, F. (2015). Cultural distance and emotional problems among immigrant and refugee youth in Canada Findings from the New Canadian Child and Youth Study (NCCY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49*, 33-45.
- Birman, D. & Chan, W. Y. (2008). Screening and Assessing Immigrant and Refugee Youth in School-Based Mental Health Programs. *Center for Health and Health Care in Schools Issue Brief #1*. Retrieved from <http://www.healthinschools.org>.
- Bronfenbrenner, U. (2005). *Making human being human: Bioecological perspectives of human development*. Thousand Oakds, CA: Sage.
- Carlson, T. (1997) Using art in narrative therapy: enhancing therapeutic possibiliti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5*(3), 271-283.
- Cattanach, A. (2006). *Narrative play 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bb, R. & Negash, S. (2010) Altered book making as a form of art therapy: A narrative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21*(1), 54-69.
- Cole, A., Jenefsky, N., Ben-David, S., & Munson, M. (2018). Feeling Connected and Understood: The Role of Creative Arts in Engaging Young Adults in Their Mental Health Services, *Social Work with Groups*, *41*(1-2), 6-20.
- Conner, S. (2017) Externalizing problems using art in a group setting for substance use trea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 28(2), 187-192.
- Creswell, J.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Edwards, D. (1999). The role of the case study in art therapy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Art Therapy: Inscape*, 4(1), 2-9.
- Epp, J. (2013). Scarborough Intergenerational Alliance: An Art-based Narrative Therapy Model, *Canadian Art Therapy Association Journal*, 28(1), 13-25.
- Epston, D., White, M., & Murray, K. (1992). A proposal for a re-authoring therapy: Rose's revisioning of her life and a commentary. In S. McNamee & K. Gergan (Eds.), *Therapy as a social construction*. Newbury Park, CA: Sage.
- Gerring, J. (2007). *Case study research: Principles and practices*. New York, 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nen, E. (2009). *Narrative therapy with self-cutting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nchester.
- Hanney, L. & Kozłowska, K. (2002). Healing Traumatized Children: Creating Illustrated Storybooks in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41(1), 37-65.
- Huey, S., & Jones, E. (2013). Improving treatment engagement and psychotherapy outcomes for culturally diverse youth and families. In Paniagua, F. & Yamada, A. (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mental health*. (pp.427-444). California: Academic Press.
- Hutyrová, M. (2016). Utilization Of Narrative Approach In Art Therapy Inchildren With Behavioural Problems. *Review of Artistic Education*, 11-12, 284-289.
- James. D. (1997). Coping with A New Society: The unique psychosocial

- problems of immigrant youth. *Journal of School Health*, 67(6), 98-102.
- Kaptain, D. C. (2004). *Narrative group therapy with outpatient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Keeling, M., & Bermudez, M. (2007). Externalizing problems through art and writing: experience of process and helpfulnes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2(4), 405-419.
- Keeling, M. & Nielson, L. (2005). Indian women's experience of a narrative intervention using art and writing.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7(3), 435-452.
- Lev-Wiesel, R. & Liraz, R. (2007). Drawings vs. narratives: Drawing as a tool to encourage verbalization in children whose fathers are drug abusers.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1), 65-75.
- Li, W. W. (2012). Art in health and identity: Visual narratives of older Chinese immigrants to New Zealand. *Arts & Health*, 4(2), 109-123.
- O' Hanlon, B. (1994). The Third Wave. *Family Therapy Networker*, 18(6), 19-29.
- Ricks, L., Kitchens, S., Goodrich, T. & Hancock, E. (2014) My story: The use of narrative therapy in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Journal of Creativity in Mental Health*, 9(1), 99-110.
- Robin Higgins(1993). Approaches to case study: A handbook for those entering the therapeutic field. 김진아 역(2003). *예술·심리치료 임상 사례연구 방법론*, 서울: 학지사.
- Schleifer, B. & Ngo, H. (2005). Immigrant children and youth in focus. *Canadian Issues*, 29-33.
- Schweitzer, R., Vromans, L., Ranke, G., & Griffin, J. (2014). Narratives

- of healing: A case study of a young Liberian refugee settled in Australia. *The Arts in Psychotherapy*, 41, 98-106.
- Siddiqi, A., Hertzman, E., Irwin, L. G., & Hertzman, C. (2011). In Lee, J., & Sadara, R. (Eds.), *Early child developments: A powerful equalizer in improving equity in health by addressing social determinants*. Retrieved from <http://www.who.int>.
- Smith, C. & Nylund, D. (1997). *Narrative 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Guilford Press.
- Smokowski, P. Chapman, M. & Bacallao, M. (2007). Acculturati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mental health symptoms in immigrant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16(3), 33-55.
- Steinbrink, J. A. (2013). *T-wait: Trauma workbook outline for inner-city adolescent tee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Stock, C., Mares, S., & Robinson, G. (2012). Telling and retelling stories: The use of narrative and drawing in a group intervention with parents and children in a remote aboriginal communit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33, 157-170.
- Stricker, G. & Gold, J. (2008). Integrative Therapy. In Lebow, J. (Ed.), *Twenty-first century psychotherapie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Sujoldzic, A., Lucia, A., Buchegger, R., Terzic, R., Behluli, I., & Bajrami, Z. (2003). A European project on health problems, mental disorders and cross-cultural aspects of developing effective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refugee and immigrant youth. *Collegium Antropologicum*, 27(2), 431-438.
- Van Riper, C. (1979). *A career in speech pathology*. New Jersey, US:

- Prentice Hall.
- Yin, R.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신경식 · 서아영 · 송민채 역(2016).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 Wachong, L. (2009). *Witnessing survival: Narrative therapy for adolescent males who have been sexually victimiz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San Francisco Bay.
- White, M. & Epston, D. (1990).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정석환 역(2015). *이야기심리 치료 방법론: 치유를 위한 서술적 방법론*. 서울: 학지사.
- White, M. (2007). *Maps of narrative practic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이선혜 · 정슬기 · 허남순 역(2010). *이야기치료의 지도*. 서울: 학지사.
- White, M. (1989). The externalizing of the problem and the re-authoring of loves and relationships. *Dulwitch Centre Newsletter, summer*, 3-20.
- Wysocki, M. (2014). *Trauma art narrative therapy with children in residential treatment: A pilot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ng Island University.

ABSTRACT

A Case Study on Immigrant Youths'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the Art-Narrative Convergence Therapy(ANCT) Program

Youngsub Oh

Ph.D. Dissertation

Directed by Dr. Youngsoon Kim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February,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mmigrant youths'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the Art-Narrative Convergence Therapy (ANCT) program and explore the meaning of their experiences and therapeutic effects.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immigrant youths and their policy, this study presented the exact

This study's theoretical part discussed that the lack of a social safety net and exact investigation of immigrant youths, despite the recent increase in political interest in them. And this study described that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youths need to be approached and understood in the integrated context of individual, family, school, and society. And then this study suggested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convergence between narrative therapy and art therapy, beyond art-therapy-focused psychotherapy for immigrant youths.

In order to carry out clinical research based on this theoretical discussion, this study applied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y to August 2018 at G high school in I city designated as a multicultural preliminary school. Specifically, twelve sessions of the ANCT program were applied to seven immigrant youths.

This study divided the immigrant youths'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the ANCT program into the three stages.

In the early stage, immigrant youths began to express their psychological state in various areas such as school life, career, and everyday life. In the middle stage, they extended and connected the time and space of their narrative. They were able to find the causes of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 the family context such as family separation and reunion. In the late stage, reusing the symbol used in the early stage, immigrant youths developed it to solve their psychological difficulties while deepening the symbol's meaning. As a result, they experienced the release of their own psychological difficulties.

The experience of immigrant youths were divided into narrative therapy's three elements like externalizing problematic stories, highlighting unique outcomes, and re-authoring alternative stories.

First, immigrant youths' problematic stories were psychological fatigue, shaking of identity, and nostalgia for parents. They used the symbol when expressing the problematic stories.

Second, immigrant youths' unique outcomes were related to someone inside and outside of the family, or their own strengths. They found a basis for overcoming their own psychological difficulties.

Third, immigrant youths' alternative stories changed the meaning given to the symbol used in the problematic story, and developed the stories in the direction of alleviating and solving the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 order to provide the objective effect of the ANCT, the psychological changes of immigrant youths were observed by G high school teachers. Teachers stated that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ANCT program had a positive change.

First, immigrant youths generally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They participated voluntarily with interest in the program. Their appearance changed into a bright and pleasant expression. They became confident in expressing their own feelings and thoughts.

Second, immigrant youths individually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The extent and content of change varied from person to person, and there were some participants who did not have much change. Nevertheless, stress relieved. As the burden of psychotherapy changed to interest and fun, they were able to participate seriously. They had the courage to express themselv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ntroduced and utilized narrative therapy as a main psychotherapy of immigrant youths for the first time.

Second, this study suggested a convergence psychotherapy model using the advantages of art therapy and narrative therapy.

Third, this study provided client-centered, self-initiative psychotherapy model for immigrant youths to find out and solve their own psychological difficulties.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the suggestions for schools and related policy institutes, research limitations,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부록 1> 연구설명문 및 연구참여동의서 양식

<연구 설명문 - 학생용>

연구제목: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 사례연구

연구책임자: 오영섭(전화, 이메일)

공동연구원: 김영순(전화, 이메일), 왕금미(전화, 이메일)

무엇을 연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하대학교에서 다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입니다. 본 연구자는 “이주배경 중도입국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라는 제목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학생이름)의 참여를 요청과 함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미술-이야기융합치료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또래와의 원만한 소통, 학업 성취능력 향상, 정서적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발달측면에서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응, 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은 매 회기마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이야기활동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연구에 참여하는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 까지(4개월)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주 1~2회, 총 10~15회기이며, 1일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될 것입니다. 연구참여 집단인원은 4~7명입니다. 본인과 부모가 연구 참여를 허락하게 되면, 연구자가 제시한 미술 활동을 하게 되며,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간단한 소감문을 쓰거나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자가 참여자의 미술작품의 내용과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면, 참여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선물이 있나요?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상품(매 회마다 당일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1만원 상당의 식사대용에 준하는 간식 및 연구진행 중 강화의 의미로 문구류선물 지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연구에 참여할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본 연구에 참여할 때, 예상되는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 및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참여를 위해서 10-15회기를 참여하고, 매 회기별 1.5-2시간 할애를 해 주셔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장소와 시간은 연구자가 교육을 위해서 이미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 비밀은 지켜지나요?

프로그램 장소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익숙한 교실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중 모든 내용은 기록과 녹음을 할 것이며, 해당 작품은 촬영하여 보관할 것입니다. 녹음하는 중에 개인 신상에 관련한 정보가 발설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후에도 연구자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향후 3년 동안 보관하며, 이후에 모든 자료를 폐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 참여는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나요?

본 연구의 참여에는 연구자로부터 어떠한 강요도 없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중에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중지할 수 있음과 이에 따른 어떠한 불편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연구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연구자 측에 의해서 연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이번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번 연구진행과정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연구책임자 오영섭(전화번호)에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안전 및 권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orb.inha.ac.kr 032-860-9158)에서 확인,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오 영 섭 드림



<연구참여 동의서 - 학생용>

연구제목: 중도입국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 연구

나는 본 연구에 대한 모든 정보들에 관하여 담당 연구자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나는 연구 기간 중 언제라도 자유롭게 이 연구에 참여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것 때문에 나의 학교생활을 포함해 다른 어떠한 나쁜 일도 생기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 언제라도 담당 연구자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나는 자유로운 뜻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허락합니다.

■ 연구책임자

이름: 오영섭 서명: _____ 날짜: _____년도 _____월 _____일

■ 동의서 설명자

이름: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년도 _____월 _____일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부분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참여 청소년: 성명: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연구 책임자: 성명: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연구 설명문 - 학부모용〉

연구제목: 이주배경 중도입국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사례 연구

연구책임자: 오영섭(전화, 이메일)

공동연구원: 김영순(전화, 이메일), 왕금미(전화, 이메일)

본 설명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와 내용은 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

본 연구자는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라는 제목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학생이름)의 참여를 요청 드리면서, 이에 대해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자녀와 같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들을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이하 중도입국 청소년)이라고 말합니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 참여한 것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 사회 적응과 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귀하의 자녀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의뢰합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정서발달 프로그램 중에서 미술매체와 이야기를 이용한 체험활동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며, 이 과정에서 치유 경험을 느낄 수 있으며, 소통 및 정서적 갈등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술치료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창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속에서 정서순화와 심미적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미술치료에 이야기 치료를 더하게 되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원만한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상 참여기간

연구기간은 2018년 5월 - 2018년 8월 (4 개월) 입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략적인 참여자 수

연구 참여자는 만 8세에서 24세에 해당하고 한국에 중도입국한 청소년으로서, 4-7명도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연구절차

담당연구원이 부모님과 해당 자녀에게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받습니다. 연구참여에 동의하신 후에는 연구원이 귀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소집단프로그램 참여는 주 1~2회, 총 10~15회기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연구참여 집단인원은 4~7명입니다. 본인과 부모가 연구 참여를 허락하게 되면, 연구자가 제시한 미술 활동을 하게 되며,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간단한 소감문을 쓰거나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자가 참여자의 미술작품의 내용과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면, 참여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1일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될 것이며, 미술작품사진과 면담내용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품 사진촬영과 녹음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구합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익숙한 교실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녹음의 질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2대의 녹음기와 촬영기기를 사용하여 기록할 것입니다.

연구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과 이로운 점

본 연구에 참여할 때, 예상되는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 및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참여를 위해서 10-12회기를 참여하고, 매 회기별 1.5-2시간 할애를 해 주셔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장소와 시간은 연구자가 교육을 위해서 이미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자녀들에게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상품(매 회마다 당일 프로그램

을 시작하기 전에 1만원 상당의 식사대용에 준하는 간식 및 연구진행 중 강화의 의미로 문구류선물 지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발적 참여 및 철회의 자유

본 연구에의 참여는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결정됩니다. 귀하의 자녀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참여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중에도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어떠한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자녀가 연구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연구자 측에 의해서 연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연구가 진행되는 중에 개인 신상과 관련한 정보가 발설되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도 연구자는 연구자 윤리 의무로 준수하여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소중한 작품 및 설문지, 개인정보 보관 및 관리는 본 연구자의 연구실에 보안용 자료보관함에 안전하게 보관 후 3년간 보관 후 폐기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

귀하는 본 연구와 관련된 잠재적 혹은 알려진 위험에 관한 모든 질문을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연구책임자 오영섭(전화번호)에게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안전 및 권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inha.ac.kr 032-860-9158)에서 확인,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오 영 섭 드림


<연구참여 동의서 - 학부모용>

연구제목: 이주배경 중도입국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 사례연구

-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었으며, 연구와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본인은 담당연구자로부터 연구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 본인의 자녀는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 본인의 자녀가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 및 본인의 자녀는 연구 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에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자녀가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본인의 자녀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인 및 본인의 자녀의 연구 참여를 요청하여 동의서 사본 1부를 수령하였습니다.

법정 대리인(부모): 성명: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연구 책임자: 성명: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록 2> 소감문 양식

소감문				
프로그램	미술-이야기를 통한 감성심리여행			
날짜	2018년 월 일 (요일)			
이름	한국어		생년월일	년 월 일
	모국어		나이	세
	연락처: 010 - -			
주제	“(각 회기별 주제)”			
제목				
미술작품설명 (이야기)				
작품완성 후 기분, 느낌				
프로그램 후 나의 마음	매우기분좋다	기분좋다	보통이다	기분나쁘다
치료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치료사	치료사 이름(전화번호)			

<부록 3> 참여관찰 및 성찰일지 양식

O 회기						
일시·장소		201 년 월 일 00:00 ~ 00:00 (△분), □ 교실				
참여 관찰 및 성찰	연구자의 관찰	1. 수업주제: 2. 미술활동 재료: 3. 참여자: (참여자 A이름, B, ...) 등 O명 - 결석 및 지각사유 4. 수업전개: - 전반적인 수업흐름 및 특이사항 5. 자리배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자리배치도</td> <td style="width: 50%;">활동사진</td> </tr> </table>	자리배치도	활동사진		
	자리배치도	활동사진				
		6. 연구참여자 개인별 관찰 1) 연구참여자 A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미술</td> <td style="width: 50%;">이야기</td> </tr> <tr> <td>사진</td> <td>주요 내용</td> </tr> </table>	미술	이야기	사진	주요 내용	
미술	이야기					
사진	주요 내용					
	2) 연구참여자 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미술</td> <td style="width: 50%;">이야기</td> </tr> <tr> <td>사진</td> <td>주요 내용</td> </tr> </table>	미술	이야기	사진	주요 내용	
미술	이야기					
사진	주요 내용					
	공동연구자 (외부관찰자) 의 관찰					
	연구자의 성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내부자적 관점</td> <td style="width: 50%;">외부자적 관점</td> </tr> <tr> <td style="height: 40px;"></td> <td></td> </tr> </table>	내부자적 관점	외부자적 관점		
내부자적 관점	외부자적 관점					

<부록 4> 교사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질문지: 담당교사>

본 연구의 제목은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 사례연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연구자로부터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셨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에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문화학생들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프로그램참여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의 학생들의 심리, 행동, 생활전반의 변화**에 대해서 제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신 내용과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A, B, C, D, E, F, G입니다. 참여학생 개인별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번호	주제	질문
1	감정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정의 변화 - 태도의 변화 - 제스처의 변화 - 행동의 변화 - 눈 맞춤의 변화
2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참여도(태도, 행동, 질문여부) - 학교에서 즐기는 않는지 여부 - 휴식시간의 행동의 변화 - 교사와의 관계의 변화 - 친구와의 관계의 변화
3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 먹는 것 - 잠자는 것 - 집에서의 동거인 등의 가족관계 - 거주형태 - 경제적 형편 - 옷 입는 것
4	가정과 학교 밖의 생활	- 가정과 학교 밖의 생활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5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에 대한 학생 본인의 생각의 변화 - 진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6	한국어	-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되거나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7	기타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질문지: 실무담당 책임자〉

본 연구의 제목은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 사례연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연구자로부터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셨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에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문화학생들과 담당교사들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프로그램참여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다문화 학생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실무담당자의 입장에서 본 연구자가 진행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관찰하신 내용과 의견에 대해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주시시오.

번호	주제	질문
1	중도입국 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은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학교에서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중도입국 학생 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 교육청과 학교와의 연계내용은 무엇인가요? - 실질적 운영 현실 및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3	프로그램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참여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후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4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중도입국 학생의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하면 중도입국 학생들이 학교생활,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진로에 있어서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5> 미술-이야기융합치료프로그램 교수안

1회기 교수안		
주제	집, 나무, 사람	
활동목표	1. 집단원 사이의 라포 및 치료사와의 라포를 형성 2. 자신의 전반적인 심리를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음	
준비물	사인펜, 색연필, 지우개, A4용지, 소감문양식	
활동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입	5분	간식나눔
	10분	전체프로그램 안내 및 진행자 소개
	5분	1회기 프로그램 소개 - 주제, 매체, 그림 예시 등을 설명
미술 치료	40분	자신의 집, 나무, 가족을 그리기
이야기 치료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를 설명 - 집단원들에게 설명 - 소감문 작성
정리	10분	작업 후 책상정리 및 쓰레기 줍기
기타	10분	(필요시) 추가 개별인터뷰
참고	1. 첫 회기로서 자유롭고 편안한 집단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둠 2. 녹음 및 참여관찰일지 작성(종료 후 스캔 및 보관) 3. 한국어가 미숙한 참여자를 위해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집단원 및 연구자가 통역을 제공함	

2학기 교수안		
주제	나와 나무	
활동목표	자신의 정체성을 객관화해보고,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준비물	사인펜, 색연필, 지우개, A4용지, 소감문양식	
활동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입	5분	간식나눔
	10분	2학기 프로그램 안내 - 주제, 매체, 그림 예시 등을 설명
미술 치료	40분	나무와 사람을 그리기
이야기 치료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 설명: 나무 옆에 서 있는 사람의 감정을 이야기함 - 집단원들에게 설명 - 소감문 작성
정리	10분	작업 후 책상정리 및 쓰레기 줍기
기타	10분	(필요시) 추가 개별인터뷰
참고	1. 초기단계로서 자신의 심리를 탐색하고 문제적 이야기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둠 2. 연구참여자의 모국 문화에 따라서 상담·심리치료 및 치료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3회기 교수안		
주제	필름 그림	
활동목표	이주과정 전-중-후에 발생한 사건을 탐색하고, 그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심리를 표현할 수 있음	
준비물	사인펜, 색연필, 지우개, A4용지, 8절 색상도화지, 풀, 가위, 소감문양식	
활동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입	5분	간식나눔
	10분	3회기 프로그램 안내 - 주제, 매체, 그림 예시 등을 설명 - 1-2분간 눈을 감고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미술 치료	40분	어렸을 때 떠오르는 장면, 현재 생활에서 나의 모습, 미래에 소망하는 꿈을 그리기
이야기 치료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 설명 - 집단원들에게 설명 - 소감문 작성 및 발표
정리	10분	작업 후 책상정리 및 쓰레기 줍기
기타	10분	(필요시) 추가 개별인터뷰
참고	1.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독특한 사건, 앞으로 일어나길 바라는 사건을 탐색함 2. 연구참여자의 미술 혹은 한국어의 수준에 따라서 각 치료의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함	

4회기 교수안		
주제	두 얼굴	
활동목표	자신의 양면적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음	
준비물	사인펜, 색연필, 지우개, A4용지, 8절 색상도화지, 풀, 가위, 소감문양식	
활동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입	5분	간식나눔
	10분	4회기 프로그램 안내 - 주제, 매체, 그림 예시 등을 설명
미술 치료	40분	행복한 감정의 얼굴과 불행한 감정의 얼굴을 각각 그리고, 행복하거나 불행한 감정에 대한 이유를 말풍선 안에 쓰기
이야기 치료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 설명 - 집단원들에게 설명 - 소감문 작성 및 발표
정리	10분	작업 후 책상정리 및 쓰레기 줍기
기타	10분	(필요시) 추가 개별인터뷰
참고	1. 양면적인 감정과 관련된 인간관계, 특정한 사건, 일상 시간활용내용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둠 2. 발표를 통해서 집단원 사이의 이해를 증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	

5회기 교수안		
주제	탄생	
활동목표	자신의 문제적 이야기를 대체할 긍정적이고 대안적인 이야기를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음	
준비물	사인펜, 색연필, 지우개, A4용지, 8절 색상도화지, 말풍선 워크지, 색골판지, 풀, 가위, 소감문양식	
활동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입	5분	간식나눔
	10분	5회기 프로그램 안내 - 주제, 매체, 그림 예시 등을 설명
미술 치료	40분	계란에서 태어난 이미지를 활용하여,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모습, 가지고 싶은 물건, 하고 싶은 일 등을 콜라주기법으로 표현
이야기 치료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 설명 - 집단원들에게 설명 - 소감문 작성 및 발표
정리	10분	작업 후 책상정리 및 쓰레기 줍기
기타	10분	(필요시) 추가 개별인터뷰
참고	1. 중기단계로서 자신의 욕구와 소원을 직면하고 표현하는데 초점을 둠 2. 현장의 상황 혹은 연구참여자의 상태에 따라서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개입할 수 있음	

6회기 교수안		
주제	상장	
활동목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자신의 적성과 희망을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준비물	사인펜, 색연필, 지우개, A4용지, 8절 색상도화지, 말풍선 워크지, 색골판지, 풀, 가위, 소감문양식	
활동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입	5분	간식나눔
	10분	6회기 프로그램 안내 - 주제, 매체, 그림 예시 등을 설명
미술 치료	40분	구체적으로 자신의 전공, 대학교 이름을 상장 (대학입학증)의 형식으로 콜라주기법으로 표현
이야기 치료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 설명 - 집단원들에게 설명 - 소감문 작성 및 발표
정리	10분	작업 후 책상정리 및 쓰레기 줍기
기타	10분	(필요시) 추가 개별인터뷰
참고	<p>1. 고교졸업 후의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불안한 심리를 확인하고 이를 대체할 이야기를 자신의 적성과 경험에서 탐색함. 더 나아가서 전공, 대학, 직업 등을 목표로 준비하는 의지를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둠</p> <p>2. 발표 시에 박수를 쳐주며 서로의 꿈을 지지함</p>	

7회기 교수안		
주제	집, 나무, 사람	
활동목표	자신의 가족, 고향집, 한국집, 이주과정 등과 관련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다시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음	
준비물	사인펜, 색연필, 지우개, A4용지, 소감문양식	
활동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입	5분	간식나눔
	10분	7회기 프로그램 안내 - 주제, 매체, 그림 예시 등을 설명
미술 치료	40분	자신의 집, 나무, 가족을 그리기
이야기 치료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 설명 - 집단원들에게 설명 - 소감문 작성 및 발표
정리	10분	작업 후 책상정리 및 쓰레기 줍기
기타	10분	(필요시) 추가 개별인터뷰
참고	<p>1. 중기 이후에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활동이 되는데 초점을 둬</p> <p>2. 불출석한 학생들의 상황을 담당교사로부터 확인함</p>	

8회기 교수안		
주제	나의 이름	
활동목표	자신의 이름에 담긴 정체성을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음	
준비물	사인펜, 색연필, 지우개, A4용지, 소감문양식	
활동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입	5분	간식나눔
	10분	8회기 프로그램 안내 - 주제, 매체, 그림 예시 등을 설명
미술 치료	40분	자신의 한국어 이름, 모국어 이름을 그리기
이야기 치료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 설명: 한국어 이름, 모국어 이름에 관한 설명 - 집단원들에게 설명 - 소감문 작성 및 발표
정리	10분	작업 후 책상정리 및 쓰레기 줍기
기타	10분	(필요시) 추가 개별인터뷰
참고	1. 한국어 이름의 뜻, 지어준 사람, 만족도를 통해서 이 주과정에서의 독특한 경험을 확인하고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의지를 격려하는데 초점을 둠 2.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9회기 교수안		
주제	나와 나무	
활동목표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음	
준비물	사인펜, 색연필, 지우개, A4용지, 소감문양식	
활동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입	5분	간식나눔
	10분	9회기 프로그램 안내 - 주제, 매체, 그림 예시 등을 설명
미술 치료	40분	나무와 함께 있는 자기 자신을 그리기
이야기 치료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 설명: 나무 옆에 서 있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함 - 집단원들에게 설명 - 소감문 작성
정리	10분	작업 후 책상정리 및 쓰레기 줍기
기타	10분	(필요시) 추가 개별인터뷰
참고	1. 후기단계로서 참여자가 초·중기와 달라진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둠 2. 미술활동과 이야기활동의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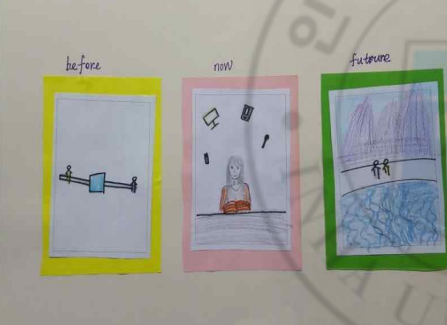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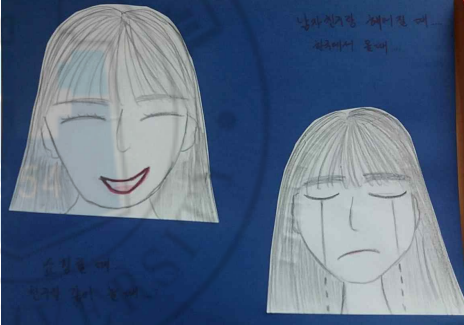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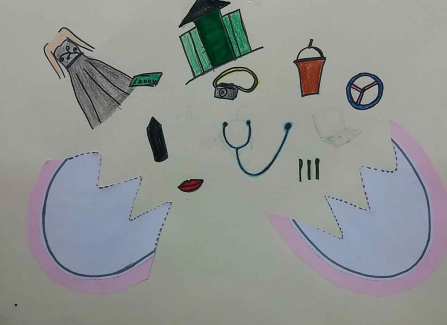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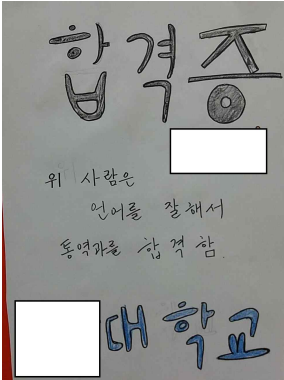
10회기 교수안		
주제	손가락	
활동목표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음	
준비물	사인펜, 색연필, 지우개, A4용지, 소감문양식	
활동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입	5분	간식나눔
	10분	10회기 프로그램 안내 - 주제, 매체, 그림 예시 등을 설명
미술 치료	40분	양 손가락을 그리고, 왼손가락에는 자신의 단점을, 오른손가락에는 자신의 장점을 쓰기
이야기 치료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 설명: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 - 집단원들에게 설명 - 소감문 작성
정리	10분	작업 후 책상정리 및 쓰레기 줍기
기타	10분	(필요시) 추가 개별인터뷰
참고	1. 중도입국 청소년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끌어내고 스스로 인식하고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둠 2.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re-authoring), 치료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함(re-telling)으로서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줌	

11회기 교수안		
주제	두 얼굴	
활동목표	자신의 양면적 감정을 재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음	
준비물	사인펜, 색연필, 지우개, A4용지, 8절 색상도화지, 풀, 가위, 소감문양식	
활동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입	5분	간식나눔
	10분	11회기 프로그램 안내 - 주제, 매체, 그림 예시 등을 설명
미술 치료	40분	행복한 감정의 얼굴과 불행한 감정의 얼굴을 각각 그리고, 행복하거나 불행한 감정에 대한 이유를 말풍선 안에 쓰기
이야기 치료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 설명 - 집단원들에게 설명 - 소감문 작성 및 발표
정리	10분	작업 후 책상정리 및 쓰레기 줍기
기타	10분	(필요시) 추가 개별인터뷰
참고	1. 양면적인 감정과 관련된 원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초점을 둠 2. 발표를 통해서 집단원 사이의 이해를 증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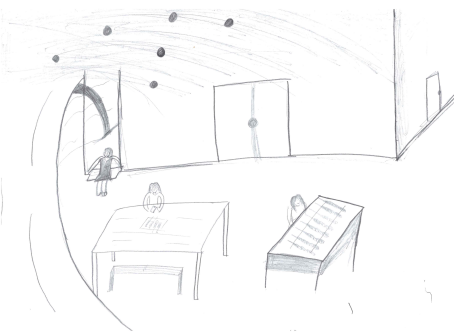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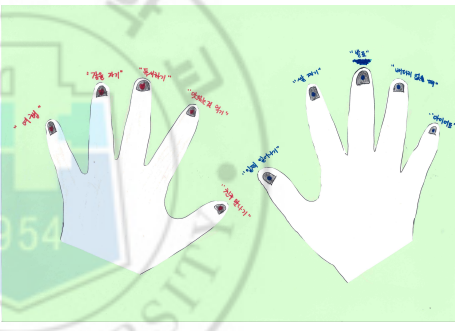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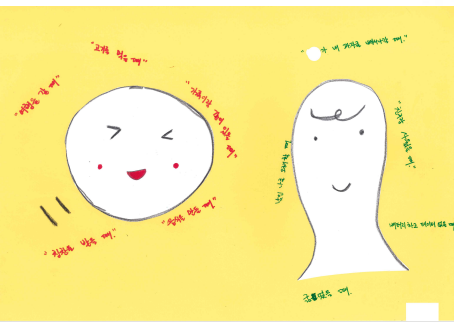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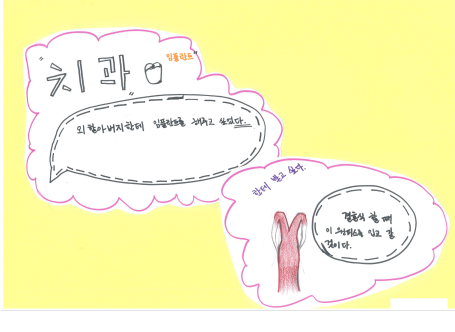
12회기 교수안		
주제	선물	
활동목표	가족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에서 형성된 감정을 순화하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회원을 재구성할 수 있음	
준비물	사인펜, 색연필, 지우개, A4용지, 8절 색상도화지, 풀, 가위, 소감문양식, 잡지	
활동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입	5분	간식나눔
	10분	11회기 프로그램 안내 - 주제, 매체, 그림 예시 등을 설명
미술 치료	40분	받고 싶은 선물,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리거나 잡지에서 오려서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함
이야기 치료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 설명: 선물과 관련된 경험, 인간관계를 이야기함 - 집단원들에게 설명 - 소감문 작성 및 발표
정리	10분	작업 후 책상정리 및 쓰레기 줍기
기타	10분	(필요시) 추가 개별인터뷰
참고	1. 12회기를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여 증정하고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둠 2. 프로그램의 참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탐색하고 표현한 소감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함	

<부록 6> 연구참여자의 회기별 미술작품

연구참여자 A의 회기별 작품

	
<p>1회기: 집, 나무, 사람</p>	<p>2회기: 나와 나무</p>
	
<p>3회기: 필름 그림</p>	<p>4회기: 두 얼굴</p>
	
<p>5회기: 탄생</p>	<p>6회기: 상상</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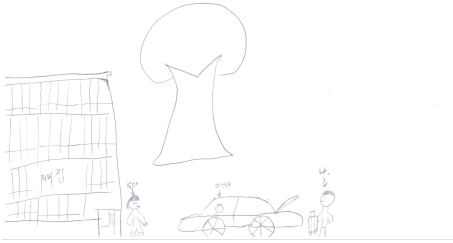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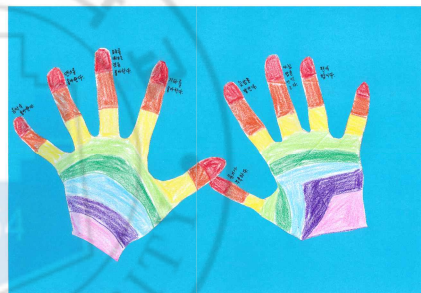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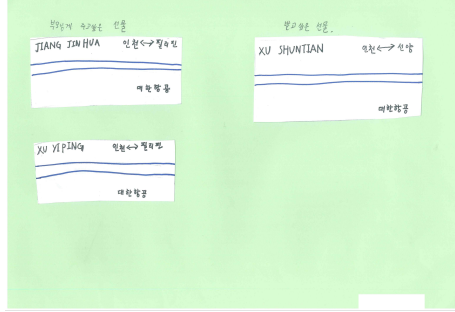
연구참여자 A의 회기별 작품

	<p>나의 이름 소개하기 그림</p>
<p>7회기: 집, 나무, 사람</p>	<p>8회기: 나의 이름</p>
	
<p>9회기: 나와 나무</p>	<p>10회기: 손가락</p>
	
<p>11회기: 두 얼굴</p>	<p>12회기: 선물</p>

연구참여자 B의 회기별 작품

<p>1회기: 집, 나무, 사람</p>	<p>2회기: 나와 나무</p>
<p>3회기: 필름 그림</p>	<p>4회기: 두 얼굴</p>
<p>5회기: 탄생</p>	<p>6회기: 상장</p>

연구참여자 B의 회기별 작품

	<p>나의 이름 소개하기 그림</p>
<p>7회기: 집, 나무, 사람</p>	<p>8회기: 나의 이름</p>
	
<p>9회기: 나와 나무</p>	<p>10회기: 손가락</p>
	
<p>11회기: 두 얼굴</p>	<p>12회기: 선물</p>

연구참여자 C의 회기별 작품

<p>1회기: 집, 나무, 사람</p>	<p>2회기: 나와 나무</p>
<p>3회기: 필름 그림</p>	<p>4회기: 두 얼굴</p>
<p>5회기: 탄생</p>	<p>6회기: 상장</p>

연구참여자 C의 회기별 작품

	<p>나의 이름 소개하기 그림</p>
<p>7회기: 집, 나무, 사람</p>	<p>8회기: 나의 이름</p>
	
<p>9회기: 나와 나무</p>	<p>10회기: 손가락</p>
	
<p>11회기: 두 얼굴</p>	<p>12회기: 선물</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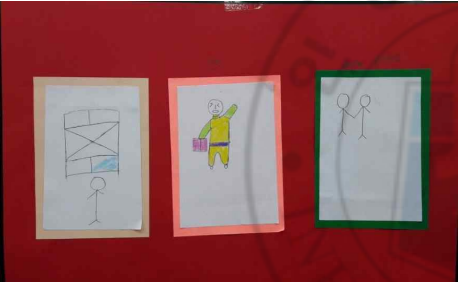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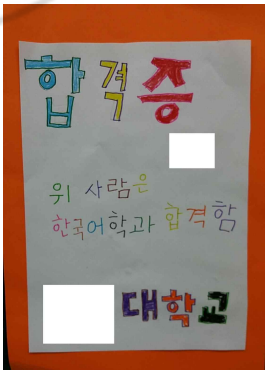
연구참여자 D의 회기별 작품

<p>1회기: 집, 나무, 사람</p>	<p>2회기: 나와 나무</p>
<p>3회기: 필름 그림</p>	<p>4회기: 두 얼굴</p>
<p>5회기: 탄생</p>	<p>6회기: 상장</p>


연구참여자 D의 회기별 작품

	<p>나의 이름 소개하기 그림</p>
<p>7회기: 집, 나무, 사람</p>	<p>8회기: 나의 이름</p>
	
<p>9회기: 나와 나무</p>	<p>10회기: 손가락</p>
	
<p>11회기: 두 얼굴</p>	<p>12회기: 선물</p>

연구참여자 E의 회기별 작품

	
<p>1회기: 집, 나무, 사람</p>	<p>2회기: 나와 나무</p>
	
<p>3회기: 필름 그림</p>	<p>4회기: 두 얼굴</p>
	
<p>5회기: 탄생</p>	<p>6회기: 상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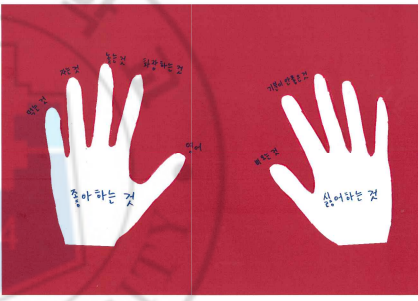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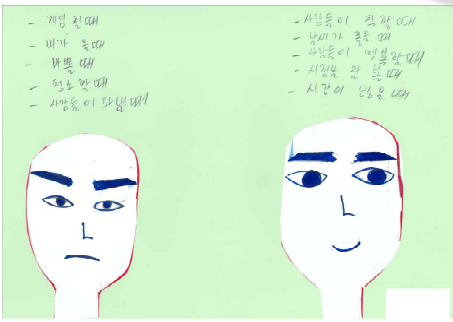

연구참여자 E의 회기별 작품

	<p>나의 이름 소개하기 그림</p>
<p>7회기: 집, 나무, 사람</p>	<p>8회기: 나의 이름</p>
	
<p>9회기: 나와 나무</p>	<p>10회기: 손가락</p>
	
<p>11회기: 두 얼굴</p>	<p>12회기: 선물</p>

연구참여자 F의 회기별 작품

	
<p>1회기: 집, 나무, 사람</p>	<p>2회기: 나와 나무</p>
	
<p>3회기: 필름 그림</p>	<p>4회기: 두 얼굴</p>
	
<p>5회기: 탄생</p>	<p>6회기: 상장</p>

연구참여자 F의 회기별 작품

	<p>나의 이름 소개하기 그림</p>
<p>7회기: 집, 나무, 사람</p>	<p>8회기: 나의 이름</p>
	
<p>9회기: 나와 나무</p>	<p>10회기: 손가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방질 때 - 비가 올 때 - 화날 때 - 힘들어할 때 - 사랑스러울 때 - 사람들이 싫어할 때 - 남자가 죽을 때 - 사람들이 영혼을 잃을 때 - 사람들이 귀찮을 때 - 시간이 많을 때 	
<p>11회기: 두 얼굴</p>	<p>12회기: 선물</p>

연구참여자 G의 회기별 작품

	
<p>1회기: 집, 나무, 사람</p>	<p>2회기: 나와 나무</p>
	
<p>3회기: 필름 그림</p>	<p>4회기: 두 얼굴</p>
	
<p>5회기: 탄생</p>	<p>6회기: 상장</p>

연구참여자 G의 회기별 작품

	<p>나의 이름 소개하기 그림</p>
<p>7회기: 집, 나무, 사람</p>	<p>8회기: 나의 이름</p>
	
<p>9회기: 나와 나무</p>	<p>10회기: 손가락</p>
	
<p>11회기: 집, 나무, 사람</p>	<p>12회기: 선물</p>